

빈티지 여행 인천

어제의 시간을 간직한 채
오늘을 쌓아가는 인천을 여행하다

rebeon

차례

CONTENTS

머리말

[01. 담담각 Damdamgak](#)

[02. 소금빛서점 + 유림상회 Salt and Light Bookshop and Crowd Forest Shop](#)

[03. 소창체험관 Sochang Experience Center](#)

[04. 조커피랩 Cho Coffee Lab](#)

[05. 카페 남문로7 Cafe Nammunro7](#)

[06. 카페 조양방직 Cafe Joyangbangjic](#)

[07. 신진말 Sinjinmal](#)

[08. 아늑커피 Aneuk Coffee](#)

[09. 코스모40 Cosmo 40](#)

[10. 느슨 Neusn](#)

[11. 이당비스트로 Yidang Bistro](#)

[12. 차담정 Chadamjung](#)

[13. 카페 코스메 Café Kosame](#)

[14. 태이니테이블 Teiny Table](#)

[15. 휘게101 Hygge101](#)

[16. 다이닝카페 게이미 GHEMI](#)

[17. 카페 밀레 Cafe Millet](#)

[18. 카페 발로 1,2호점 Cafe Valor 1, 2](#)

[19. 우리미술관 Woori Museum of Art](#)

- [20. 책방모도 Modoo Books](#)
- [21. 카페 Mercy Cafe Mercy](#)
- [22. 메콩사롱 + 개항로 본부 Mekong Salon and Gaehangro Headquarter](#)
- [23. 브라운핸즈 개항로 Brownhands Gaehangro](#)
- [24. 플레이스막 인천 + 마틸다 Place MAK Incheon and Matilda](#)
- [25. 버텀라인 Bottom Line](#)
- [26. 이집트 경양식 + 앵커드 + 참새조합 Egypt Restaurant, Anchored and Truebird Union](#)
- [27. 인천여관X루비살롱 Incheon Yeokwan X Rubi Salon](#)
- [28. 진달래 주점 Jindalae Pub](#)
- [29. 칼리가리 브루잉 Caligari Brewing](#)
- [30. 흑백사진관 우리 Monochrome Photoshop Woori](#)

[색인](#)

[판권](#)

머리말

PROLOGUE

오래 보아야 예쁘다:

어제의 시간을 간직한 채 오늘을 쌓아가는 인천을 여행하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즐겨 가던 카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전보다 더 깔끔해지고 세련된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옛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는 과거의 것을 지키고 기록하기보다는 '새로고침'을 합니다. 카페도, 레스토랑도, 아파트도. 언젠가부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빈티지'는 원래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만든 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서 깊은', '오래되어 가치가 있는' 등의 의미가 추가되어 와인 이외의 것도 아우르는 의미로 확장된 것입니다.

인천은 지리적 환경에 의해 여러 문화가 섞여, 그것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인 지역입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인천 사람들은 인천에 있기보다는 서울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방치된 공간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다른 지역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등한시된 공간에서 역사를 봅니다. 최근, 이러한 **오래된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공장, 조용한 병원 등 이제는 쓸모를 잃은 공간을 부수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쌓인 시간의 흔적 위에 의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은 어제의 시간을 간직한 채, 오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슬쩍 주변을 둘러보면 공장이 즐비한 회색 도시에, 바다를 곁에 두었으면서도 다른 소리에 파묻혀 파도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천은 어느 시 구절과 닮았습니다. 인천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예쁜 곳입니다.** <빈티지여행인천>은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위에서 새로움을 전하는 30곳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6개의 구, 강화군, 서구, 남동구, 부평구, 동구, 중구에 자리한 공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오래된 새로움’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오래 느낄 수 있도록 이 공간들이 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티지여행인천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큐레이터(글·사진)김은진, 문서희, 장채영

자문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인천스펙타클 이종범, 청풍상회 유명상



Vintage Travel Incheon © 2018 Incheon

빈티지여행인천은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위에서 새로움을 전하는 인천 내 30곳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 담담각

DAMDAMGAK

어머니의 유산에서, 25년간의 세월을 담은 모두의 집으로



담담각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헤리티지 공정무역 한옥 호텔’이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강화의 3,000평 규모의 땅을
25년 동안 일구어, 지금의 담담각이 되었다.





강화 하점면 삼거리에는 장승 두 개가 우뚝 서 있다. 마을의 수호신인 이 장승을 따라가면 초록빛의 소나무와 돌담길이 반겨주는데, 땅에 묻혀있던 돌을 20여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하나 쌓아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담담각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헤리티지 공정무역 한옥 호텔’이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강화의 3,000평 규모의 땅을 25년 동안 일구어, 지금의 담담각이 되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서 초록밭을 지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방은 하늘채다. 이름 따라 침대에 누우면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빛이 들어와 감싼다.



방에서 나와 연못의 다리를 건너니 큰 한옥의 숲 채가 나온다. 개인이 소유한 강화 한옥 문화연구소의 기능도 하고 있는데, 인간문화재 지원사업을 하던 주인장은 인간문화재의 소개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어느 절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용인에서 강화에 가져왔다고 한다. 외벽에 부처의 일생을 그리면 절이 되고, 십이장생을 그리면 민가가 되는데 이곳은 민가로 재생된 것이다. 오색 단청으로 인간문화재들이 직접 보수를 하였다고 한다.



마당으로 나오니 연개소문 소나무가 마당 중간에 놓여있다. 만지면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말에 너도나도 그 기운을 받고 간다고.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새부터 토끼, 닭들이 있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을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단다. 그런가 하면 공간 곳곳에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에 대해 외국어로 자세히 적어둔 주인장의 세심한 배려도 엿볼 수 있다.



주방에는 우물이 있어 천연 가습기의 역할을 하며, 주방을 바의 형태로 고쳤기 때문에 파티에도 제격이라고. 게다가 욕실에는 ‘매직미러’가 설치되어 있어, 안에서 고려산의 풍경을 보며 따뜻한 목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주인장이 공정무역에도 관심이 많은 탓에 유기농 면화로 만들어진 수건을 비치해 두었을 뿐 아니라, 담담각에서는 공정무역 커피를 맛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요가와 명상과 같은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 덕분에 가족 단위는 물론 연인들, 심지어 외국 인도 즐겨 찾는다고. 담담각의 봄은 벚나무에 핀 벚꽃이 아름답고, 벚나무가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마음을 맑게 해준다.



공간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15명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02. 소금빛서점 + 유림상회

SALT AND LIGHT BOOKSHOP AND CROWD FOREST SHOP

한옥에서, 그 남자 서점 그 여자 그릇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강화에서 결혼식을 올린 젊은 청년 부부가
이 고택의 바깥채에서 서점과 그릇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강화읍으로 들어서 남문을 지나니 아름다워 눈길을 사로잡는 근대건축 양식의 고택이 있다. 1947년 망명 도중 황 부잣집으로 알려진 옛 동지들을 만나 이 고택에서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이틀간 기거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다. 이 고택은 1918년에 지어져 1928년 완공되었고 건물 높게 지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고급 건축자재인 백두산 잣나무로 건물을 지어 그 시절 부흥했던 강화를 느낄 수 있다.



김구 선생이 묵었던 이 고택의 바깥채에서는 구한말 ‘유림상회’라는 이름으로 질 좋은 소창을 판매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강화에서 결혼식을 올린 젊은 청년 부부가 이 고택의 바깥채에서 서점과 그릇 가게를 운영하게 된다.



100여 년 된 한옥을 수리하여 새로운 가게를 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젊은 청년 부부의 강화에 대한 애정과 선한 열정을 보니 감히 이 고택의 바깥채 주인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진다.



남편이 운영하는 소금빛서점은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요양 봉사를 병행하고 있는 터라, 소금빛서점은 무인서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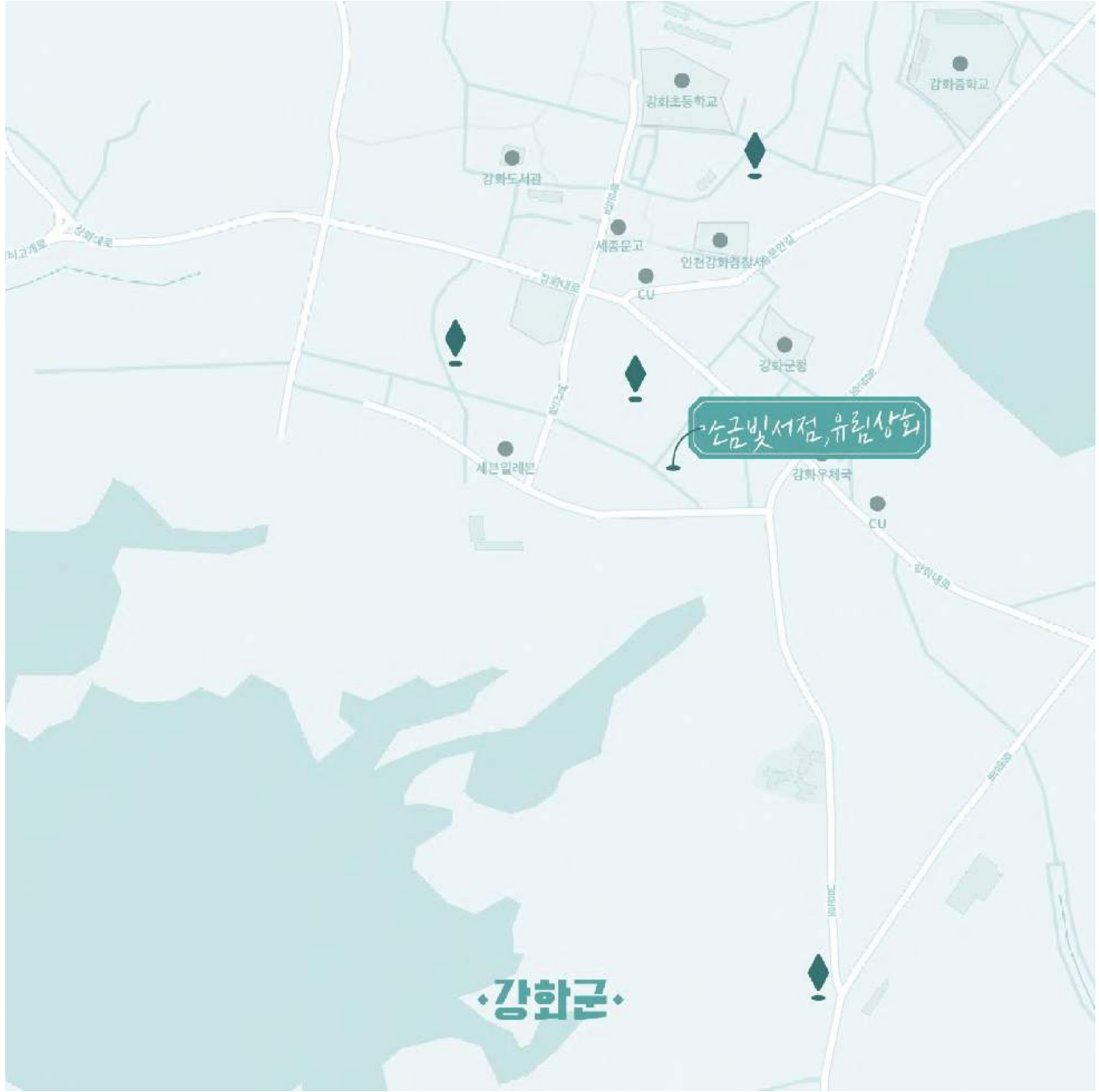
서점이 없었으면 그릇 가게도 없었을 거라는 애정이 담긴 말을 전하는 부인은 고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그 이름 그대로 유림상회라는 그릇 가게를 시작했고, 그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릇과 함께 소량의 소창도 함께 팔고 있다. 5평 남짓한 이 그릇 가게는 폴란드에서 직접 수입해 온 파란빛이 고운 그릇들, 체코에서 온 유리병, 백화점에서도 보기 힘든 프랑스산 그릇들이 준비되어있다.



그렇다 보니 한옥에서 유럽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든다. 또한, 네덜란드산 그릇인 ‘보텐반트’의 그릇이 곳곳에 놓여있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감각적으로 만드는 듯하다. 서울에서 벗어나 역사가 담겨있는 곳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싶다면 오늘은 이 고택으로 향해보자.



소금빛서점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 같은 서점이
되고 싶어 늘 조명은 꺼두지 않은 채 빛을 남겨 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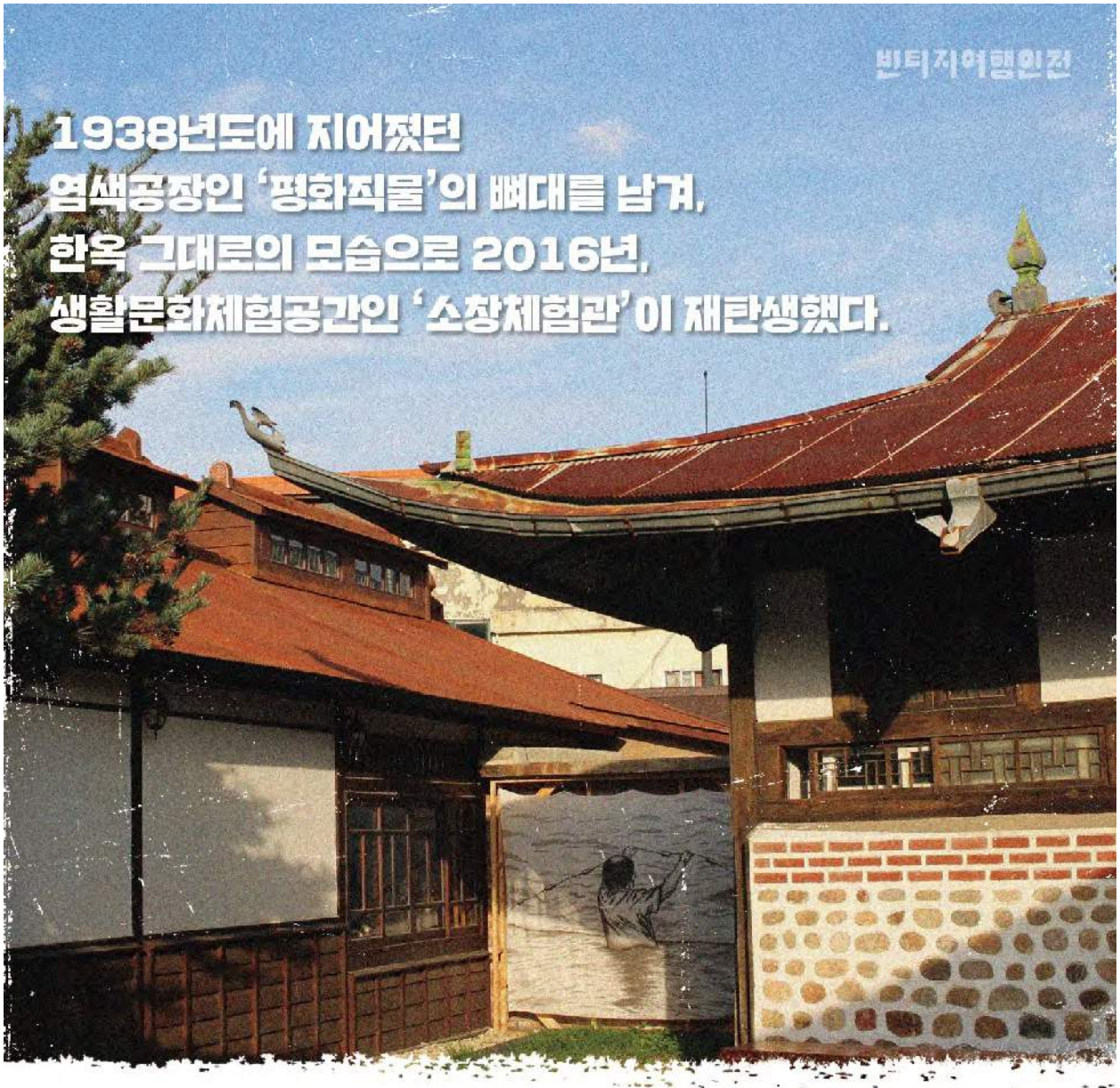
03. 소창체험관

SOCHANG EXPERIENCE CENTER

그 시절 강화의 빛 평화직물에서, 다양한 생활문화체험공간으로



1938년도에 지어졌던
염색공장인 '평화직물'의 뼈대를 남겨,
한옥 그대로의 모습으로 2016년,
생활문화체험공간인 '소창체험관'이 재탄생했다.





강화도는 1916년 강화직물조합이 설립되면서 직물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일했던 직공이 천 명이 넘고 그 시절에 전기도 들어왔다고 하니 얼마나 발달했을지 어렵פות이 상상이 간다.



왕성하게 발달했던 강화를 방증하듯 지금까지도 길거리에서 아주 오래된 여인숙과 목욕탕을 만날 수 있다.



30여 년 전 아기들의 기저귀감으로 쓰였던 ‘소창’, 최근에는 여성 생리대로써의 높은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역 각지에서 의식 있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단다.



그 외에도 현재 소창체험관에서는 소창을 활용한 스탬프 찍기와 식탁 매트, 손수건, 쿠션 커버 등 소창을 활용한 '스탬프 소창 손수건 체험', '화문석, 왕골 제작 체험', '직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강화의 역사를 느끼며 간직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지역의 전통을 살리고 이어가고자, 제조한 소창을 활용한 <23수 북소리 전>이 전시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소창의 흔적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작품과 인천의 젊은 작가 5인이 소창 위에서 그려낸 작품을 보니 그때의 소창처럼 지금의 소창도 강화에 빛을 가져다 주는 듯 보인다. 소창으로 빛나는 문화를 만드는 강화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오늘 '소창체험관'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면 생리대로써 소창만 한 직물이 없다고 하니,
건강한 여성문화를 꿈꾼다면 실천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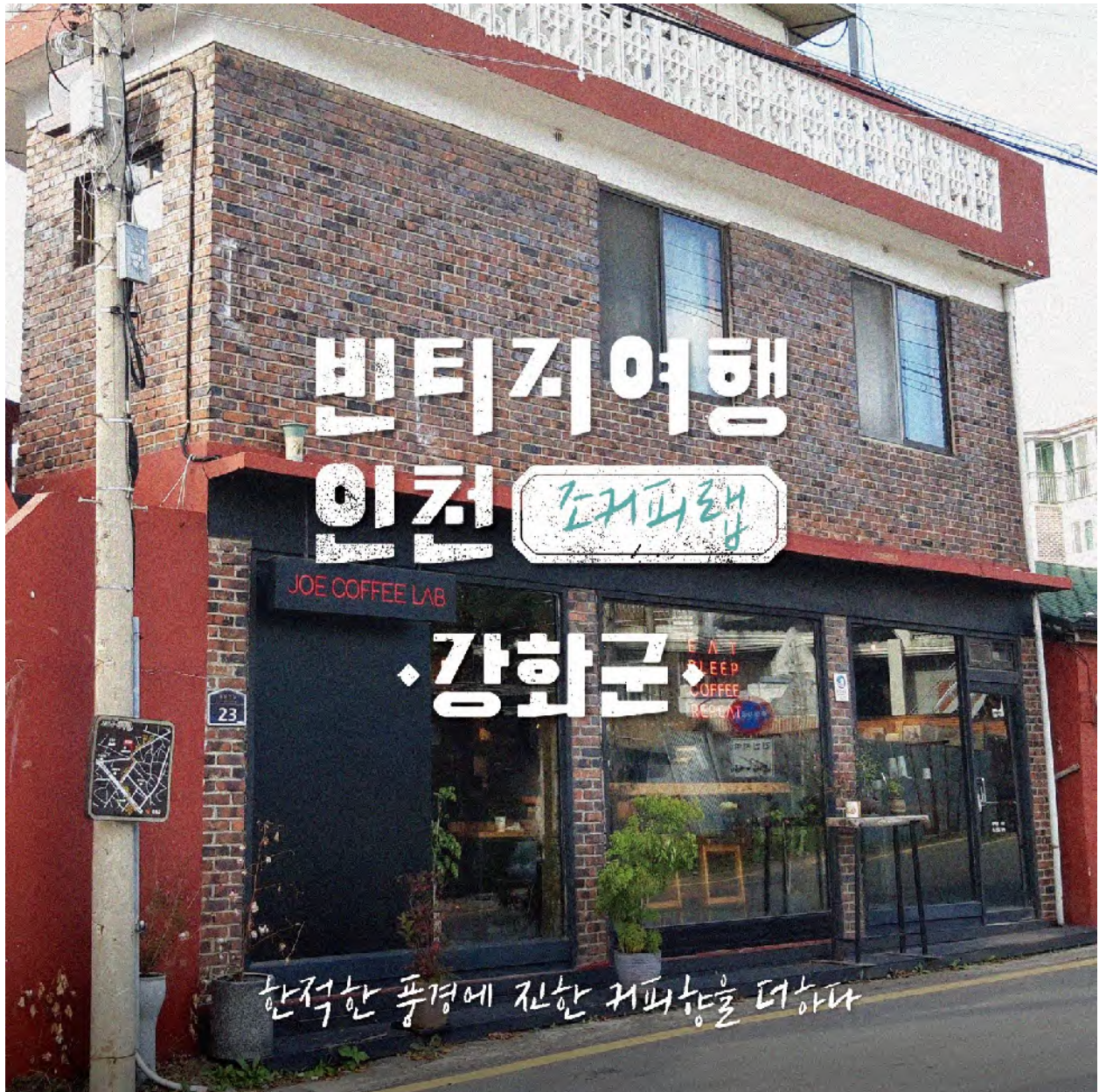




04. 조커피랩

JOH COFFEE LAB

한적한 풍경에, 진한 커피향을 더하다



흔치 않은 건물 모양 덕분에
작지만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이 만들어진 셈.
한적한 강화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창가 자리는 언제나 단연 인기다.





강화의 분위기 좋은 카페가 대부분 교외에 있는 것과 달리 조커피랩은 강화도 읍내에 있어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카페다. 작지만 세련된 인테리어와 신선하고 맛 좋은 커피 덕분에 강화읍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조커피랩의 주인장은 타지에서 공부했고,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고향인 강화에 자신의 카페를 열게 되었다고 한다. 시작은 혼자였지만 지금은 강화에 사는 지인 두 명과 함께 팀을 이뤄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수선가게와 개인 사무실로 쓰였던 1층의 두 공간을 하나로 합쳐서 카페로 만들었다.



빨간 벽돌에 흔치 않은 건물의 외관 때문에 이곳에 카페를 열게 됐다고. 무려 1988년에 세워진 오래된 건물이라 안팎으로 낡은 부분이 많았지만, 주인장은 오래된 건물의 묘한 매력에 이끌렸단다. 카페를 열기로 하고 두 달간 아버지와 함께 카페 내부를 정비했다. 카페 내부에는 두 개였던 공간의 벽을 터서 만든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흰색으로 칠해져 있던 벽을 갈아내 원색을 드러냈고, 내부에도 빨간 벽돌을 가져와, 바 테이블을 만들었다. 건물 자체가 기울어진 삼각형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는 점이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흔치 않은 건물 모양 덕분에 작지만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이 만들어진 셈.



세모난 공간에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가운데 긴 바 테이블을 놓았고, 한편에는 창가를 바라보는 테이블을 두었다. 한적한 강화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창가 자리는 언제나 단연 인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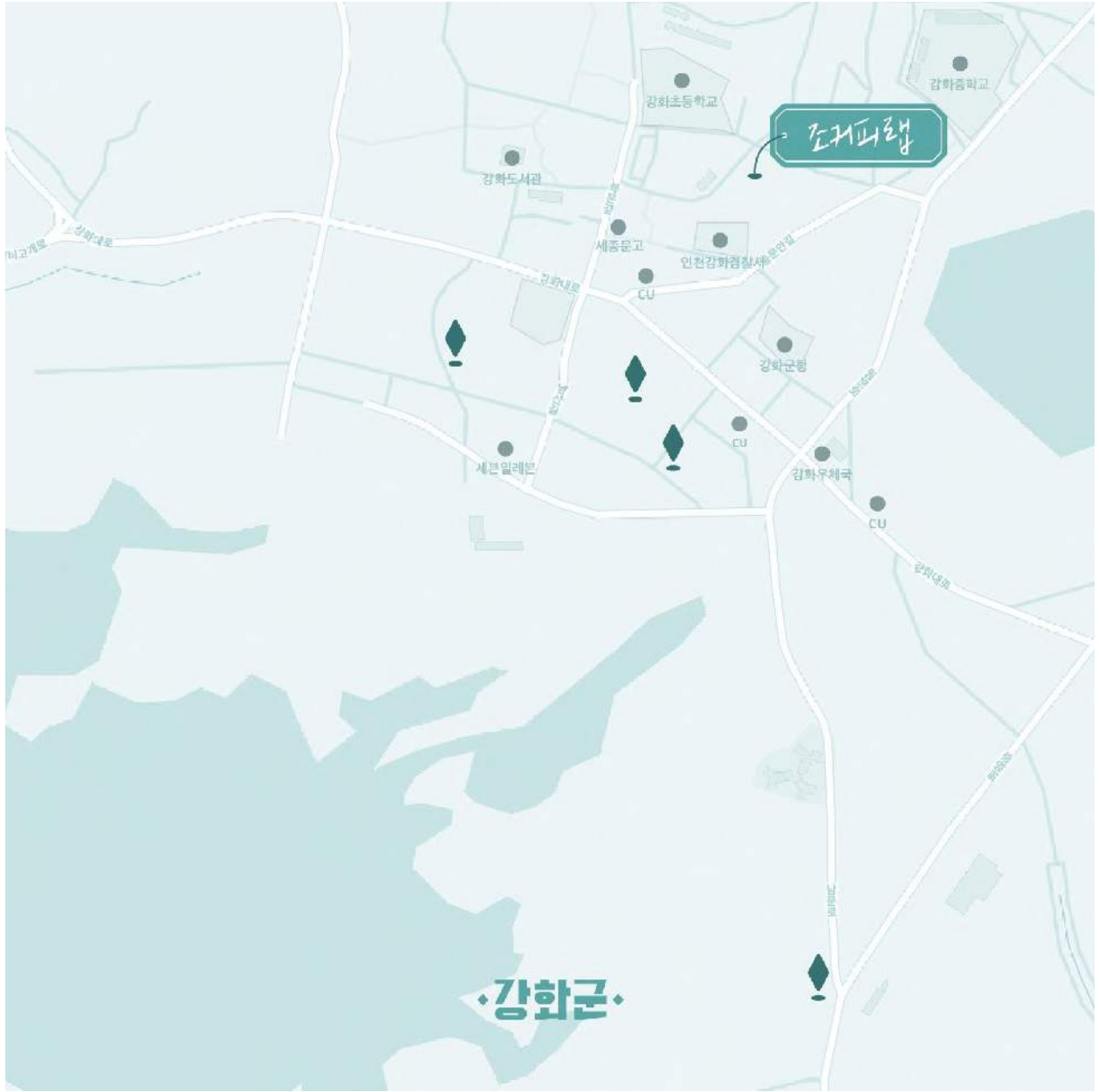
주변 단골손님들의 편안한 만남의 장소이자, 주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조커피랩. 이곳에서는 커피랩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이곳의 대표메뉴는 커피 위에 크림을 올린 아인슈페너. 손님들이 각자의 취향대로 마실 수 있도록 라떼, 아메리카노, 콜드브루를 베이스로 하는 3가지의 아인슈페너를 판매하고 있다.

커피 외에도 제철 과일을 사용해 음료를 만들어 내놓고 있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더 기대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일상에서 언제나 커피가 있고, 커피를 즐기기 위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카페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화도의 한적한 동네에서 신선한 커피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조커피랩을 찾아가 보자!



조커피랩의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용흥궁과
쫄면으로 유명한 정통분식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05. 카페 남문로7

CAFE NAMMUNRO7

소창 가내공장에서, 향긋한 한옥 전통찻집으로



늘 가게의 문을 열 때마다
항상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찻집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주인장의 애정어린 마음이
공간 안에 오롯이 담겨있다.





강화 남문을 지나면 매력적인 공간들이 여럿 있는데, 그 공간들이 하나둘씩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페 남문로7 덕분이었다. 향긋한 대추차 향이 퍼져오는 곳을 따라 가보니, 손글씨로 카페 남문로7이라 적힌 어느 작은 한옥 앞이다.



강화에서 20여 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주부로 살며, 절에서 취미로 다도와 명상을 즐겼다는 주인장은 자신만의 공간인 전통 찻집을 꿈꾸었다고. 소창가내 공장이었던 이 한옥을 알게 된 뒤 그 꿈을 더 명확하게 그리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 늘 가게의 문을 열 때마다 항상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찻집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주인장의 애정이 어린 진심이 카페 공간에 오롯이 담겨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1층의 방과 2층 공간은 한옥의 형태를 찬찬히 둘러보며 혼자서도 편히 쉬어 갈 수 있다.



카페 남문로7의 대표메뉴는 바로 대추차다. 주인장의 친척으로부터 최상품의 대추를 받아, 이를 정도 시간을 들여 푹 달여낸 후에야 손님상에 내놓는다. 함께 나오는 가래떡에 조청을 찍어 한입 베어 무니 달달한 대추차의 맛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어 어린아이들도 즐겨 마실 정도라고. 또 다른 대표메뉴인 쌍화차는 ‘쌍화차의 거리’라 불리는 정읍에서 재료를 순수 구하여 사흘간 달이고 달인 덕에 그 향이 깊고 진해, 마치 보약과도 같다. 대추차와 쌍화차를 담은 그릇은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마을 사기막골에서 구해온 그릇이라고.



또한 공간도 직접 꾸몄다는 주인장의 솜씨는 한옥 공간 곳곳에 걸려있는 수제 손수건에서도 느낄 수 있다.



20여 년 동안 꾸었던 주부의 꿈을 이루어준 한옥 전통찻집에서 향긋한 건강의 내
음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 카페 남문로7로 향해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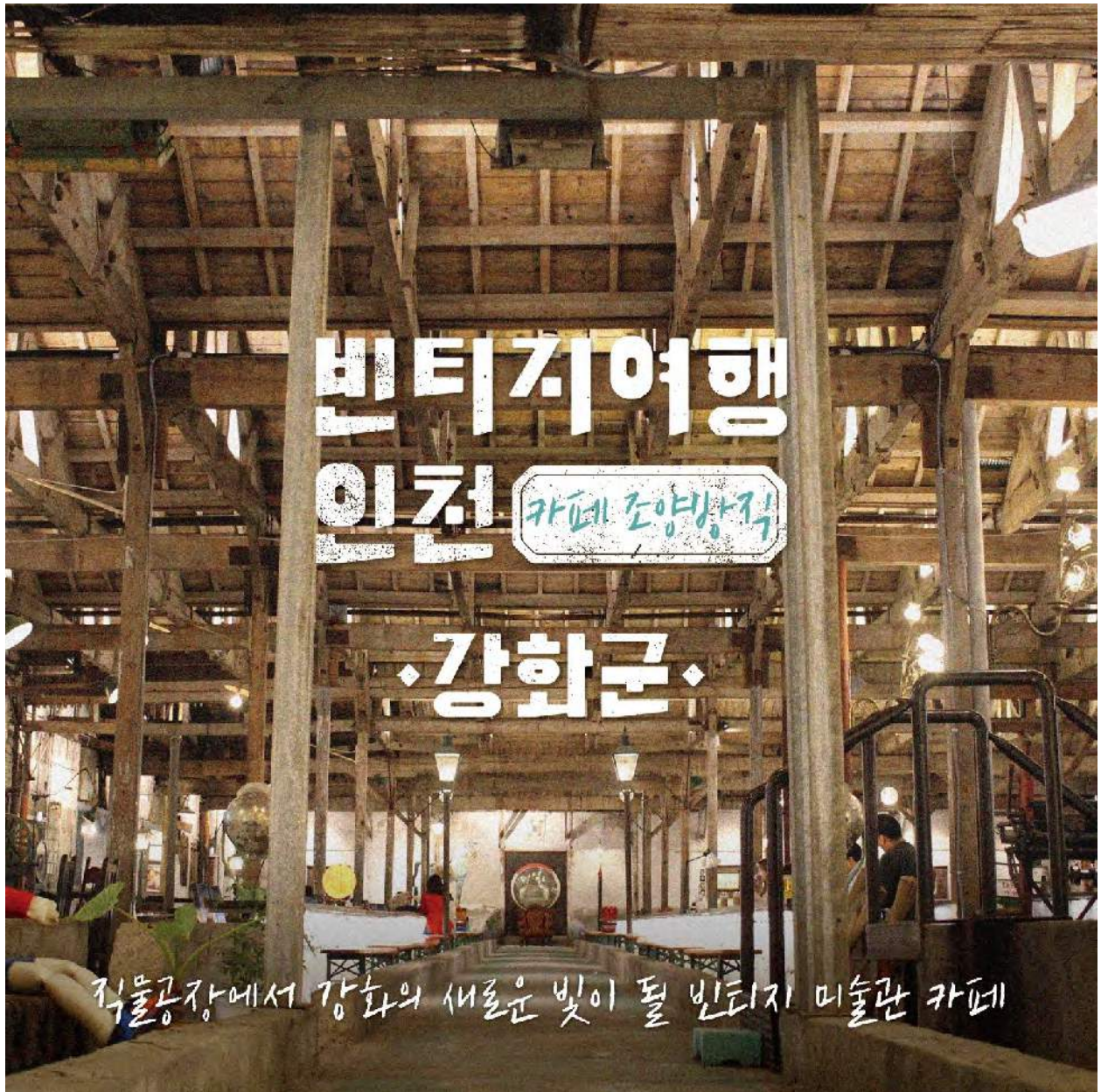


유림상회에서 그릇을 구경하고
소금빛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서,
바로 옆 카페 남문로7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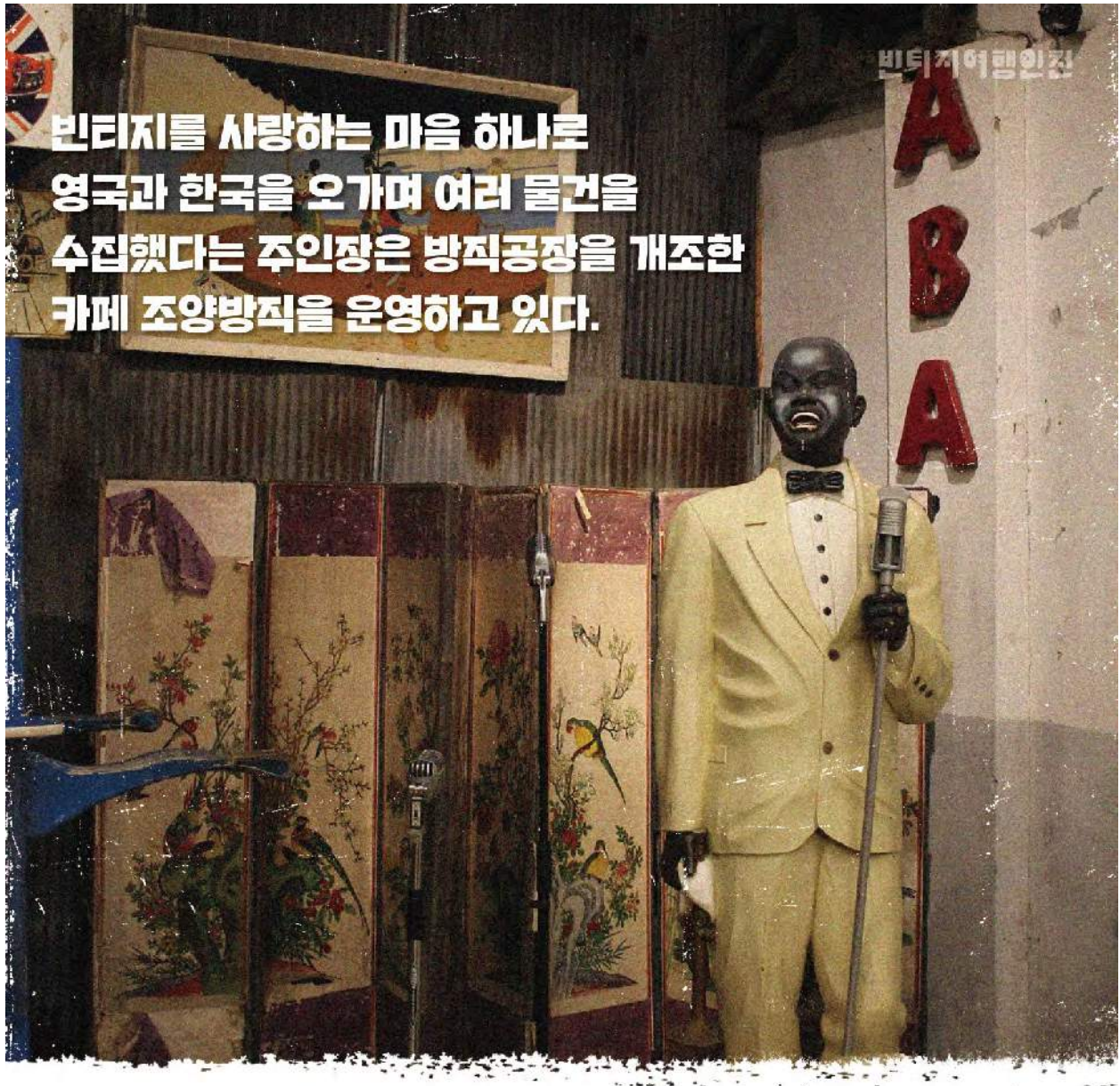
06. 카페 조양방직

CAFE JOYANGBANGJIC

직물공장에서, 강화의 새로운 빛이 될 빈티지 미술관 카페



직물공장에서 강화의 새로운 빛이 될 빈티지 미술관 카페



**빈티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물건을
수집했다는 주인장은 방직공장을 개조한
카페 조양방직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 공장지대에서 남문로를 따라가다 보면 유럽으로 순간이동을 한 듯, 빈티지 앤틱샵 '상신상회'를 만날 수 있다. 빈티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물건을 수집했다는 주인장은, 방직공장을 개조하여 강화 최대 규모의 카페인 카페 조양방직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조양방직이 70년대 문을 닫고 단무지, 젓갈 공장이 들어섰지만, 80년대 이후로는 그마저도 멈춰, 등나무가 공간을 둘러쌀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물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진화하는 것이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카페 조양방직의 운영진 부부. 오랫동안 꿈꿔온 공간을 발견하게 됐고, 지금은 소명감을 갖고 카페 조양방직을 가꿔가고 있다고.



카페 조양방직은 부식에 약한 소나무가 아닌 일본 목욕탕에 쓰이던 삼나무를 사용해 한옥과 일본식 가옥의 장점만 모여있다. 그 덕에 지금까지도 건물이 튼튼하다고.



한편, 카페 조양방직의 대표메뉴는 당근 치즈케이크다. 흥대에 본점을 둔 레이니스케익을 들여오고 있다. 한입 물면 입안 가득 당근 맛이 돌고 당근 쉬폰 위에 얹혀있는 크림치즈의 맛은 산미가 적당하여 깔끔하다. 게다가 그 위에 올려진 아몬드가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더해준다. 건강한 맛의 케이크와 찰떡궁합인 카라멜 마끼아또에 올라간 거품은 부드러움 그지없다.



유럽의 빈티지뿐 아니라, 한국의 빈티지도 사랑한다는 주인장은 강화에서 사용되던 트랙터를 전시해 두었다. 그 덕분에 마치 박물관에 온 기분이 들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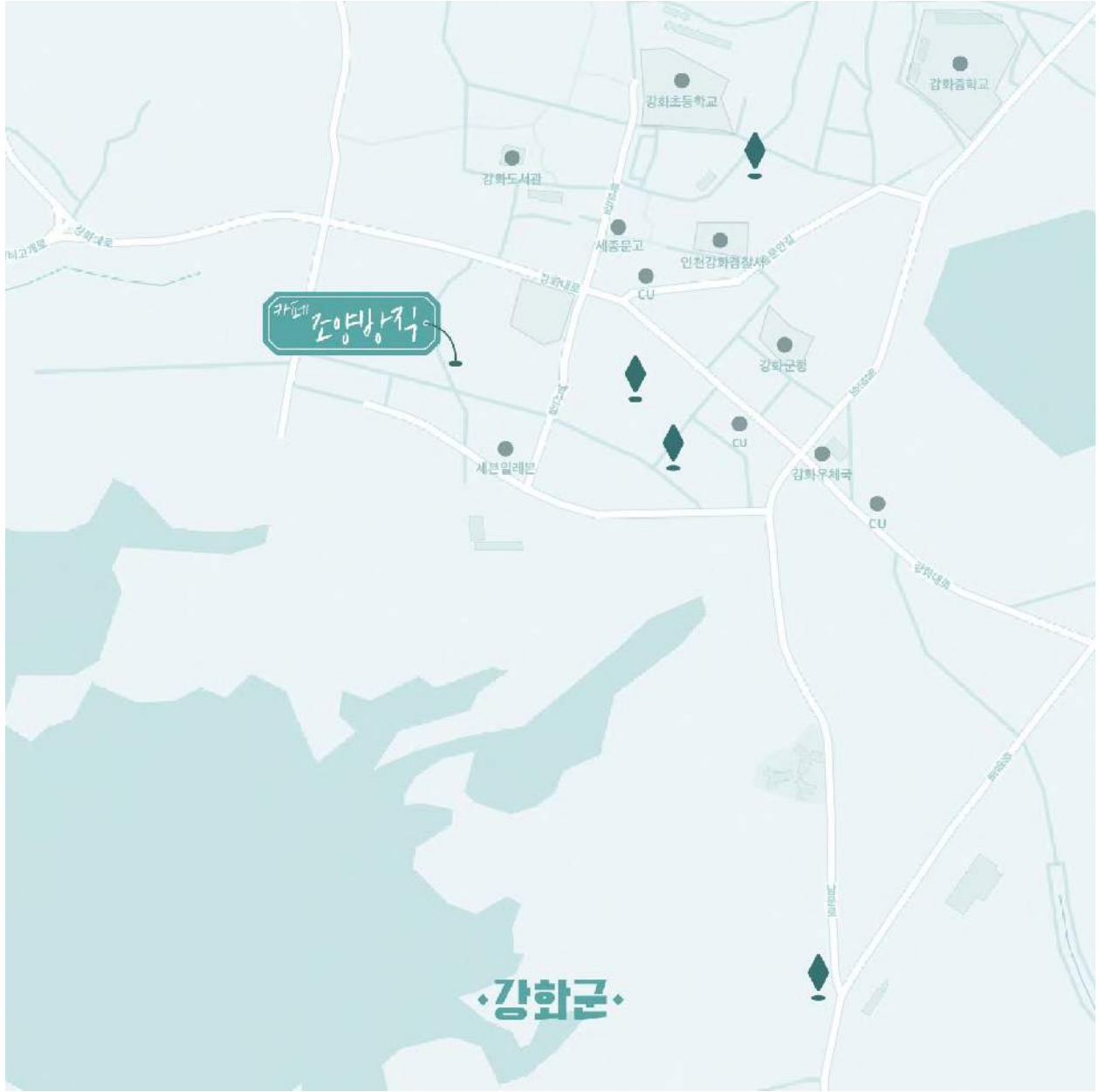


중심에는 아주 크고 넓은 길이 있어 패션쇼의 런웨이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페의 기능을 넘어서 패션쇼나 결혼식, 신차 발표회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꿈꾼다고. 이렇게, 과거 직물공장에서 직물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지금은 카페와 미술관이라는 공간으로 문화를 만들어 내는 카페 조양방직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주인장의 애정이 담긴 공간인 만큼,
방문하신다면 물건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DSLR 촬영은 불가하다고 해요.
또한 미술관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07. 신진말

SINJINMAL

공장지대에서, 복합문화지대로



먹거리, 놀거리, 실거리를
한 곳에서 즐기고 싶다면 오늘의 목적지는
단연코 신진말 복합문화지대다





공장이 즐비한 서구 가좌동에는 400여 년 전부터 청송 심씨 일가가 살아왔다. 물론 지금도 심씨 일가 고택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집안 대대로 인천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던 심씨 일가. 후손인 심 대표는 이윽고 공장만 가득한 동네라는 인식을 바꾸고자 고깃집인 신진말을 시작한다. 제주 흑돼지를 고집해 인천 주민도 양질의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갈색빛이 도는 오겹살은 쫄깃하고 부드러워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두 만족할 맛이였다. 그렇다 보니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즐겨 찾는다고. 양파절임, 상추절임과 함께하니 풍미가 가득하고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고기 한 점 올렸더니 든든하다.



야외 건물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열고 있어 이 공간은 가히 인천시민들에게 고깃집 이상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문화복합지대를 꿈꾸며 건축가를 초빙, 책을 연상시키는 직사각형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이 공간은 빈브라더스 인천의 자리가 된다. 최고의 원두를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가치관이 서로 잘 맞았다고.



빈브라더스에서는 바리스타로부터 나의 취향과 입맛을 고려한 원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빈브라더스는 단 한 잔이라도 고객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심 대표는 커피에 그치지 않고, 색다른 콘텐츠를 찾게 된다. 바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미국식 훈연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파운드 바비큐다.



파운드 바베큐의 송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게 된 것을 계기로, 미국 문화를 깊게 좋아했고 그 애정이 미국 음식까지 이어졌단다. 십여 년 동안 미국식 요식업계에서 일한 덕에 그가 만든 바비큐에는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외국인들도 찾아와 ‘고향의 맛’을 느끼고 갈 정도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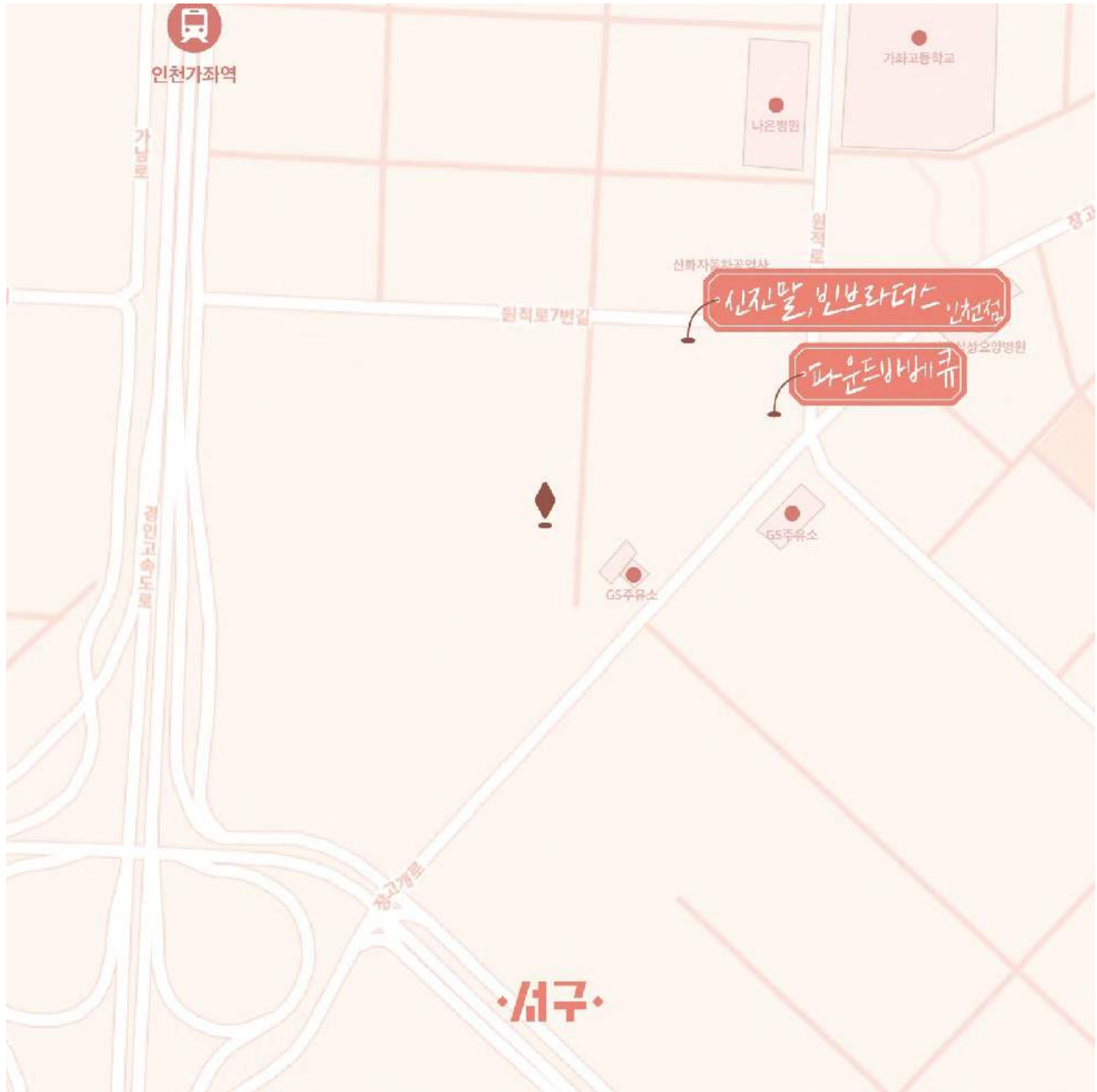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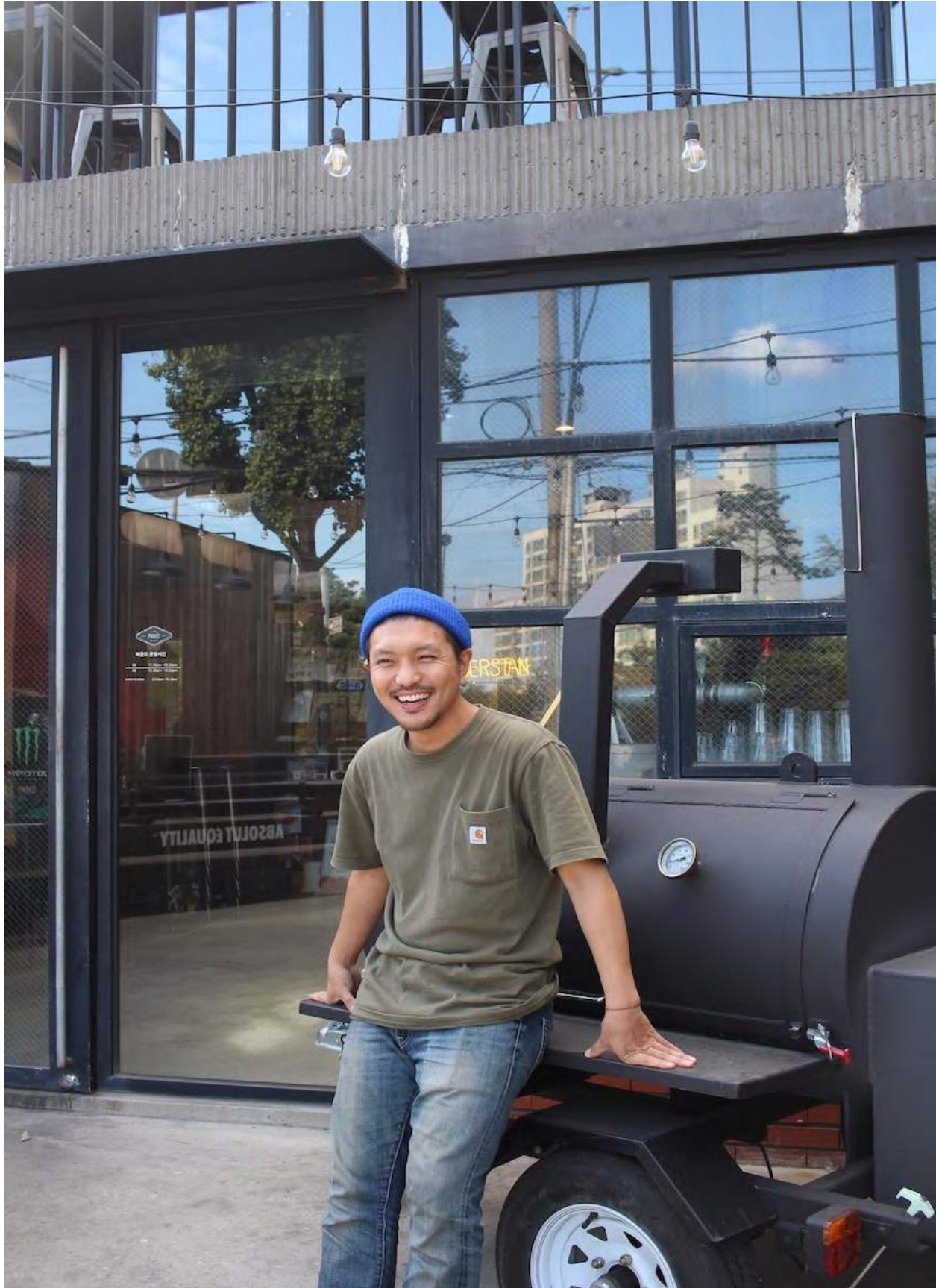
대표메뉴인 '더 파운드'는 14시간을 공들여 굽는다. 훈연 바비큐의 향이 코끝을 기분 좋게 메우며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때 즘음 맥앤치즈가 훈연의 향을 부드럽게 만들고, 코울슬로는 상큼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맡는다. 창밖으로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까지 들리니 이보다 더 환상적인 만남이 있을까.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를 한 곳에서 즐기고 싶다면 오늘의 목적지는 단연 코 신진말 복합문화지대다.



점심으로 친구와 파운드 바베큐에서 '더 파운드'를 먹고,
후식으로는 빈브라더스 인천에서 '나만의 커피'를 마시고,
저녁으로 가족들과 함께 신진말에서 '제주 흑돼지'를 먹는

<신진말 코스>를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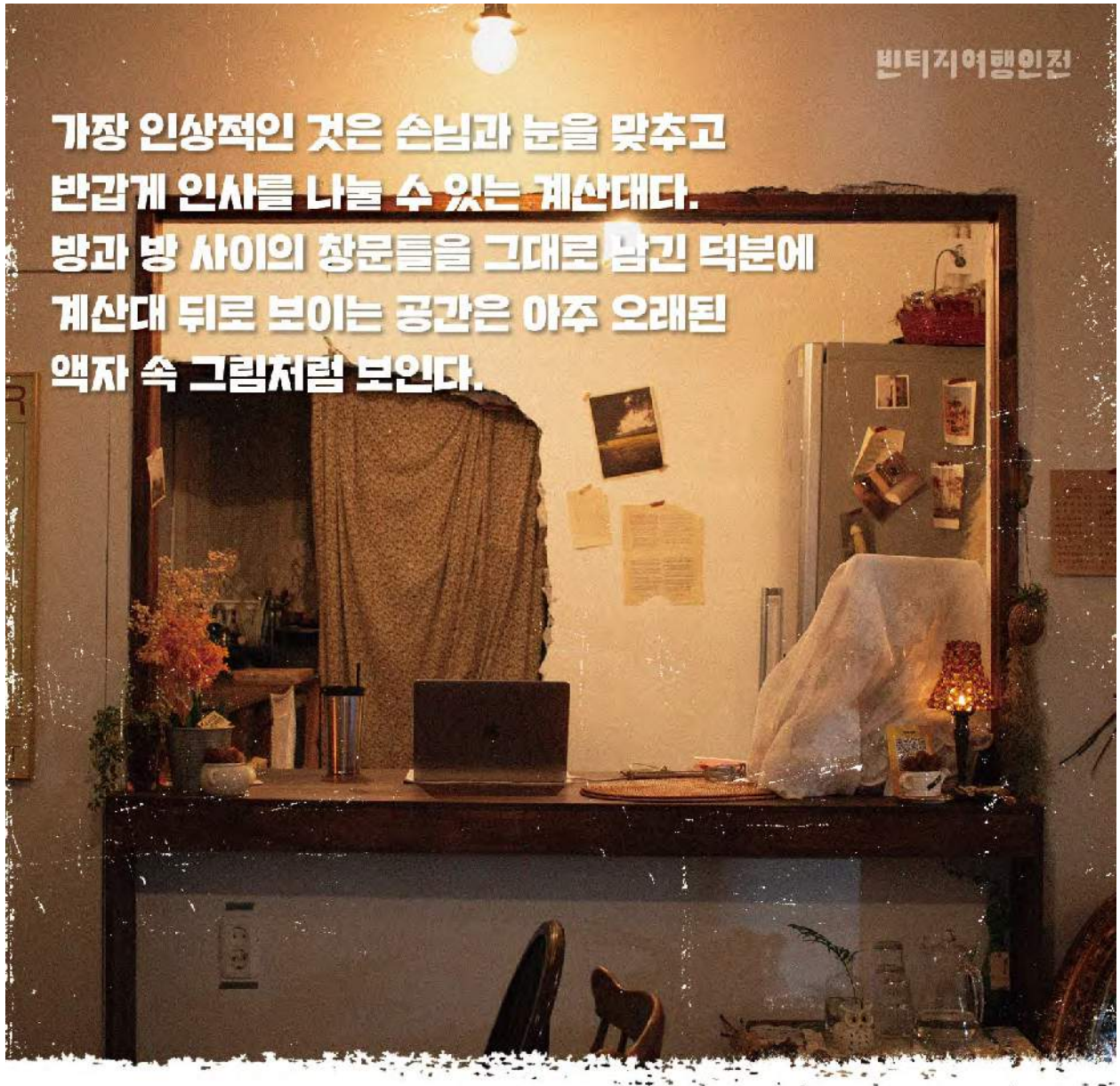
08. 아늑커피

ANEUK COFFEE

목공소 옛 모습 그대로, 나만의 액자 속 카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손님과 눈을 맞추고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계산대다.
방과 방 사이의 창문틀을 그대로 삼긴 덕분에
계산대 뒤로 보이는 공간은 아주 오래된
액자 속 그림처럼 보인다.





회색빛의 기찻길을 따라 사람 냄새 가득한 빌라 몇 채를 지나 코너를 돌았더니, 새하얀 건물이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반겨주었다. 결이 느껴지는 새하얀 커튼이 투명하고 큰 창을 감싸 안고 있는 카페. 아늑커피가 있던 자리에는 원래 인우목형이라는 목형소가 있었다.



주인장이 카페를 만들기 전 운명처럼 발견한 예스러운 이 공간. 인위적으로 만든 오래됨이 아닌 진짜 시간이 쌓인 공간에서 그 시간을 간직한 채 운영하고 싶었다고. 그 덕분인지 이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옛 모습을 완전히 허물지 않아, 지금도 곳곳에서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손님과 눈을 맞추고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계산대다. 방과 방 사이의 창문들을 그대로 남겼다. 그 틀 덕분에 계산대 뒤로 보이는 공간은 아주 오래된 액자 속 그림처럼 보인다.



목형소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나무의자와 테이블은 그 자체로도 멋스럽지만, 위에 놓인 촛대와 거울들이 함께 놓이니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마저 든다. 테이블의 간격이 널찍해,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그라인더 소리는 오래된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재즈 음악 사이로 공기를 촘촘히 메운다.



아늑한 이 공간에 함께 녹아들었을 무렵, 테이블 앞에 놓인 '앙절미 미숫가루'. 앙절미 미숫가루는 주인장의 건강에 대한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 메뉴이자 이곳의 대표 메뉴다. 고소한 미숫가루 위에 앙금이 든 인절미, '앙절미'가 올라가 있어,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시면 달달하고, 위에 올라간 앙절미를 한입 베어 물면 쫄득한 식감에 이내 든든하고 행복해진다. 떡까지 올라가 있어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도 안성맞춤이랄까. 식물성 기름과 설탕을 줄여 만든 크림과 아메리카노가 만난 '아인슈페너'의 크림은 여느 크림보다 건강한 맛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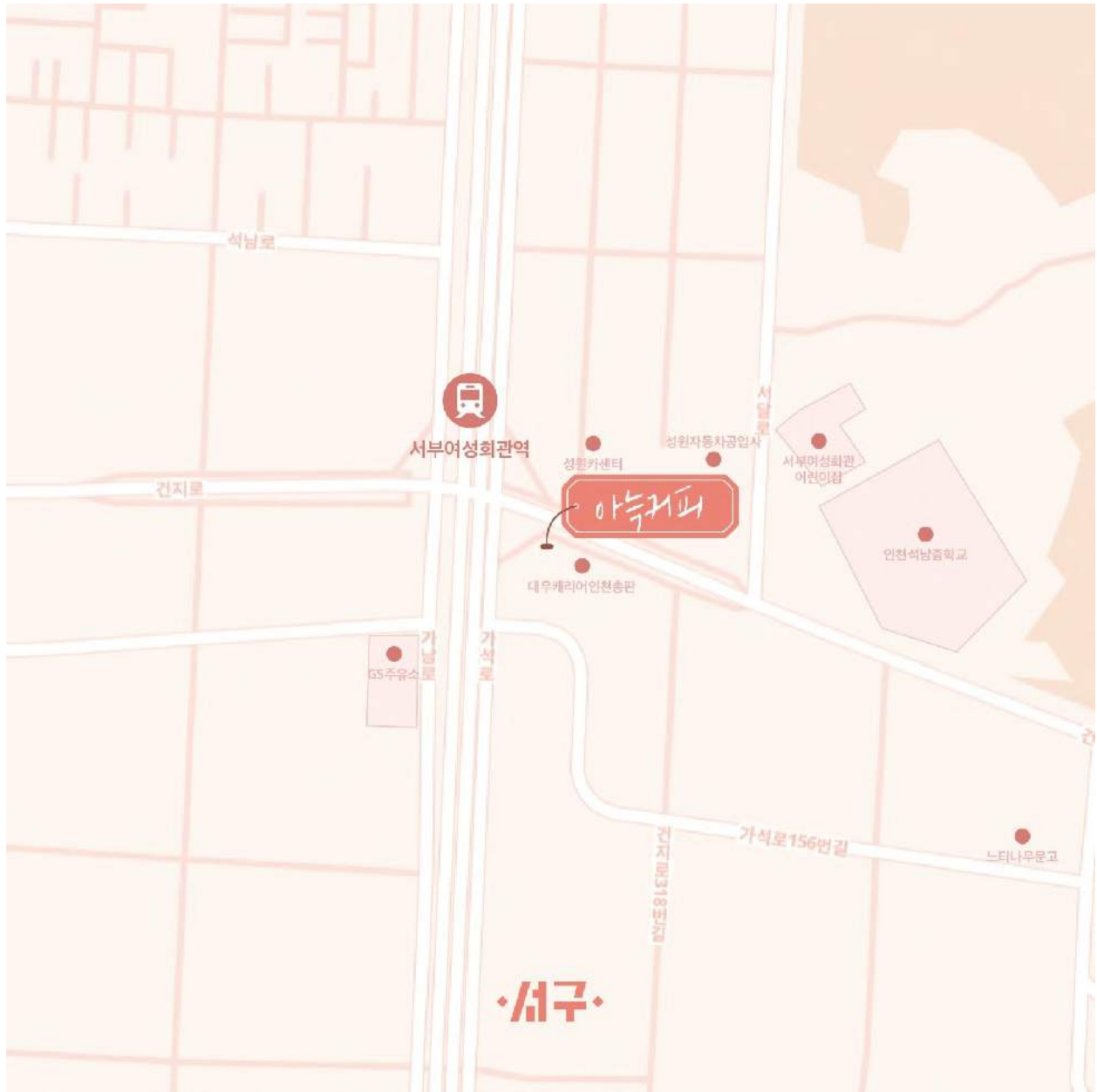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공간에 쌓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은 아늑커피로
향해보는 게 어떨까.



아늑커피는 복합문화공간을 꿈꿉니다.

이 공간을 더 다채롭게 채워줄 전시나 공연 프로그램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하니, 혹시 관심이 있다면 아늑한 카페에서
당신의 영감을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09. 코스모40

COSMO 40

환영받지 못하던 공장에서, 환영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간의 맥락을 지키며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를 원했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건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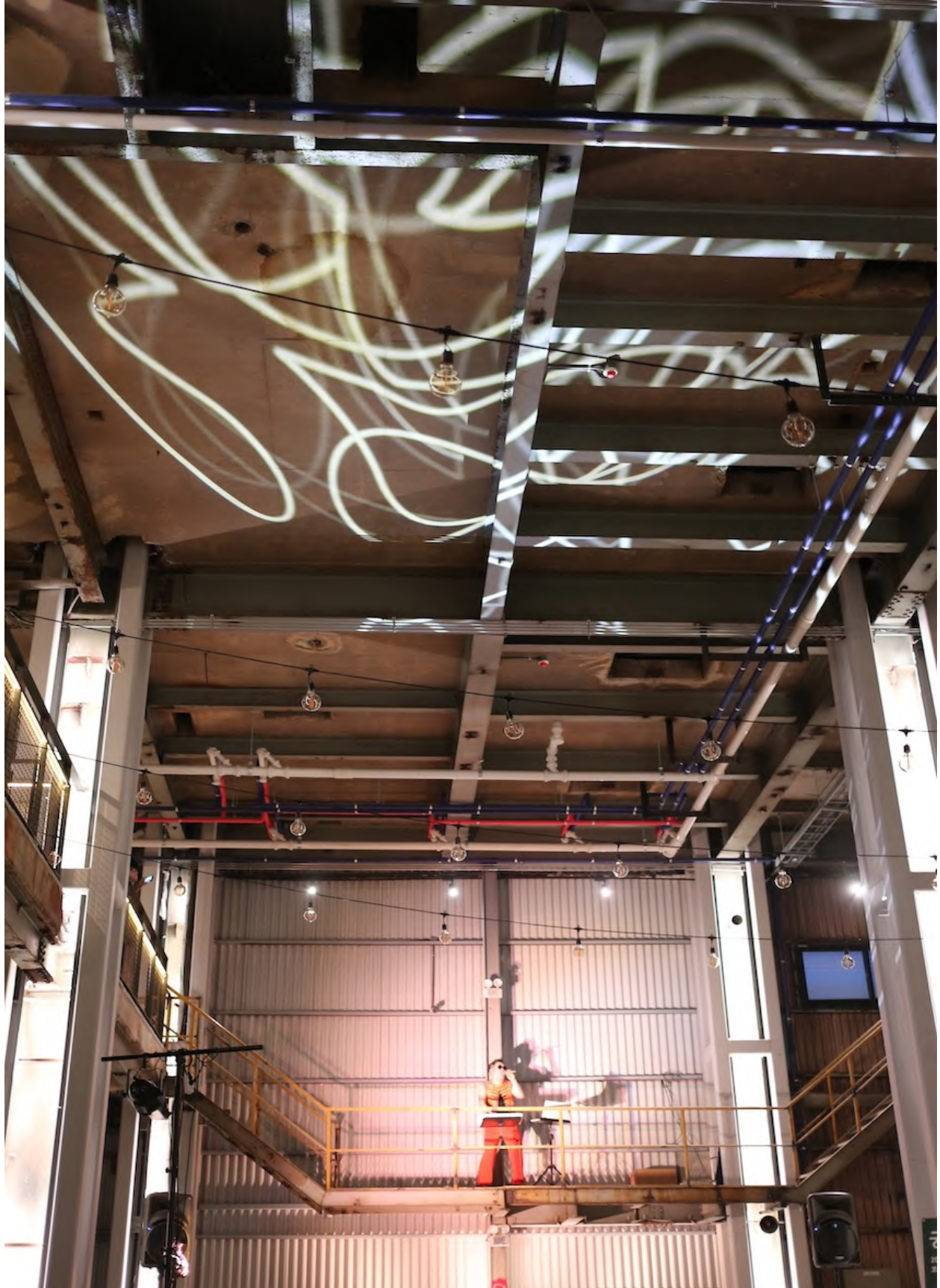
1970년대 서구 가좌동에는 코스모화학 공장이 있었다. 우주선이나 전투기부터 페인트, 타이어, 공구, 신발, 제지, 선크림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대기,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항상 지역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 2016년 코스모화학이 울산으로 이전하면서 2만 평이 넘는 대단지에 자리 잡았던 공장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용도의 새로운 공장들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주변 건물 역시 함께 수명을 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공간의 맥락을 지키며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를 원했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건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18년 한글날, 인천 최대 크리에이티브 마켓 <웨스트그루브>가 코스모 40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인천을 거점으로 삼는 매력적인 로컬 브랜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한곳에 모였다.



우뚱선 굴뚝을 보며 따라 들어간 공장지대에서 공연을 보며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또, 스케이드보드를 타는 어른들,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 아이의 손을 잡은 아빠, 남녀노소할 것 없이 자신의 고장 인천에서 큰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며 모두가 밝은 미소를 보였다.



조경에 특히나 신경 썼다는 코스모40은 공장의 옛 모습을 그대로 남겨 놓고 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회색빛의 구조물과 초록빛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니 그 자체가 가히 예술이었다.



크레인 또한 그대로 남겨두어 40여 년 동안 이곳이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공간에 쌓인 세월의 흔적 그리고 앞으로 그 공간에 문화예술로 쌓아나갈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코스모40으로 향해보자.



서울에 대림창고가 있다면 인천에는 코스모40이.
앞으로도 전시, 마켓,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공간을 채울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 느슨

NEUSN

바쁜 일상 속 달콤한 휴식이 되어주는 공간



**느슨이라는 이름처럼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공간에 담겨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느슨은 식사부터 커피, 와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공간이다. 낮에는 카페, 저녁에는 와인펍으로 운영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와인을 즐길 수 있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느슨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다. 지어진 지 20년이나 된 오래된 주택이었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관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다고. 그런 공간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멋지게 꾸미고자 노력한 흔적을 느슨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초록색 벽과 독특한 조명들이 눈에 띈다. 문 옆으로는 클래식한 분위기의 바(bar)가 자리하고 있다. 원래 1층은 거실과 방이 있던 공간인데 홀로 만들기 위해 벽을 트고, 입구 옆에 있던 방을 개조해 바(bar)로 만들었다. 전에 사용되던 계단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2층으로 올라가니 1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간이 반긴다. 2층은 이 공간이 원래 가진 벽돌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서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붉은 커튼과 식물의 조화 또한 멋스럽다.



느슨에서 자신 있게 선보이는 인기 메뉴는 바로 수플레케이크와 부르스케타, 그리고 샐러드 피자다. 손수 만드는 수플레케이크는 폭신한 팬케이크에 생크림이 올라가 있어 눈으로 먼저 즐기고, 부드러운 맛을 음미해가며 입으로 또 한 번 즐길 수 있다. 부르스케타는 바삭하게 구운 빵에 아보카도, 새우, 토마토 등을 얹어 만든 요리로, 한입에 먹기 편하면서도 와인과 잘 어울리는 안주다. 그런가 하면 느슨 표 샐러드 피자는 얇은 반죽에 상큼한 샐러드와 치즈가 올라가 있어 달달한 맛이

입안을 즐겁게 한다.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플레이팅 또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한다. 느슨의 또 한 가지 묘미는 와인에 있다. 글라스 와인에는 ‘네가 예뻐 보일 때’,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때’ 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와인에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젊은 손님들도 쉽게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인장은 손님들이 느슨이라는 이름처럼 이 공간에서만큼은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바쁜 일상 속 작은 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느슨을 방문해보자



느슨에는 저녁에만 생기는 포토존이 있다.

입구 쪽 흰 벽을 주시하자. 프로젝터로 예쁜 사진들을
띄워놓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예쁜 사진을 남기길 권한다.



11. 이당비스트로

YIDANG BISTRO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특별한 순간



식당 이름은 위화감을 주는 영어 대신
한옥에 어울리도록,
우리말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뜻하는
'이당'이라고 지었다.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한 이당비스트로는 한옥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양식이다. 요즘은 좀처럼 오래된 한옥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당비스트로는 6·25전쟁 이후에 지어진 한옥이라니, 무려 60년도 더 된 한옥이다. 이곳은 10년 전까지 한식집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주인장은 당시에 이 한옥을 보기 위해서 한식집에 방문하던 단골손님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는 영업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공간을 다시 살려보고 싶었다.



이를 계기로 3개월이 넘도록 이 낯은 한옥을 단정하게 다듬고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열었다. 식당 이름은 위화감을 주는 영어 대신 한옥에 어울리도록, 우리말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뜻하는 ‘이당’이라고 지었다.



이당비스트로의 입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중앙에 큰 화단이 보인다. 주변은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잠시나마 도심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기도. 게다가 시골에서만 보던 우물과 낮은 담장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낡고 폐쇄적이었던 한옥을 레스토랑에 맞게 개방감을 주어 정비하고 내부도 ㅁ자 구조의 전통 한옥 구조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입구 옆의 사랑채는 단독공간으로, 나뉜 방은 공용 식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당비스트로의 메인 홀과 모든 방에는 한옥의 서까래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시선을 어디에 두어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테이크, 피자나 파스타를 맛볼 수 있는데 전통 한옥에서 자연을 느끼며 맛보는 양식은 역시 특별하다.



최근에는 스몰웨딩 장소로 꼽히기도 하고, 상견례나 기념일을 맞아 찾아오는 손

님도 많다고 한다. 가을이 다 가버리기 전에 전통 한옥 이당비스트로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큐레이터 TIP*

김은진



비 오는 날의 한옥의 모습은 더욱 운치 있다.
일부러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비 오는 날에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12. 차담정

CHADAMJUNG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다과를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차담정은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만큼
차분하면서도 정겹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카페 차담정(茶啖停). 다과를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차담정은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만큼 차분하면서도 정겹다. 차담정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원 테이블이다. 주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인이 정성스레 내놓는 다과를 맛보며 일상의 여유를 누리기에도 좋다.



지난 5년간 서울에서 일하는 것에 지쳐, 고향인 인천에서 작지만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었다는 주인장. 케이크나 빵 종류의 디저트가 친숙한 요즘, 색다르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과를 선보이고 싶었다고. 자신이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던 중 만나게 된 건 냉동창고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었다.



작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주인장의 오랜 꿈이었던 ‘원 테이블 카페’를 운영하기엔 알맞은 크기였다. 당시엔 내부에 사다리가 설치되어있고 천장도 뚫려있어 카페 공간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두 달간의 긴 공사 기간을 거쳐 공간에 어울리는 바(bar) 모양의 원 테이블을 제작해 1층은 카페로, 2층은 작업공간으로 분리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주인장은 커피와 잘 어울리면서도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제철 과일과 곡식을 활용해 다과를 손수 만들고 있다. 여름에는 블루베리와 체리, 천도복숭아를 넣어 만든 모나카를, 가을에는 정성스레 말린 꽃감을 준비해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특히 ‘주악’은 찹쌀가루로 반죽해 튀겨낸 떡인데 인천에서는 오직 차담정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표메뉴다. 차담정의 주악은 조청과 꿀, 생강, 유자에 재워서 만들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고. 직접 맛보니 달콤하고 쫄득한 식감이 일품이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여유 그리고 계절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차담정으로
향해보자.



가게 앞에서 주인장의 반려견인 '아리'와
길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찹쌀떡과 수정과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방문해 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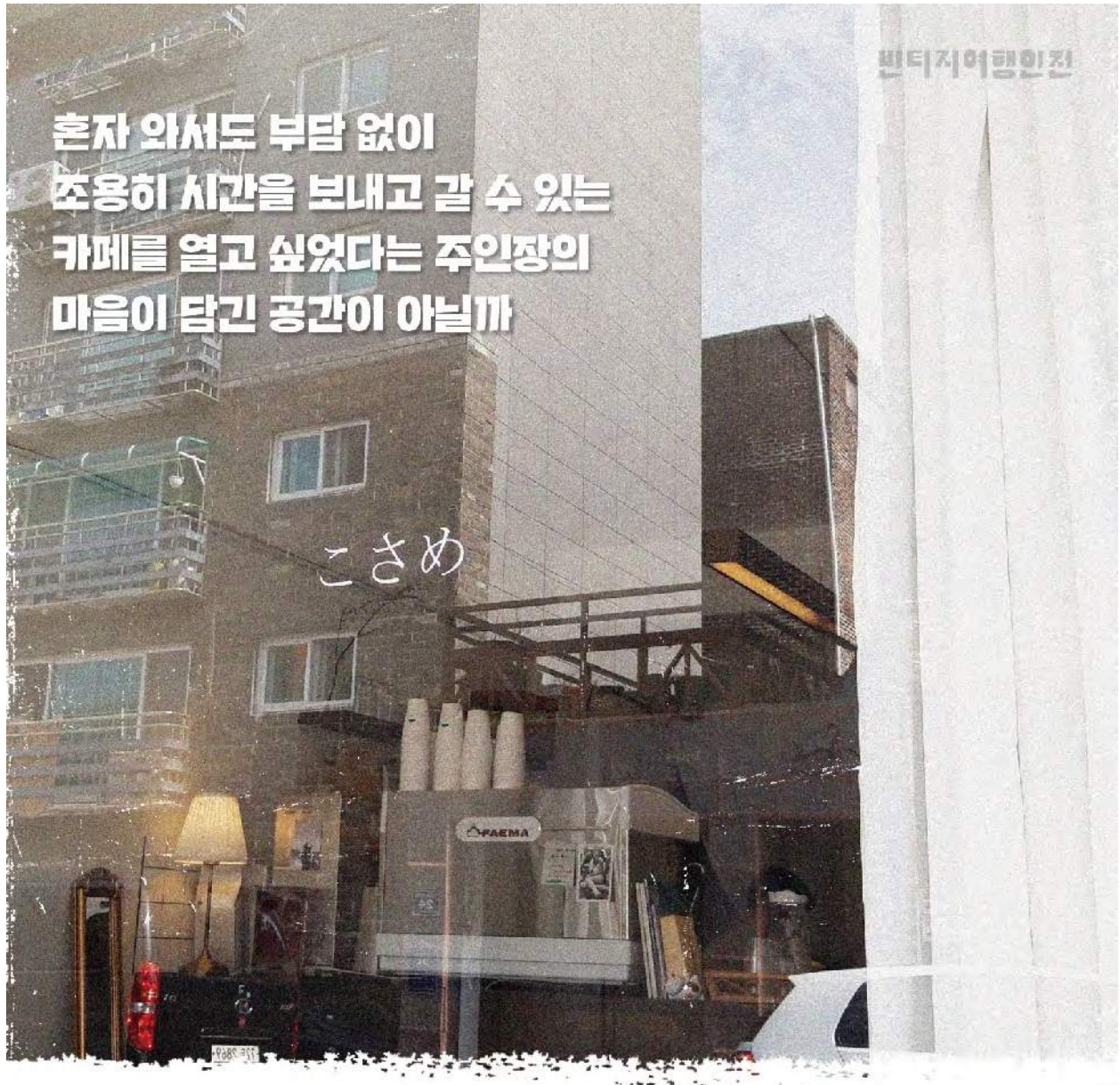


13. 카페 코사메

CAFÉ KOSAME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당신 곁에 스며드는 곳





혼자 와서도 부담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는
카페를 열고 싶었다는 주인장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 아닐까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 우측으로 한가한 주택가 골목을 지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의외의 장소가 있다. 바로 인주대로에 위치한 카페코사메다. 단정하게 정돈된 카페 외관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일본의 어느 카페에 있는 느낌이 든다.



카페코사메는 이전에 설비업체의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개조해 만들었다. 안쪽 공간은 옛 창고를 개조한 공간으로, 문만 떼어 내고 바닥에 나무를 깔아 카페 안에서 특히 독립된 공간의 느낌을 준다.



음료를 준비하는 바가 있는 메인 공간은 전면에 창이 크게 나 있고 전반적으로 베이지색의 밝고 활기찬 느낌이라면,



안쪽에 있는 방은 조도가 낮은 조명을 두어,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혼자 와서도 부담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는 카페를 열고 싶었다는 주인장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 아닐까.



테이블 옆 책장에는 일본에서 사 온 말차와 찻잔 등으로 꾸며져 있어 혼자 방문해도 공간의 구석구석에 시선을 두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듯하다.



일본에서 만난 고즈넉하고 단정한 카페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주인장. 그래서 과하지 않은 정도로 소품을 배치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원목 가구로 된 테이블과 의자를 두었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정도로 공간을 꾸몄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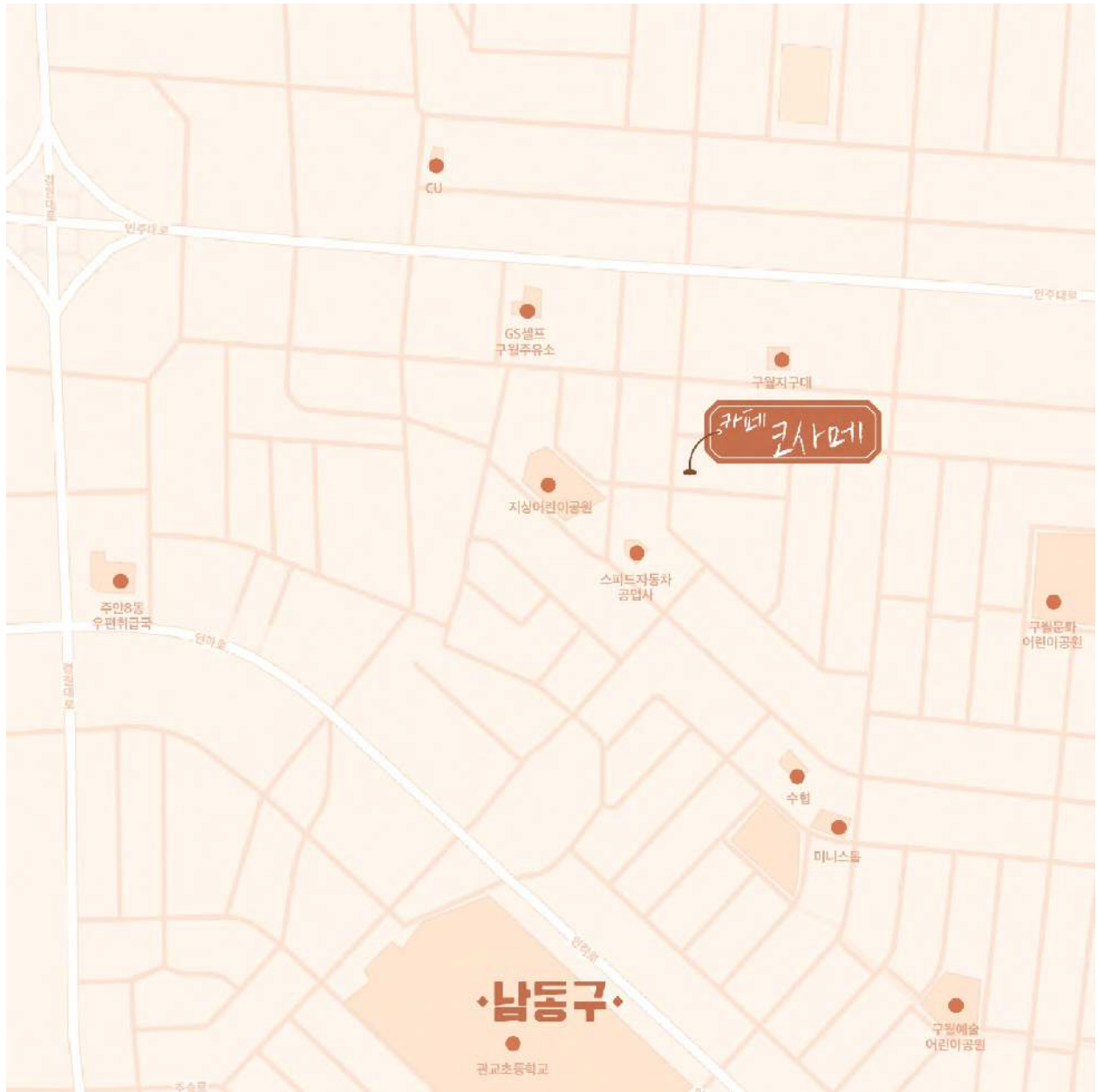


카페코사메의 대표 메뉴는 말차라떼와 당고다. 다른 카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메뉴를 선보이고 싶어 부러 디저트도 일본에서 흔히 먹는 간식 중 하나인 당고를 판매하고 있다고.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카페코사메에서만 맛볼 수 있다. 달콤하면서 짭짤한 소스의 맛이 별미다. 말차라떼 역시 녹차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어 모양도 예쁜 것은 물론이고 녹차의 맛이 진하게 느껴진다. 나중에는 일본의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말차를 가져와 메뉴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기대된다. 이렇듯 조용한 공간에서 특별한 일본식 디저트를 맛보고 싶다면 카페코사메를 방문해보자.



카페코사메에서는
주인장이 직접 찍은 사진들로 만든 엽서를 판매하고 있다.
놓치지 말고 구경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14. 태이니테이블

TEINY TABLE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여심을 사로잡는 곳



비티지여행

이천 태이니테이블

◆ 남동구 ◆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여심을 사로잡는 곳



**주인장은 자신이 사적인 자리에 초대받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레이니레이블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인장은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만든
디저트와 음료를 손님들에게 내고 있다.**



남동구 구월동의 로데오 거리를 벗어나 재래시장이 있는 골목으로 가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고급스러운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바로 태이니테이블이다. 건물 외벽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통유리 안으로 보이는 공간의 앤티크한 분위기가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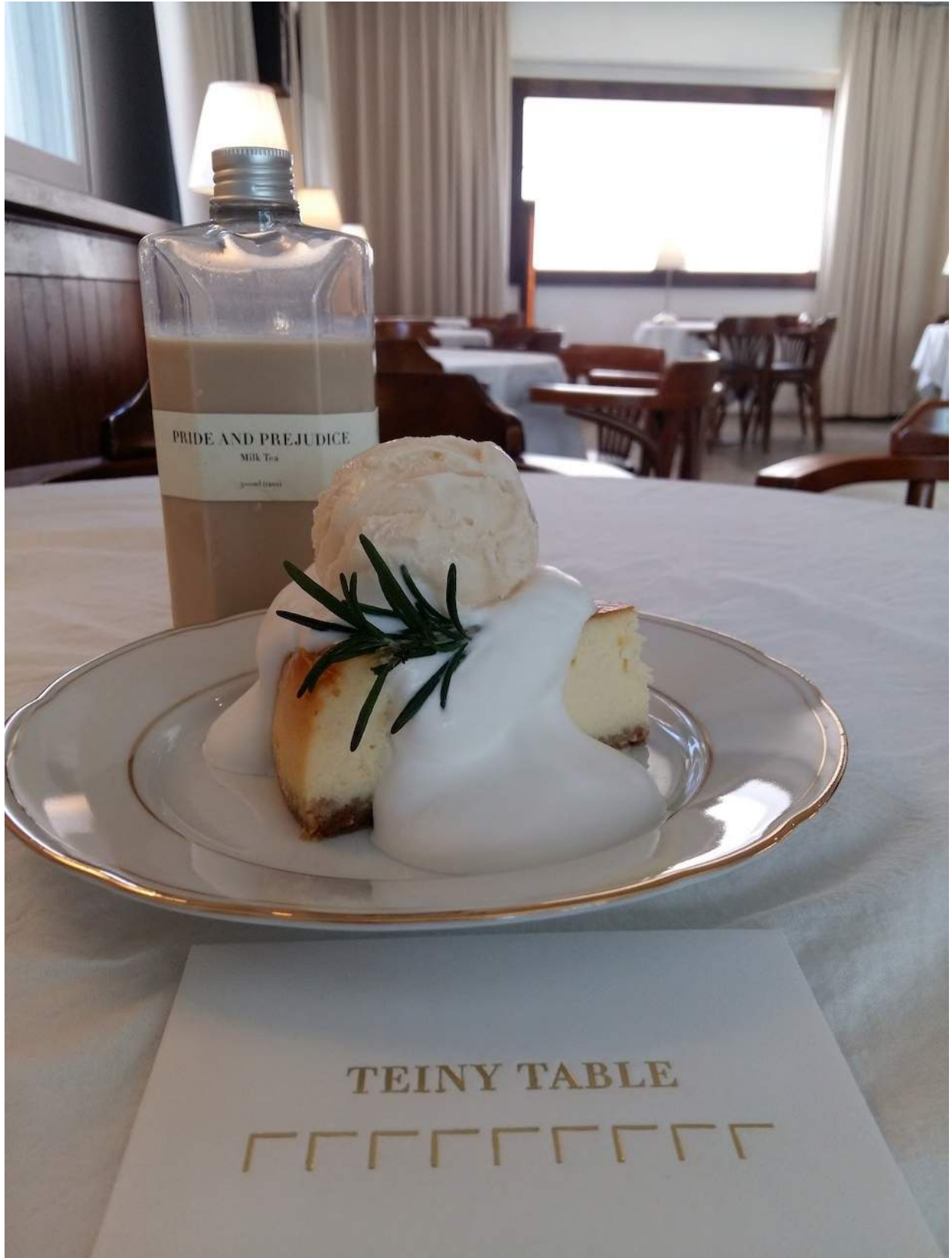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은은한 조명 아래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진다. 창문에 달린 베이지색 커튼과 오래된 과종시계, 원형 테이블이 고풍스런 분위기를 한껏 뽐내고 있다.



주인장은 자신이 사적인 자리에 초대받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태이니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인장은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만든 디저트와 음료를 손님들에게 내고 있다. 또한 이곳의 인테리어나 분위기는 부모님이 젊었을 적, 특별한 날 들르곤 하던 60, 70년대 경양식 식당에서 영감을 받았단다. 태이니테이블이 있는 자리는 원래 비닐공장이자 판매점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주인장은 조용한 공간에 자리한 이 큼지막한 공간이 마음에 들어 두 달 가까이 내부 공간을 꾸몄다.



건물 구조는 유지하되 외관을 눈에 띄게 노란색으로 칠하고, 내부는 따뜻한 갈색으로 채웠다. 1, 2층은 카페로, 지하 공간은 간단한 술을 파는 바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태이니테이블은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색다른 경험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문하면 카드와 영수증을 예쁜 봉투에 넣어 자리로 가져다준다. 또, 음료도 직접 제작한 용기에 담아 손님이 직접 잔에 따라 마실 수 있도록 내놓고 있다. 세심하고도 특별한 서비스 덕분에 여성 손님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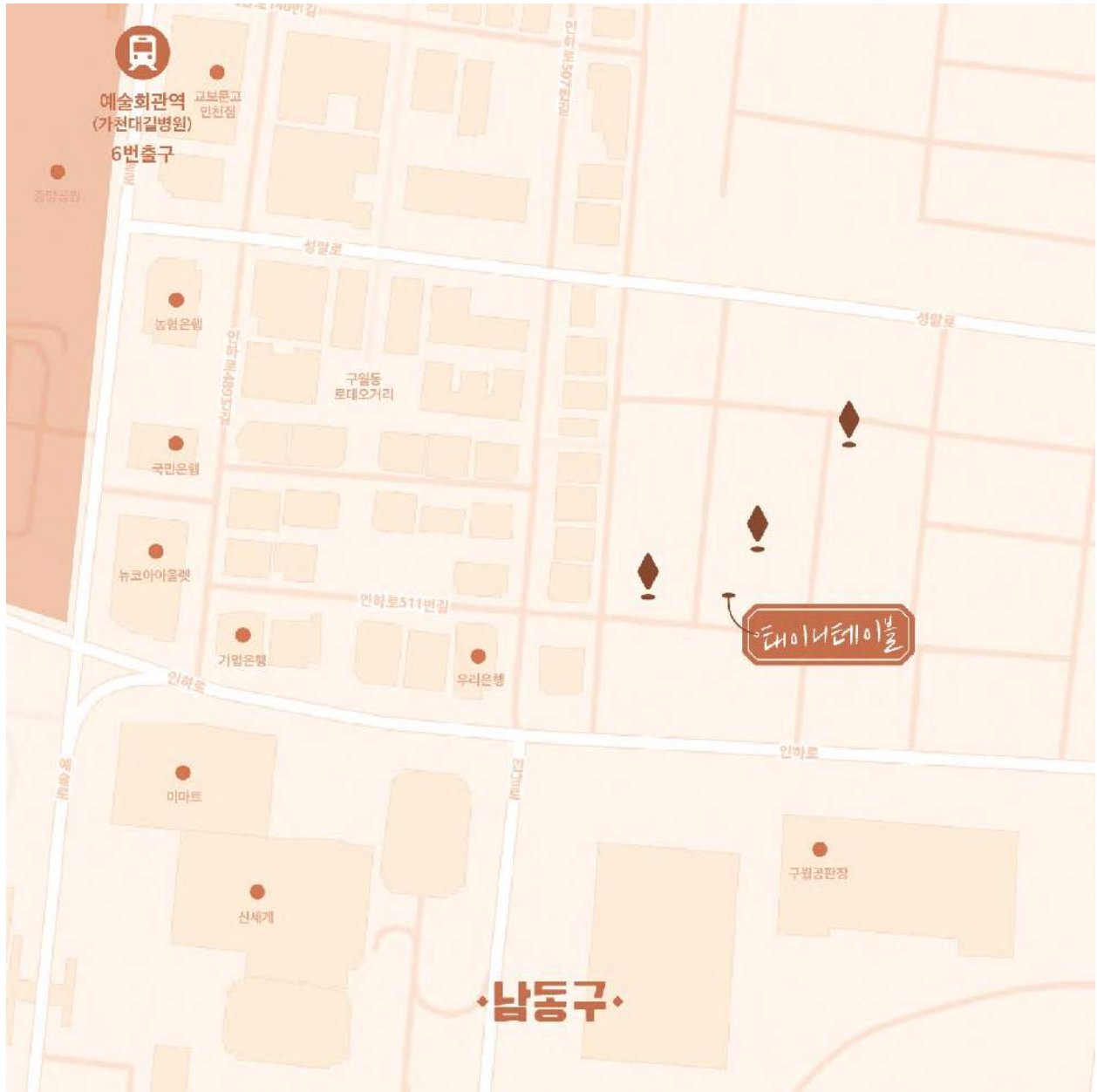
직접 맛본 이곳의 대표메뉴인 ‘오만과 편견’ 밀크티와 바닐라 치즈케이크는 진하고 부드러워 확실히 여심을 사로잡는 맛이였다.



인천에 거주하는 주인장은 평소 인천의 젊은이들이 주말만 되면 인천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 헤매는 점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들 못지않게 공간을 멋지게 가꾸고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더디지만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이 거리에서 태이니테이블을 알리기 위해 그는 인천의 창작자들이 모이는 마켓에도 참여하고 있다. 태이니테이블만의 독특함을 손님들에게 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에서 보기 드문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고 싶다면 이곳을 찾아보자.



칵테일을 팔며 바로 운영되던
태이니테이블의 지하는 새로이 단장 중이다.
11월이면 달라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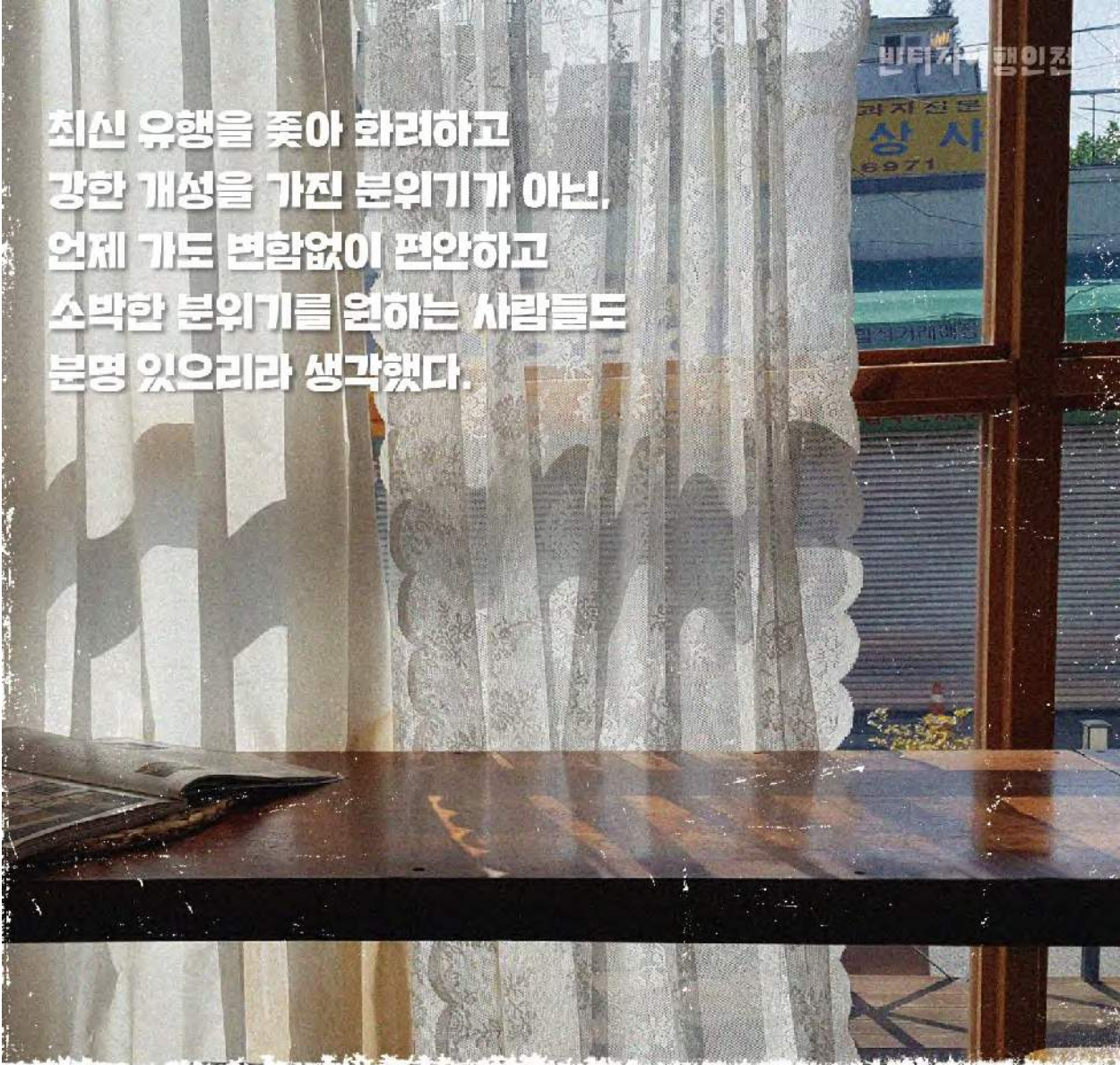


15. 휘게101

HYGGE101

소소하고 편안한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





**최신 유행을 좇아 화려하고
강한 개성을 가진 분위기가 아닌,
언제 가도 변함없이 편안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휘게 101은 여유로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카페다. ‘휘게 (hygge)’는 덴마크어로 편안함, 따뜻함, 안락함을 뜻한다. 이곳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휘게 101은 지어진 지 30년 된 주택을 개조한 카페다. 외관에서부터 가정집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곳은 원래 한식집이었다가 오랜 시간 비어 있었다고 한다. 주인장은 처음부터 카페지만 집처럼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인천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주택을 찾아다녔고, 그 끝에 자신이 살아온 구월동에서 딱 맞는 공간을 찾게 된 것이다.



오래된 주택이지만 벽돌로 된 벽면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나무로 된 천장의 모습도 잘 보존되어있어 보자마자 이곳으로 결정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음에도 집이 주는 편안함을 충분히 간직하고 있었다. 잘 가꾸면 휘게라는 단어가 품은 분위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그 후, 벽면과 천장을 그대로 살리고 인테리어 소품을 곳곳에 두어 공간을 채웠다. 예전에 방으로 쓰였던 공간도 그대로 유지하고 벽면의 벽돌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의자도 벽돌을 활용해 만들었다.



지하 공간 역시 예전에 사용되었던 문을 떼서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이 공간에서 난 물건들을 이용해 다시 공간을 꾸몄다. 그렇게 꾸민 휘게 101은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낮은 조도, 조용한 음악, 은은한 향으로 채워져 있다.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메뉴는 바로 101커피와 딸기라떼다. 특히 101커피는 살짝 알코올이 들어간 것이 특징인데 부드러운 크림과 알코올이 잘 어우러져 농후한 맛이 특징이다. 딸기라떼는 생딸기를 한 움큼 품은 달콤한 음료다. 달달한 딸기 우유의 진한 맛이 마시자마자 미소를 짓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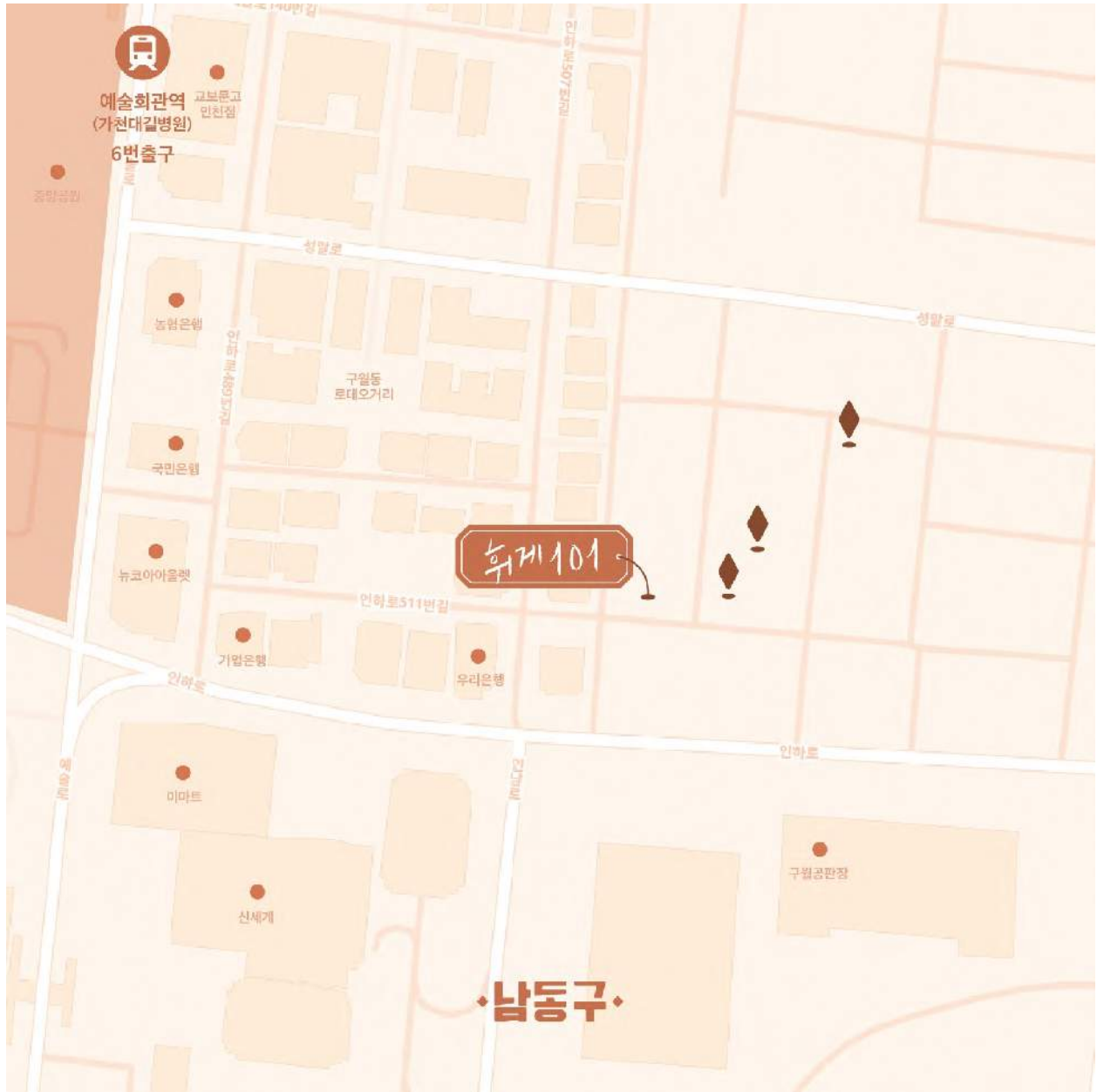
주인장은 최신 유행을 좇아 화려하고 강한 개성을 가진 분위기가 아닌, 언제 가도 변함없이 편안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말보다도 편안하게 머물다 간다고 이야기해주는 손님을 만날 때마다 가장 기쁘고 보람차다고. 그러니 친구 혹은 연인과 소소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오늘이라면 휘게 101로 향하자.

큐레이터 TIP*

김은진



너무 밝지 않은 카페 분위기 덕에 예쁜 사진들을 찍기 좋다.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포토존도 있고 주기적으로
브런치 메뉴와 디저트, 내부 소품들에도 조금씩 변화를 준다고 하니
'카페투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16. 다이닝카페 게임

GHEMI

내 집 같은 편안한 휴식처



30년 된 주력을 감상

조록 넝쿨이 눈길을 사로잡는 입구.

계단 옆쪽에 마련된 아기자기한 정원을 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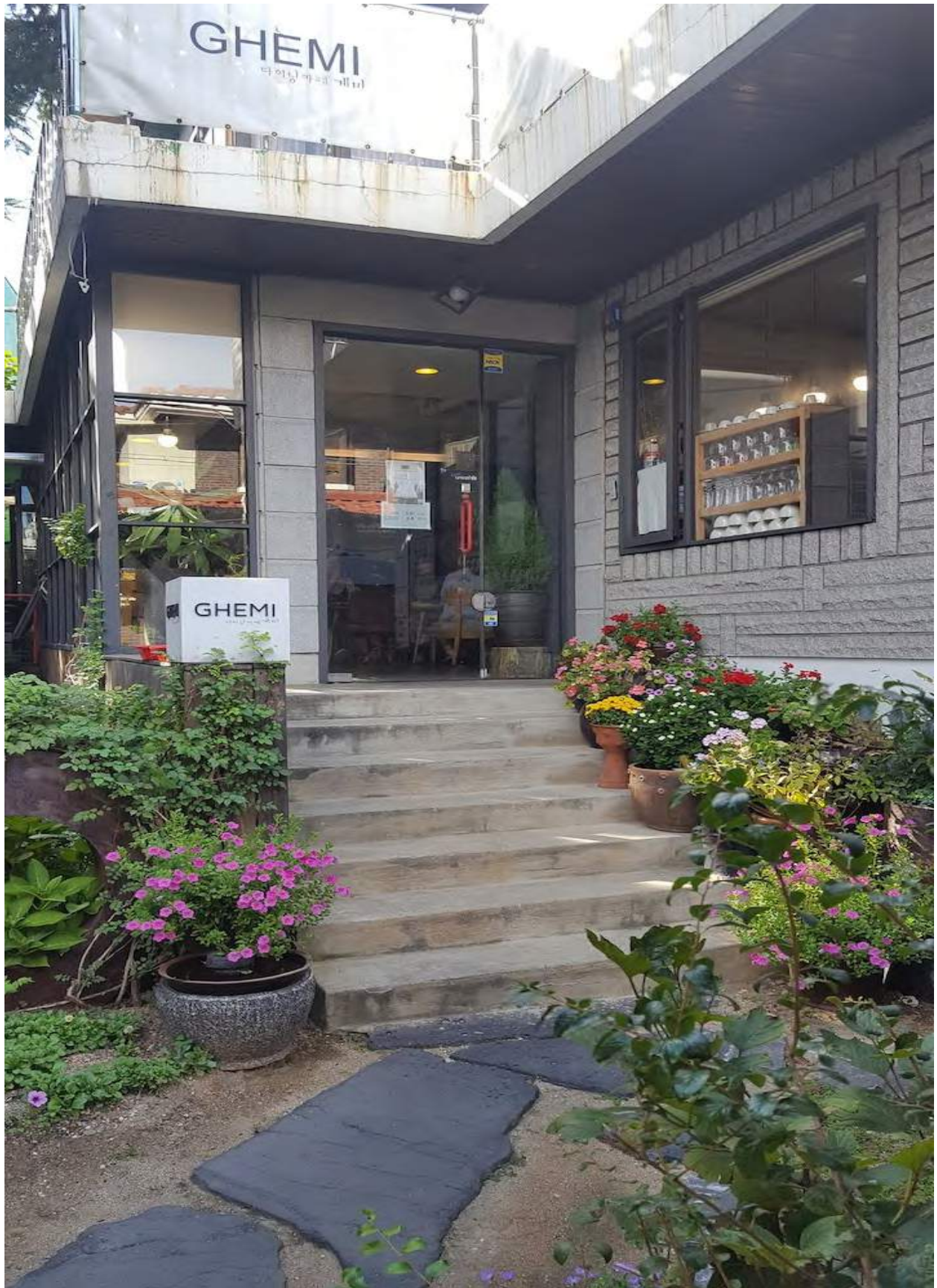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설레는 마음은

조금씩 더 커진다.

GHEMI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부평역 인근 문화의 거리. 하지만 이 거리를 살짝 벗어나 부평시장역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한적한 골목에 접어든다. 오밀조밀 가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이닝카페 게이미가 있다.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게이미는 식사와 함께 커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초록 넝쿨로 감싸져 있는 입구는 길 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계단 옆쪽에 마련된 아기자기한 정원을 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설레는 마음은 조금씩 더 커진다.



다이닝카페 게임은 무려 3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을 개조한 곳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던 주택을 동네 주민이었던 주인장이 눈여겨보았다고. 주인장은 거의 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낡고 허름했던 주택을 오랜 시간 공들여 수리했다. 이전엔 입구에 큰 철문이 있었는데 오가는 손님들이 좀 더 편히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제거했다.



또한 거실이었던 공간엔 오래 머물다 가기 좋도록 테이블과 안락한 의자를 두었고, 방이었던 공간을 단체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예쁜 정원이 보이는 창가 자리는 그야말로 명당! 별이 잘 드는 오후에는 푸른 정원을 보며 여유를 즐기고, 저녁에는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공간의 분위기에 취한다.



맛과 건강을 중시해 직접 엄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한다는 주인장. ‘게미’의 뜻이 전라도 말로 깊은 맛을 뜻한다고. 손님들과도 깊은 맛과 정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홈메이드 함박스테이크는 소스와 고기의 풍미가 잘 어우러지고, 예쁘게 플레이팅된 프렌치 브런치는 먹는 동안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



처음에는 근처 학부모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이 주로 방문했다면, 지금은 게미가 인심 좋은 부평의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다고 한다. 2012년 6월 처음 공간을 열 때만 해도 이 동네의 유일한 카페였는데 어느새 골목에는 게미처럼 낡은 주택을 개조한 음식점과 카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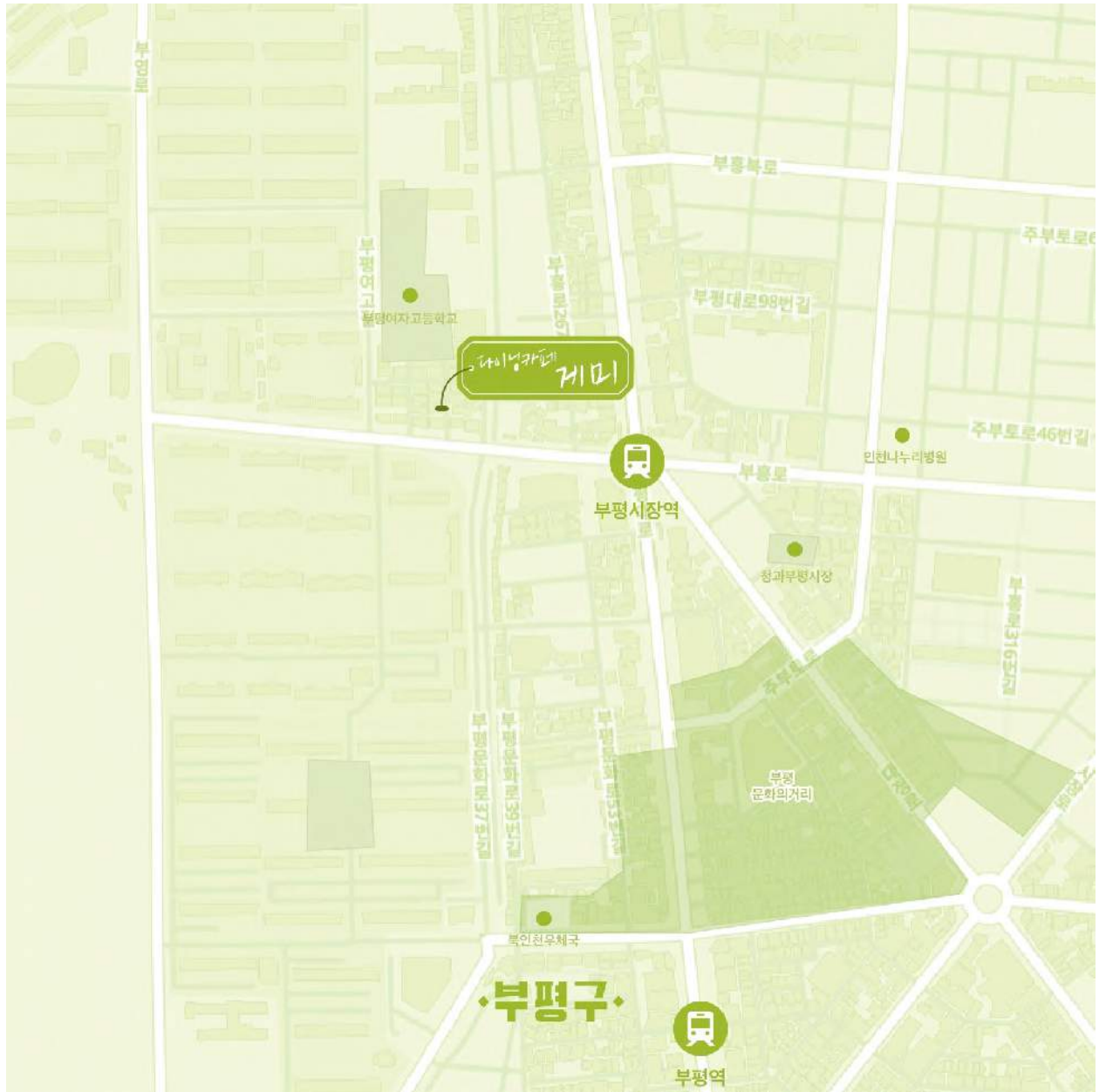


이 공간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 한 즐겁게 일하며 공간을 꾸려가고 싶다는 주인장.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와 함께 편안한 오후의 휴식을 누리고 싶다면 재미를 찾아가 보자!



주말 낮 시간대에는
좌석이 금방 차는 편이라 예약을 하는 게 좋다고!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테라스 자리에 앉는 것을 추천한다.





17. 카페 밀레

CAFE MIL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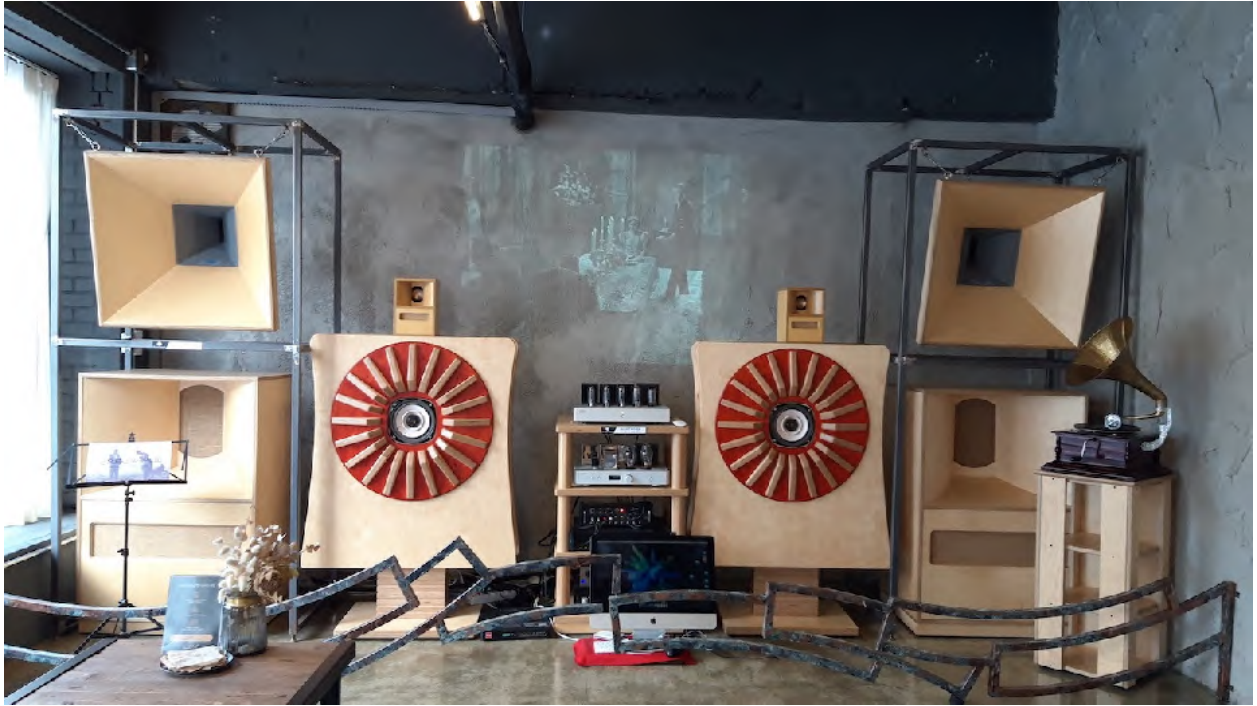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만나는 공간



화가 밀레의 작품 속 농부들이
밀알을 뿌려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작은 공간이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부평구 십정동에 최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생겼다. 바로 올해 3월 오픈한 카페이자 레스토랑인 밀레다. 밀레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공간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밀레는 전시나 작은 음악회를 열어 손님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이 공간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음식점이었다. 정광훈 대표는 업무차 찾은 주유소 앞에 비어있던 음식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공간을 잘 가꿔 인천의 시민들이 좋은 음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



화가 밀레의 작품 속 농부들이 밀알을 뿌려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작은 공간이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씨앗이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이름을 밀레라고 지었다고.



밀레는 가로로 긴 건물이 큰 특징이다. 자그마한 분교 같은 느낌이 나도록 외관을 정비하고 철길을 만들어 꾸몄다.



1층은 카페 겸 식사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중앙에 큰 원형 테이블이 눈에 들어온다.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던 원래 공간을 터서 하나의 홀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대신 넓은 공간을 테이블로 전부 채우지 않고, 벽면으로는 영화를 틀어두고 음향에도 신경 써, 손님들이 공간에 머물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런가 하면 천장의 벽지를 뜯어내고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기존에 있던 벽에는 밀레만의 색을 입혔다. 주방과 입구로 쓰이던 공간에 있던 타일 벽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탁 트인 메인홀과 달리 룸 형태로 만들어 비교적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몄다.



한편, 지하에는 창고를 정비해 만든 갤러리 공간이 손님들을 반긴다. 밀레에는 곳곳에 작품이 걸려 있어 굳이 갤러리에 가기 위해 시간을 내어 움직이지 않아도 식사하면서,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 작품도 볼 수 있다.



카페이자 레스토랑답게 브런치 메뉴부터 디저트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 멀리 가지 않아도 인천에서 맛있는 음식과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 밀레를 찾아가 보자.

큐레이터 TIP*

김은진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1층 홀 공간에서
현악 3중주 미니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니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방문해보자!
또한 넓은 주차공간도 보유하고 있으니
드라이브할 겸 방문하기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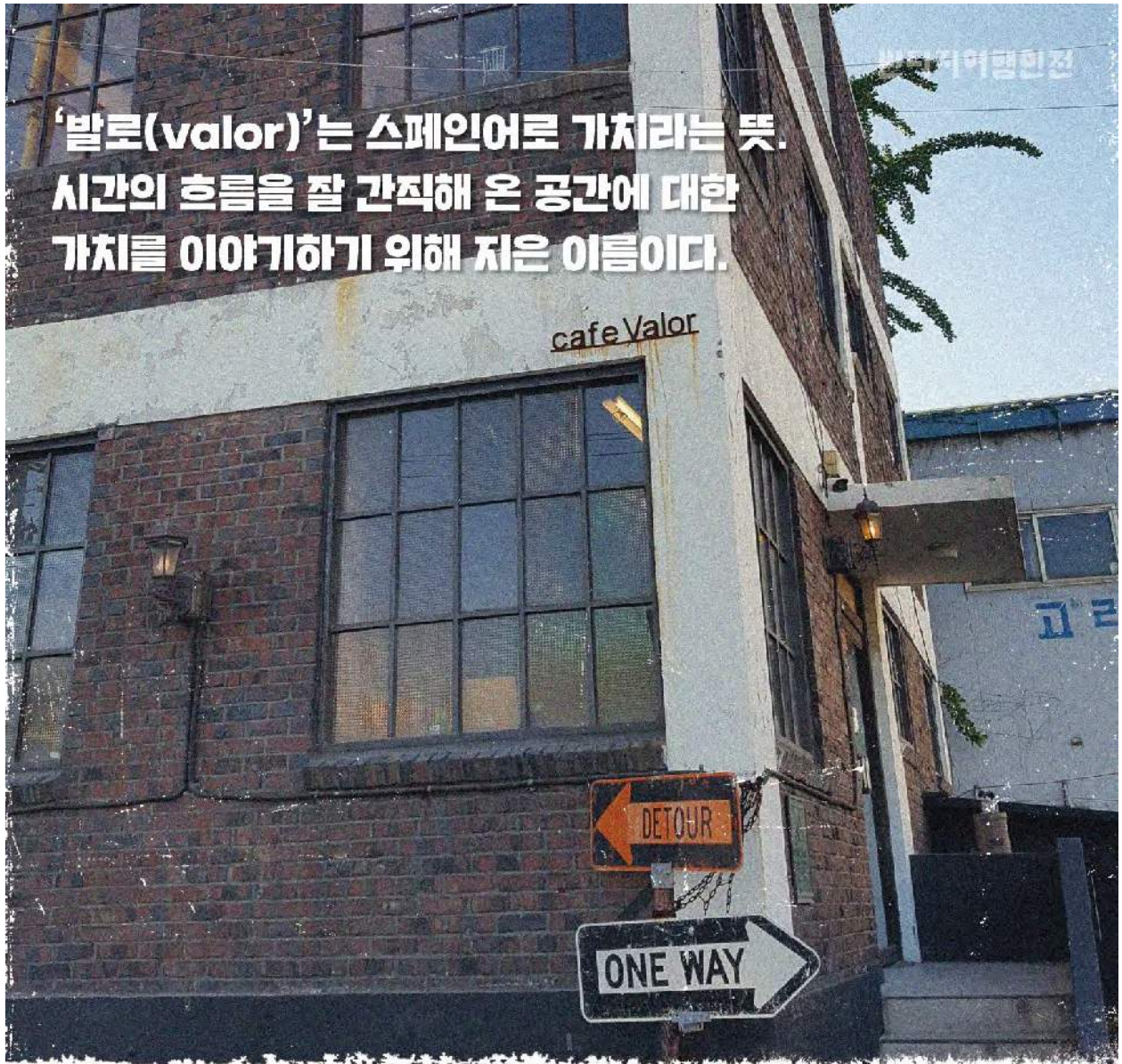
18. 카페 발로 1,2호점

CAFE VALOR 1, 2

버려져 있던 공장의 화려한 변신



**‘발로(valor)’는 스페인어로 가치라는 뜻.
시간의 흐름을 잘 간직해 온 공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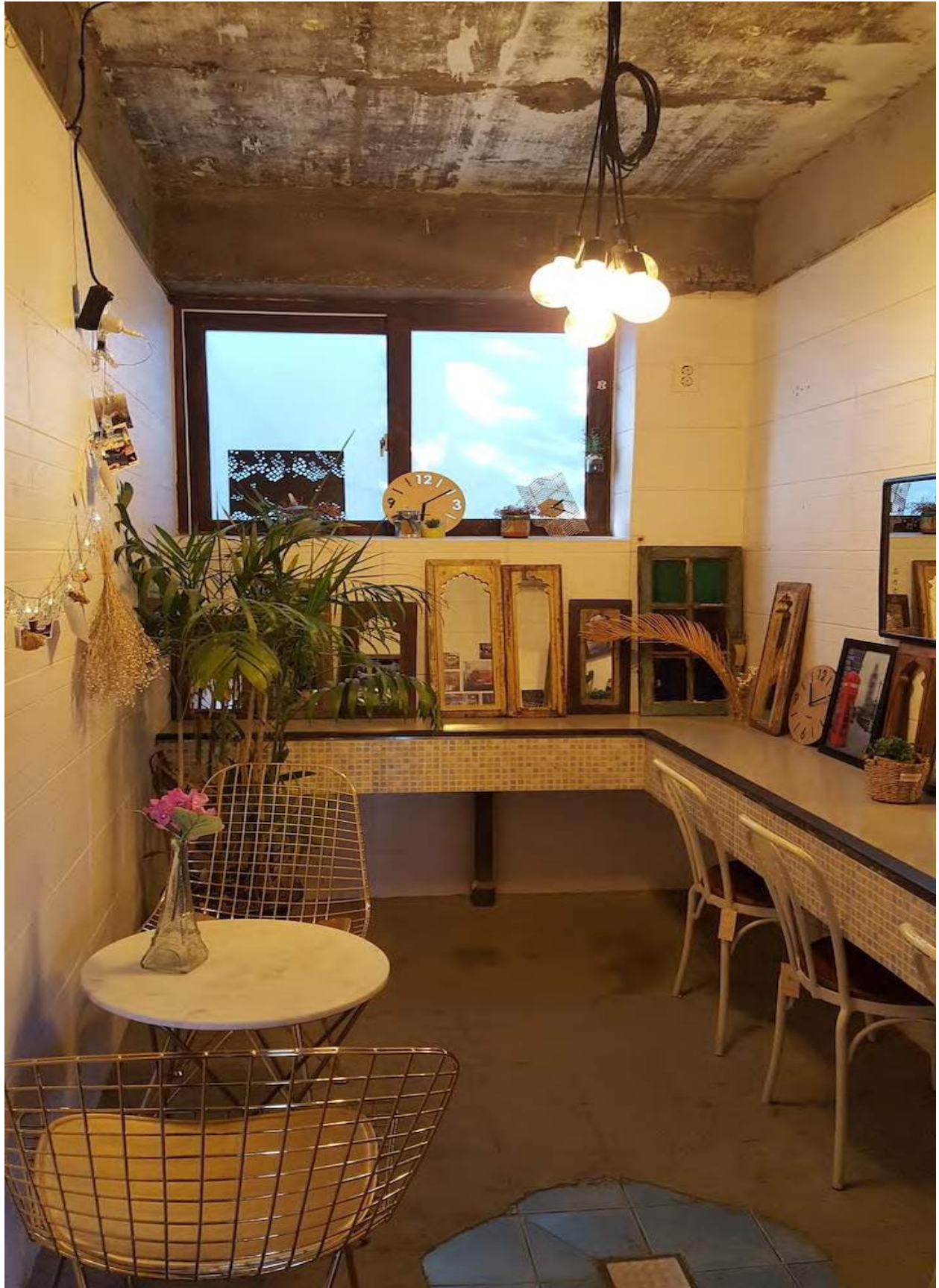
부평구 십정동 일대는 공장단지가 즐비해 있다. 이곳에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오래된 공장을 개조해 만든 카페가 있다. 바로 카페 발로다. 유럽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폐공장을 개조한 공간에 관심을 두고 있던 김연표 대표는 인천에 폐공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후, 그는 십정동에서 더는 운영하지 않는 철강공장을 발견, 이곳을 잘 살려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카페 발로가 탄생했다. ‘발로(valor)’는 스페인어로 가치라는 뜻. 시간의 흐름을 잘 간직해 온 공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다.



이곳에서 촬영한 영화 <뷰티인사이드>가 흥행하면서 카페 발로는 스튜디오로 유명해졌다. 요즘에도 한 달 중 절반은 뮤직비디오, 드라마 등의 촬영 대관으로 쓰인다고. 그 때문에 카페 발로는 스튜디오인 1호점과 가구 쇼룸과 카페를 겸한 2호점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1호점으로 들어서면 빛나는 조명과 함께 연기가 나오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공간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아주 몽환적이다. 그 입구로 따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콘셉트로 꾸며진 스튜디오 공간이 나온다.



천장을 지지하는 구조물, 녹슨 흔적, 실제로 공장에서 사용되던 크레인이 그대로 달려있어 이곳이 오래된 공장이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크레인을 있는 그대로 두고 조명을 설치한 것이 촬영 스튜디오로 사용될 때 진가를 발한다. 조명을 이 동시키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만이 아니라 이곳에선 누구 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2호점 역시 자동차 부품공장을 개조한 공간으로 건물 외벽에는 물론, 내부 천장과 벽면에 남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던 건물을 부수지 않고 다양한 분위기의 콘셉트로 꾸며 놓아서 방문하는 날마다 어디에 앉을지 공간을 고르는 재미도 있다.



스튜디오, 빈티지가구 쇼룸, 카페가 한곳에 어우러져 있는 카페 발로.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공간이다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턱을 오가는 이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인천사람들이 굳이 인천을 벗어나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유행에 맞고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멋진 공간에서 사진도 찍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카페 발로를 찾아가 보자!



1호점 스튜디오의 경우, 촬영이 있는 날은
인스타그램에 미리 공지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손님들에게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 있게 해준다고!
또 스튜디오에서 DSLR 카메라로 촬영하는 건 유료지만,
일반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건 무료이니
카페를 이용한 손님이라면 스튜디오도 꼭 방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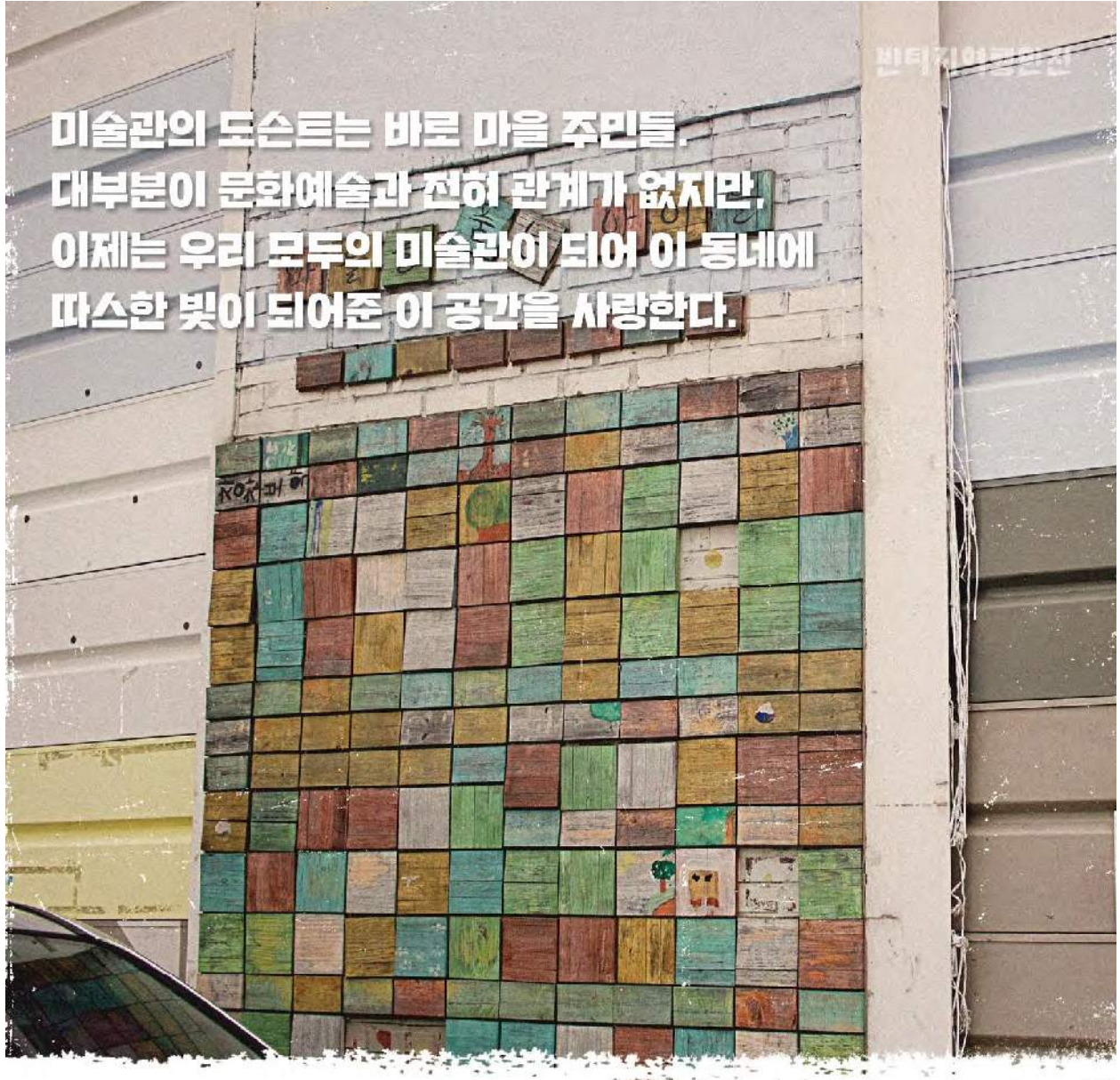
19. 우리미술관

WOORI MUSEUM OF ART

골목길에서 만나는 작지만 큰, 문화사랑방



미술관의 도슨트는 바로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문화예술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미술관이 되어 이 동네에
따스한 빛이 되어준 이 공간을 사랑한다.





“우리미술관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아니?” 하고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물었다. “저만 따라오세요.” 밝고 희망찬 목소리로 안내해준 아이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마주한 곳은 작은 골목길. 회색의 길을 따라가니 재단장을 한 듯 깔끔한 건물에 오색찬란한 색으로 칠해진 우리미술관 간판이 보였다.



2015년 작은 미술관 조성 운영사업 공모를 통해 시작되어, 동구청으로부터 빈집을 무상으로 받아 리모델링 된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이다.



우리미술관 전시관에서는 지역대학생들과 협력한 아트프로젝트 <Recycle - 그곳의 흔적>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석동의 많은 변화의 과정을 비추는 드로잉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설치미술 작품을 보니, 동네의 변화 과정과 역사를 한눈에 예술로 시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미술관의 도슨트는 바로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문화예술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동네에 미술관이 생기고 난 후 관심을 두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문화예술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을의 따스한 빛이 되어준 이 공간에 감사를 느끼고 있다고.



전시관 앞 공간에는 예전에 있던 건물의 터를, 회색의 자갈로 남겨놓아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관에서 나와 창작문화공간 만석을 지나가려 하니, 노란 문 앞 의자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는 ‘이곳은 예술가들이 사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매년 공모와 심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력과 창의력을 갖춘 작가를 선별한다고. 대화 중 마주친 할아버지는 우리미술관 교육관으로 도자기를 만들러 가는 중이었다. 이렇듯 작은 동네에 주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미술관에서 이 작은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큰 예술을 만나보자.



동인천역에서 내려 우리미술관을 찾기 어렵다면,
만석비치아파트를 검색하세요!



20. 책방모도

MODO BOOKS

모 아니면 도에서 용기를



**이 작은 책방은 두 대표가 편애하는
책들로 채워져 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읽은 책 중에서
좋았던 책들, 그리고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로
차곡차곡 서가를 채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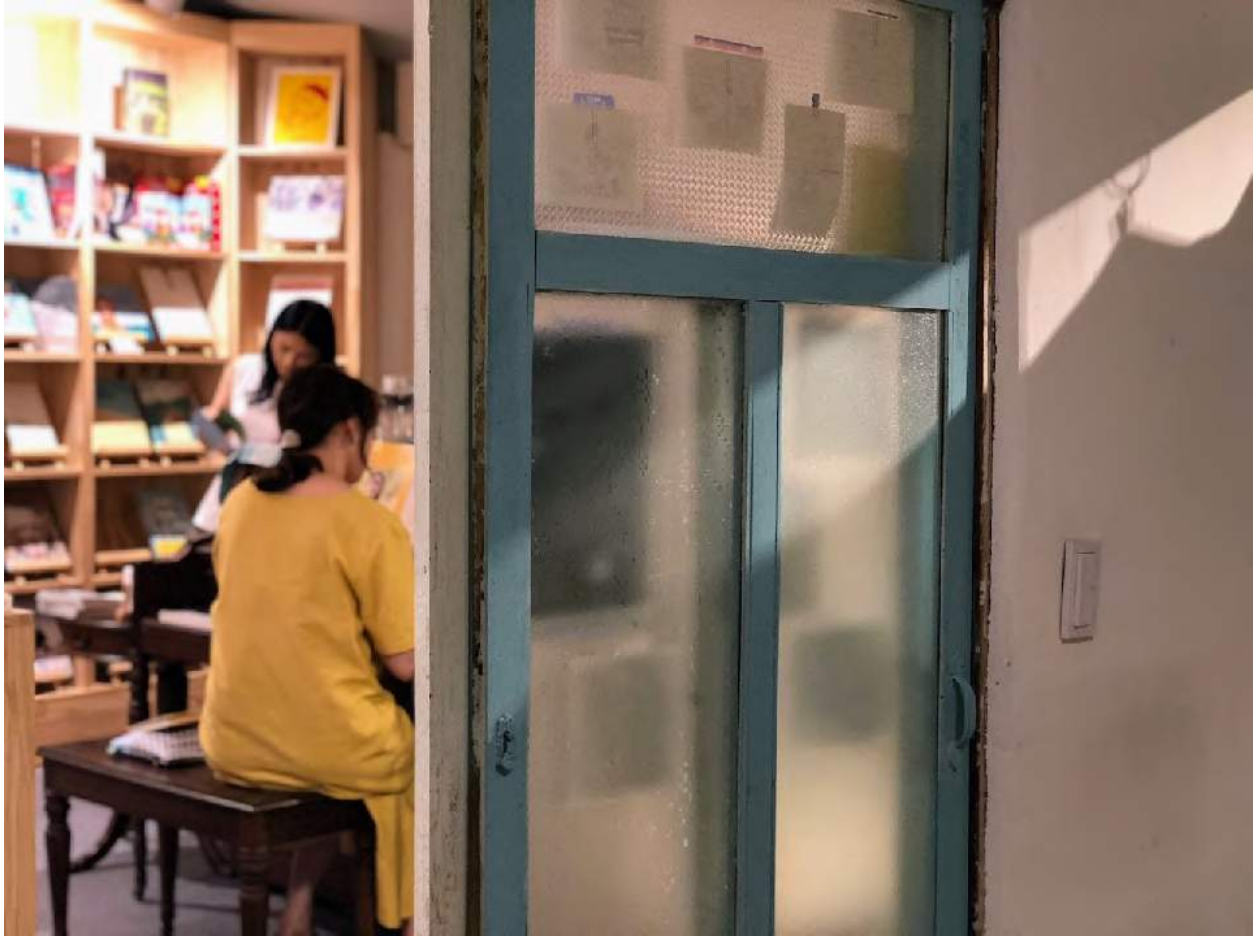
책방 모도는 동인천 화수동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서점이다. 원래는 담배를 파는 구멍가게가 있던 자리였지만,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최근까지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그 공간을 발견한 책방 모도의 두 대표의 눈에 밝힌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창문 틈으로 삐죽 튀어나온 연통이나 이미 색이 다 바랜 민트색 페인트로 칠해진 외벽과 같이, 구석구석 시간을 머금은 것들.



‘이곳에서 온종일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 공간을 보자마자 금세 떠오른 기분 좋은 상상은 머지않아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담배가 아닌 책을 팔아 보기로 한 것이다.



모도는 ‘모 아니면 도’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말에서 용기를 얻고, 도보다는 모에 살짝 치우친 패기를 장착한 책방 모도는 2018년 1월 태어났다. 이 작은 책방은 인천에서 나고 자란 모 대표와 도 대표가 편애하는 책들로 채워져 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읽은 책 중에서 좋았던 책들, 그리고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로 차곡차곡 서가를 채우고 있다.



개업 초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어르신들이 이사할 때 실수로 버린 만화책, 두꺼운 약초 도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등 하나같이 오래된 책이나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책을 구해달라는 주문이 밀려들어 애를 먹었다. 이렇게 힘들지만 뿌듯한 미션을 수행하며 책방 모도는 조금씩 화수동의 동네 책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을 꼽자면 단연 천장에 달린 조명이다. 두 대표가 공간을 직접 꾸리면서 곰팡이가 잔뜩 슬어버린 벽지는 긁어냈지만, 먼지가 수북이 쌓인 천장 조명만큼은 차마 버리지 못했다고. 30년 동안 화수동 40-1번지를 밝히고 계절에 따라 날개의 방향을 바꾸어 왔을 이 조명처럼 우리도 지치지 않고 버티자며 조명 앞에서 마음을 다잡은 일화를 듣고 나니, 그 흔하고 낡은 조명마저도 달라 보인다.

오늘은 온기를 머금은 조명 아래서 이런저런 책을 들춰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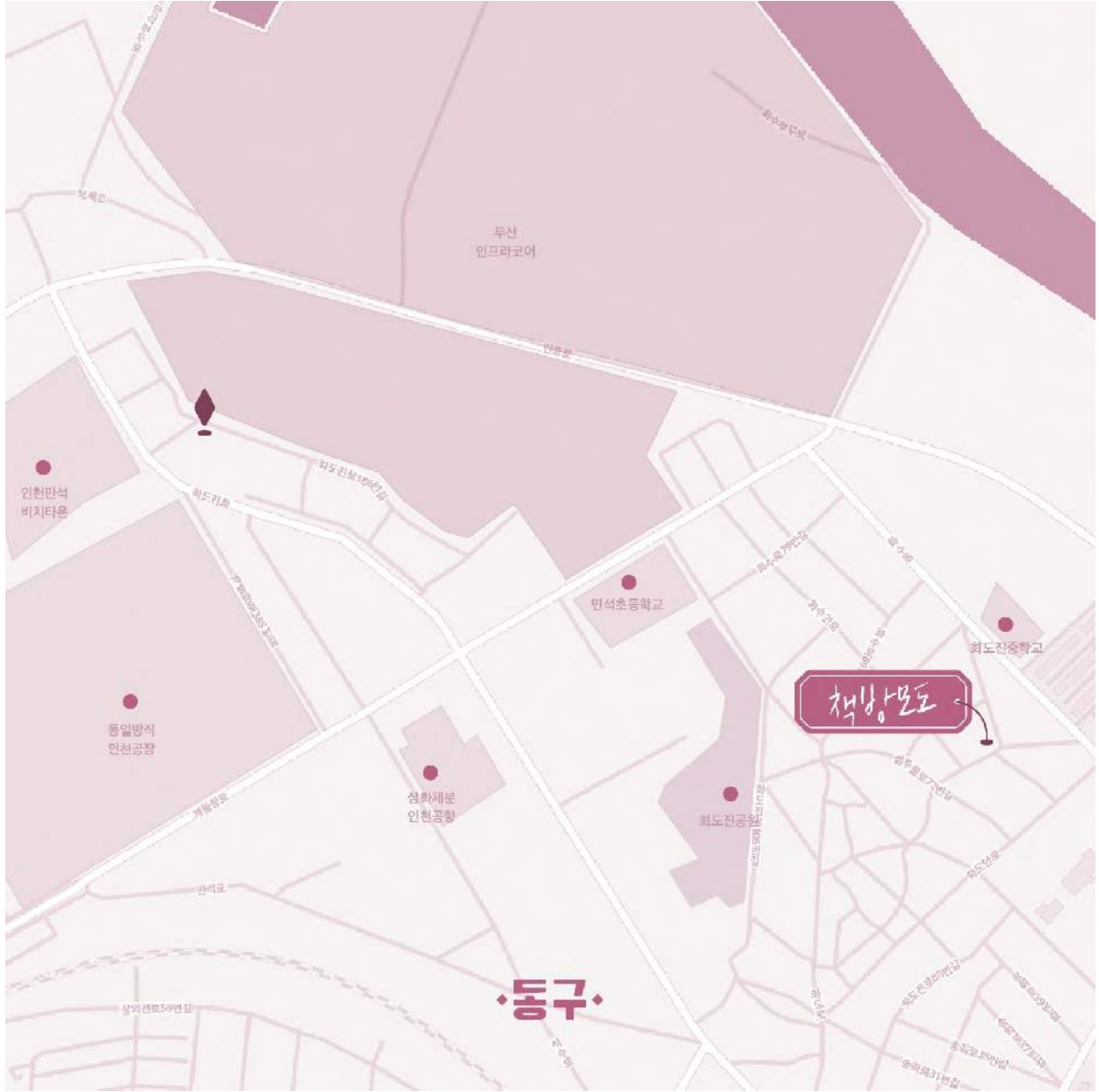




책방 모도는 6월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심야 책방 <책, 맥, 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서도 다른 지역으로 통근, 통학하는 이들을 위해
자정까지 불을 밝혀두고, 특별히 맥주도 마련해 두었다고 하니,
잠 못 드는 밤 책방으로 야간산책 떠나볼까요?





21. 카페 Mercy

CAFE MERCY

빈티지와 모던의 조화가 이색적인 배다리의 새 얼굴





7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슈퍼마켓의 외관은 그대로 지키되,
내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개조한
이 언밸런스함이 매력적인 공간
카페 Mercy가 지난 9월 탄생했다.



배다리 삼거리 초입 오래된 간판 아래 새어 나오는 노란 불빛이 인상적이다. 7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슈퍼마켓의 외관은 그대로 지키되, 내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개조한 이 언밸런스함이 매력적인 공간 카페 Mercy가 지난 9월 탄생했다. 배다리 주민들도 배다리의 얼굴이라고 불러 준다는 카페 Mercy.



카페 Mercy에서 옛 공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단연 건물 앞에 달린 ‘진종합식품’의 간판이 아닐까? 실제로는 카페 Mercy 옆 가게의 간판인데, ‘간판이 커서 어떡하냐’며, 미안해하셨다는 인심 좋은 슈퍼 사장님의 우려와는 달리 오래된 간판과 모던한 내부 인테리어의 조합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카페 Mercy 박성준 대표는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 내에 다른 문화 공간도 운영하고 있지만, 배다리 특유의 ‘어떤 마음’에 이끌려 이곳에 카페를 내게 됐다고. 오랜 세월 동안 배다리를 지켜온 상인들과 예술인들이 만든 공간과 커뮤니티가 가진 결속력이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모임들은 투박하지만, 이 모임들 덕분에 배다리는 더 끈끈한 마을이 된다.



한편, 카페 Mercy는 카페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소규모 공연들을 계획하고 있

다. 음악이 가진 힘을 잘 활용한다면 배다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배다
리에서 젊은 패기를 불어 넣고 싶다는 그의 포부가 엿보인다.



카페 Mercy는 좋은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려는 뜻으로 만
든 공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누군가에게는 저렴한 모임의 장
소가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공연을 올릴 무대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막 걸음마
를 떤 카페 Mercy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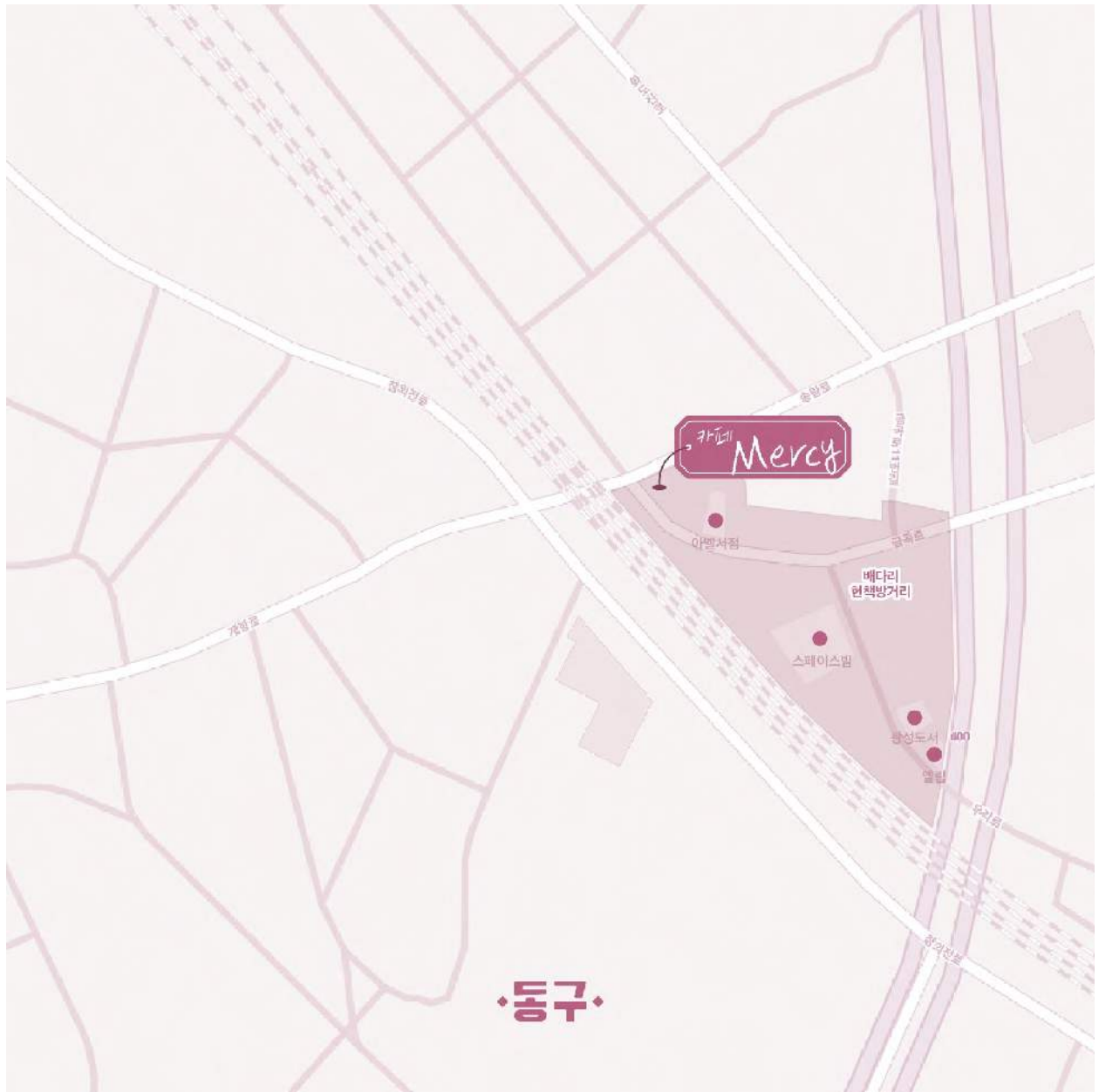


카페 Mercy에서는 히말라야 소금으로 만든

히말라야 핑크 소금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소금 커피라니, 상상이 안 된다고요? 백문이불여일견.

지금 당장 맛보러 떠나자고요! 참고로 가격은 5천 원!







22. 메콩사롱 + 개항로 본부

MEKONG SALON AND GAEHANGRO HEADQUARTER

개항로에서 메콩강의 정취를 느끼다



메콩사롱은 개항로의 외진 골목,
그중에서도 2층에 위치한
동남아 요리를 주로 하는 비스트로다.
이국의 정취를 가득 담은 요리와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노란색과 진한 초록색, 그리고 짙은 나무색의 조화는 마치 어느 따뜻한 이국의 여행지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개항로에서 메콩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메콩사롱이다. 주인장은 전공을 살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공사를 했다. 그 때문에 공사가 너무 길어졌다는 주인장의 푸념이 무색할 정도로, 과연 그의 뛰어난 감각을 더한 섬세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원래 점집이 있던 자리라고 동네 주민들이 알려 주었다. 그제야 유리창에 새겨진 범상치 않은 무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개항로에서도 외진 골목, 그중에서도 2층에 위치한 탓에 장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외벽에 덕지덕지 붙은 촌스러운 분홍색 타일도, 탁 트인 테라스도, 주인장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메콩사롱은 동남아 요리를 주로 하는 비스트로다. 이국의 정취를 가득 담은 요리와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본격적인 식사보다는 식사 후 가볍게 들르기 좋은 코스다.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테라스를 개조해 만든 온실이다.



창문으로 건너편 적산가옥이 내다보이고 바로 앞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별이 좋은 날엔 쏟아지는 햇살에 황홀해지고, 밤에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실제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온실 자리는 자리를 쟁탈하려는 손님들의 눈치 싸움이 가장 치열하다고.



사진 제공 메콩사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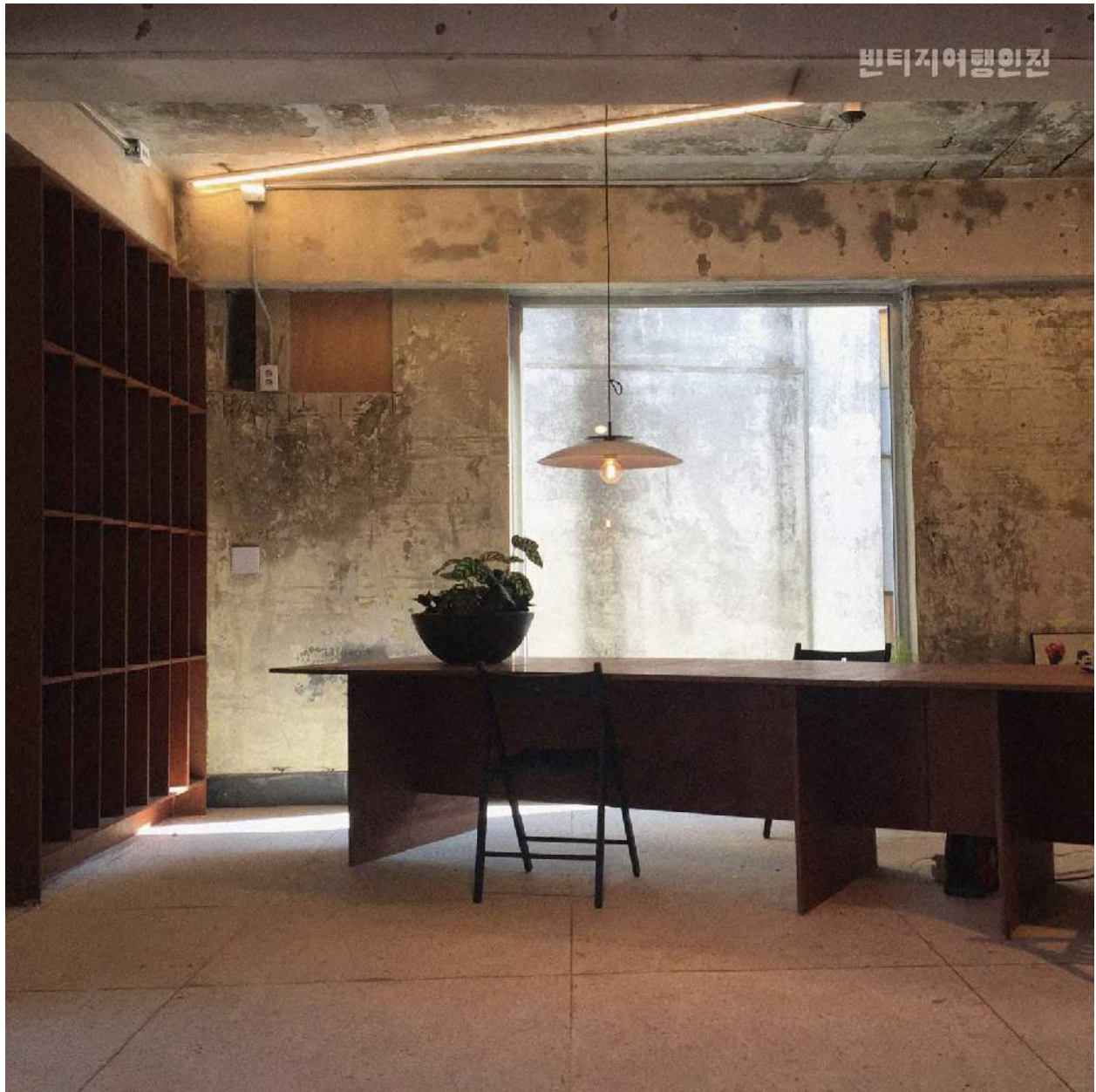
메콩사롱에는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 팟타이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동남아 현지 맥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물론 맥주와 가볍게 곁들이기 좋은 반미 샌드위치도 준비 중이다.



사진 제공 메콩사롱

가끔은 맥주에 새로운 맛의 안주를 곁들이고 싶을 때, 메콩사롱으로 달려가 보자.
분명 실패 없는 선택일 것이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심장



오래된 가구점이 즐비한 거리 한복판, 큼지막한 ‘가구백화점’ 간판이 달린 건물 3층에는 개항로 프로젝트의 심장, 개항로 본부가 있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돼, 역설적으로 온전히 보존된 개항로의 공간들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 넣는 프로젝트다. 개항로 프로젝트와 연관된 다양한 일들이 태어나는 개항로 본부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전시, 강연, 파티가 열릴 예정이라고.





길쭉한 테이블 하나와 책장, 의자들이 단출하게 놓인 개항로 본부. 이곳을 채워주는 건 너른 창에서 쏟아지는 햇살, 감각적인 음악과 그림, 푸른 식물이다.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다가 한 템포 쉬어 가기도 하고, 놀다 보니 또 재미난 일들이 시작되기도 한다고. 텅 비어 있기에 오히려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개항로 프로젝트의 심장, 개항로 본부는 오늘도 여유롭고 분주하다.



지금까지 개항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페 브라운핸즈, 이탈리아 레스토랑 마틸다, 동남아 비스트로 메콩사롱, 갤러리 플레이스막이 탄생했다. 앞으로도 일광전구 소룸이자 카페인 LIGHT HOUSE, 낮에는 카레집, 밤에는 이자카야로 변신하는 수운도 곧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멈춰 과거가 되어버린 공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개항로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한다.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현재를 살고 그렇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한다. 개항로 프로젝트가 이 거리에 얽힌 또 하나의 작은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개항로는 조금씩 빛난다.

큐레이터 TIP*

문서회



메콩사롱을 비롯해 개항로에는
'개항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이 모여있습니다.
메콩사롱과 가까운 곳에 개항로 프로젝트의 심장인, 개항로 본부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전시, 강연, 파티, 컨퍼런스 등이 열린다고 하네요.
올겨울에는 개항로의 이웃인 노포들의 이야기를 엮은
<개항로 이웃사람>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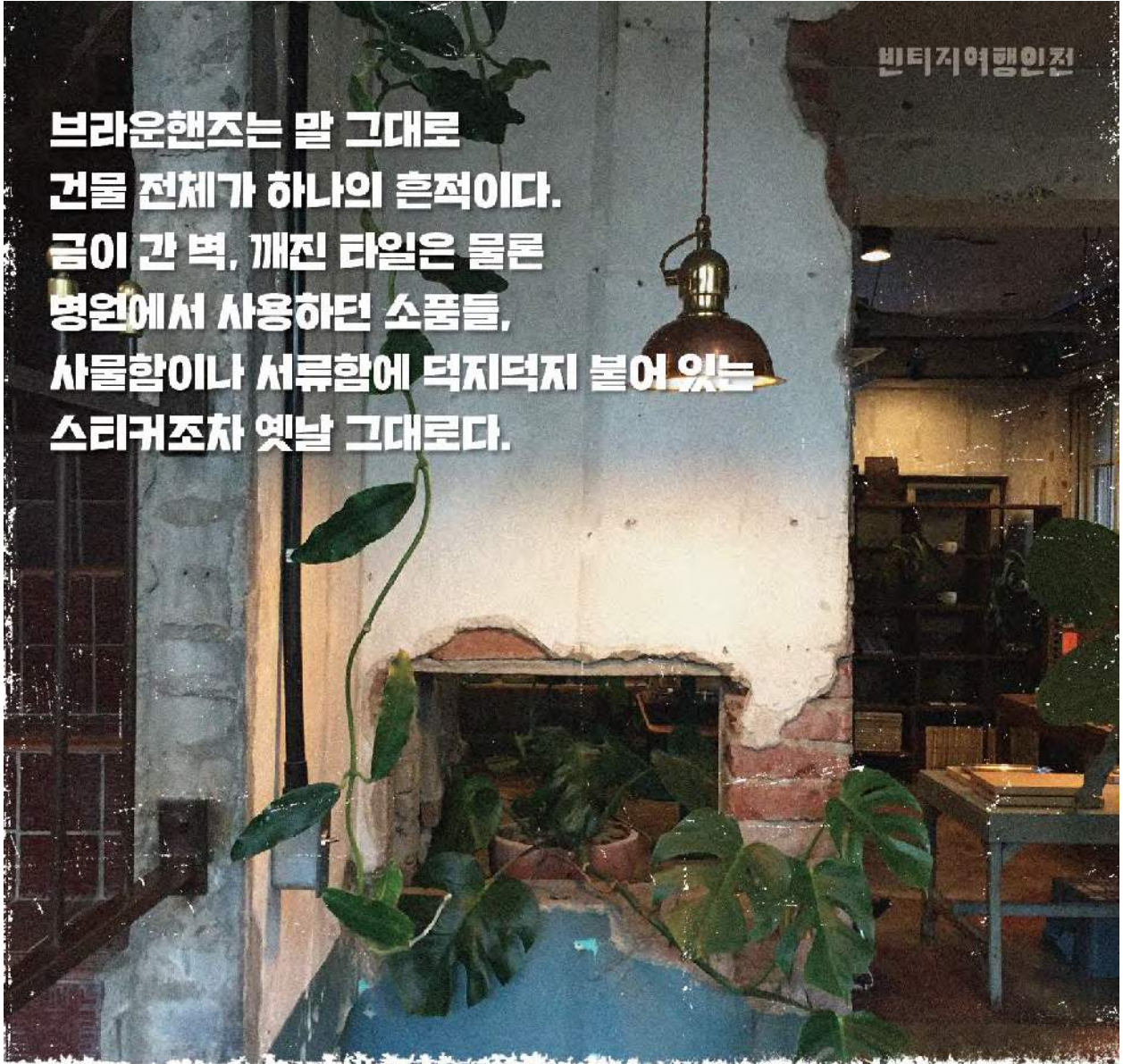
23. 브라운핸즈 개항로

BROWNHANDS GAEHANGRO

시간이 멈춘 병원에서 카페로



**브라운핸즈는 말 그대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흔적이다.
곰이 간 벽, 깨진 타일은 물론
병원에서 사용하던 소품들,
사물함이나 서류함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스티커조차 옛날 그대로다.**





애관극장을 지나 조금 걷다 보면 보이는 낡은 노란색 4층 건물이 보인다. 지금은 브라운핸즈라는 이름의 카페인 이곳은 원래 병원이었다고.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월중행사표’며, ‘인천 로타리 클럽’이라고 새겨진 벽거울이며, ‘이비인후과’ 간판이 차근차근 시야에 들어온다.



시간이 멈춰버리기라도 한 듯 먼지 쌓인 진료 차트가 그대로 남겨진, 금방이라도 환자를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이 공간의 시간은, 브라운핸즈로 거듭나면서 다시 흐르고 있다.



옛 공간에 남겨져 있던 금이 간 벽, 깨진 타일은 물론, 병원에서 사용하던 사무용품
과 문서들을 모두 보존했고 사물함이며 서류함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스티커조차
옛날 그대로다. 브라운핸즈는 말 그대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흔적인 셈이다.



카페 경영뿐만 아니라 가구, 조명, 손잡이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디자인 브랜드이기도 한 브라운핸즈만의 가구와 조명, 손잡이를 설치하니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완성되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층부터 4층까지,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식물들이다. 자칫 삭막해 보일 수 있는 오래된 건물에 식물을 적절히 배치해 활기를 불어넣은 브라운핸즈의 세련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브라운핸즈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음료는 물론이고 베이커리도 즐길 수 있다. 개점 시간에 맞춰 가면 빵 굽는 냄새가 그렇게 황홀하다고. 또한 1층 한편에는 작은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천과 관련된 여러 소품이나 브라운핸즈가 자체 제작한 굿즈도 만날 수 있다.



플랫화이트 한 잔에 디저트로 앙버터를 곁들여 보세요.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그리고 브라운핸즈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커피 한 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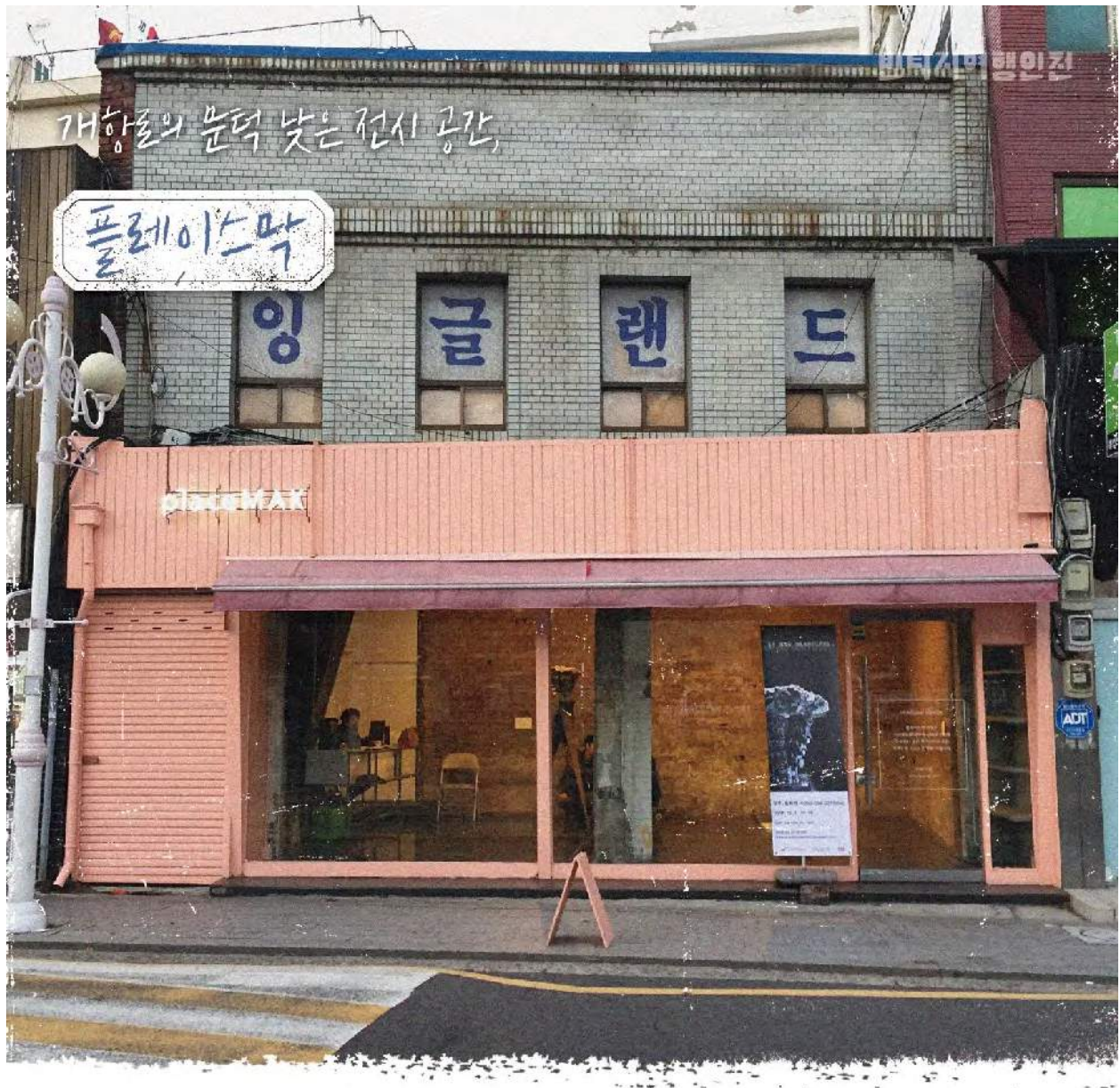


24. 플레이스막 인천 + 마틸다

PLACE MAK INCHEON AND MATHILDA



개항로의 문턱 낮은 전시 공간, 플레이스막 인천





개항로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분홍색 외벽의 한 갤러리, 플레이스막은 원래 1960년대 양장점이 있던 건물을 개조한 전시 공간이다. 플레이스막의 디렉터는 처음부터 공간의 오래된 역사를 알고 이곳에 갤러리를 열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고. 단순히 2층으로 나누어진 구조가 마음에 들어 결정한 이 공간을 새로 단장하기 위해 철거 공사를 하던 중 감추어진 세월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과감하게 1층은 건물의 원래 본모습 그대로 오래된 벽돌과 목조 천장, 목조 계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 전시 공간은 흰 벽, 그러니까 화이트 큐브가 가장 효율적인 법이지만. 그래서 보통의 갤러리와는 다른 이색적인 공간이 완성되었다. 세월을 머금어 거칠지만 나름대로 멋들어진 공간이다.



플레이스막의 이름은 ‘막하다’의 ‘막’에서 따왔다. 보통의 갤러리처럼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라고 명명하는 이유도 전시 행위는 작가보다 관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따른 것이라고. 개항로 한복판에 전시 공간을 열고 나니 인천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 거침없이 전시를 즐길 줄 아는 인천 시민들의 모습에서 그는 역사를 읽는다. 온갖 신식 문물들이 유입되는 통로였던 인천, 인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낯선 것이 두렵지 않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플레이스막에서 인천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목격한다.



그렇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유의 장을 여는 것은 플레이스막의 일종의 소임인 셈이다. 오늘도 인천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해갈을 위해 플레이스막은 불을 밝힌다.

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마틸다



빈티지여행인전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야

마틸다



플레이스막과 가까운 거리에 화려한 간판 대신 소박한 정원을 꾸며두어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붙잡는, 개항로의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 마틸다가 있다. 원래 꽃집이었던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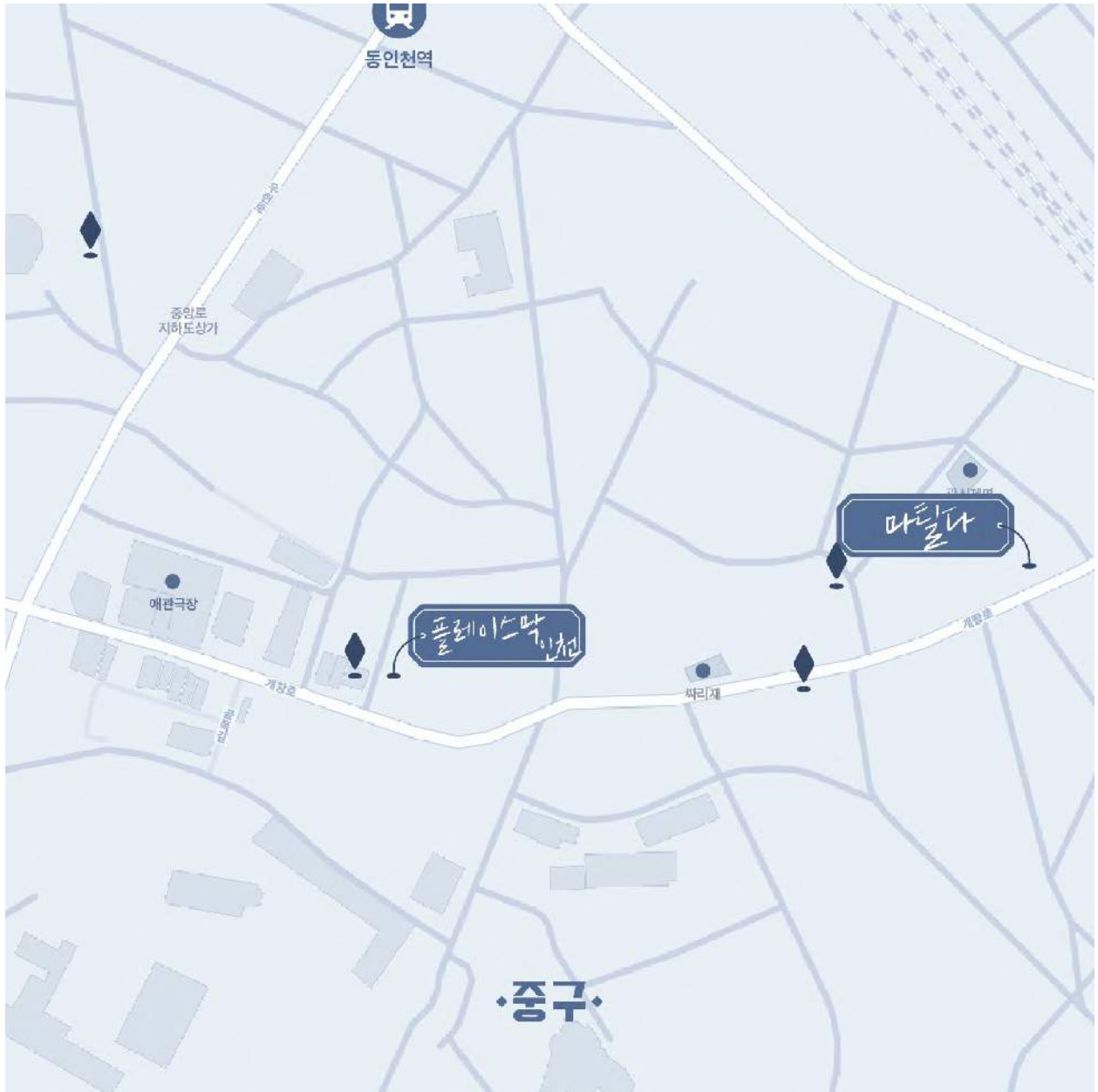
건물 외관이 거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린다. 반전의 매력이랄까.



2층 테라스는 천장이 있어서 편안하고 근사한 식사를 하기에 제격이다. 주로 연인들이 테라스에 앉아 음식과 와인을 곁들인다고. 더 추워지기 전에 테라스에서 맛있는 식사와 와인 한 잔을 곁들여 보자. 어떤 공간보다도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공간이 소중한 법. 딱히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도 이미 특별한 날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틸다에서는.



플레이스막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마틸다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는 건 어떤가요?
어떤 메뉴를 골라도 실패할 리 없지만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신메뉴, 이태리식 통삼겹구이 뿌르게따와 레드 와인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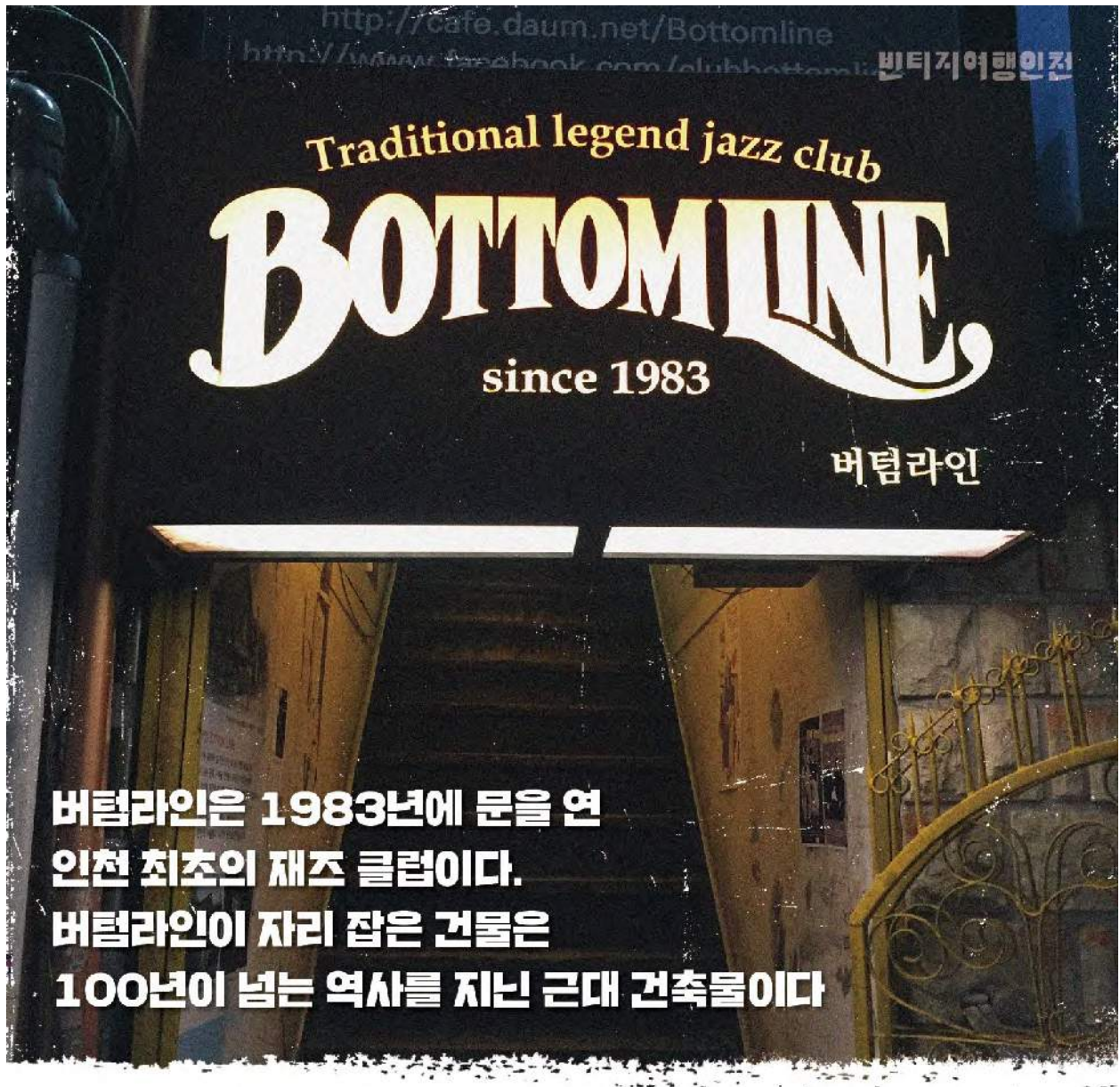


25. 버텀라인

BOTTOM LINE

커커이 쌓인 LP판 사이로 재즈 선율이 흐르는





**버텀라인은 1983년에 문을 연
인천 최초의 재즈 클럽이다.
버텀라인이 자리 잡은 건물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근대 건축물이다**



버텀라인은 1983년에 문을 연 인천 최초의 재즈 클럽이다. 버텀라인이 자리 잡은 건물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근대 건축물이다. 긴 역사만큼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건물의 변천사 이야기도 무척 흥미롭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는 고전양행이라는 양품점이 있던 건물이란 다. 신발, 넥타이, 모자, 가방 등 각종 잡화를 취급하는 양품점이 문을 닫고 1970년대에는 1층은 세탁소, 2층은 교회, 3층은 주거 공간인 다락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허정선 대표는 1985년부터 이 공간에 이끌려 버텨라인의 손님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당시 외래어 표기가 금지되었던 시대라 버텨라인은 ‘하행선’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는 재미난 후일담도 들을 수 있었다. 단골이었던 그는 역사를 품은 이 건물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1994년 버텨라인을 인수했다. 여담이지만 허 대표는 본인의 기억을 토대로 버텨라인이 1985년에 개업했다고 생각했지만 가게를 운영하던 중 한 손님으로부터 1983년에도 버텨라인이 존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듣게 됐다. 그 후, 손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버텨라인의 시작연도를 1983년으로 정정했다고 한다.



버텀라인에서 단연 눈에 띄는 옛 공간의 흔적은 천장의 목조 서까래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개를 들면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목조 서까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중간중간에는 재즈 클럽의 상징인 기타를 비롯한 각종 소품이 은은한 조명 아래 장식되어 있다.



버텀라인은 35년간 줄곧 한 자리를 지키며 재즈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버텀라인은 건축사적으로도 음악사적으로도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천의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개항장에서 버텀라인을 거쳐 간 수많은 인연과 공연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



버텀라인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공연을 하고 있다. 1년에 100회 이상의 공연을 연다고 하니 인천에 있는 그 어떤 전문 공연장과 견주어봐도 절대 적지 않은 횟수이다. 35년(2018년 기준)이라는 세월 동안 그 횟수는 켜켜이 쌓여 버텀라인을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 재즈 클럽을 만들었을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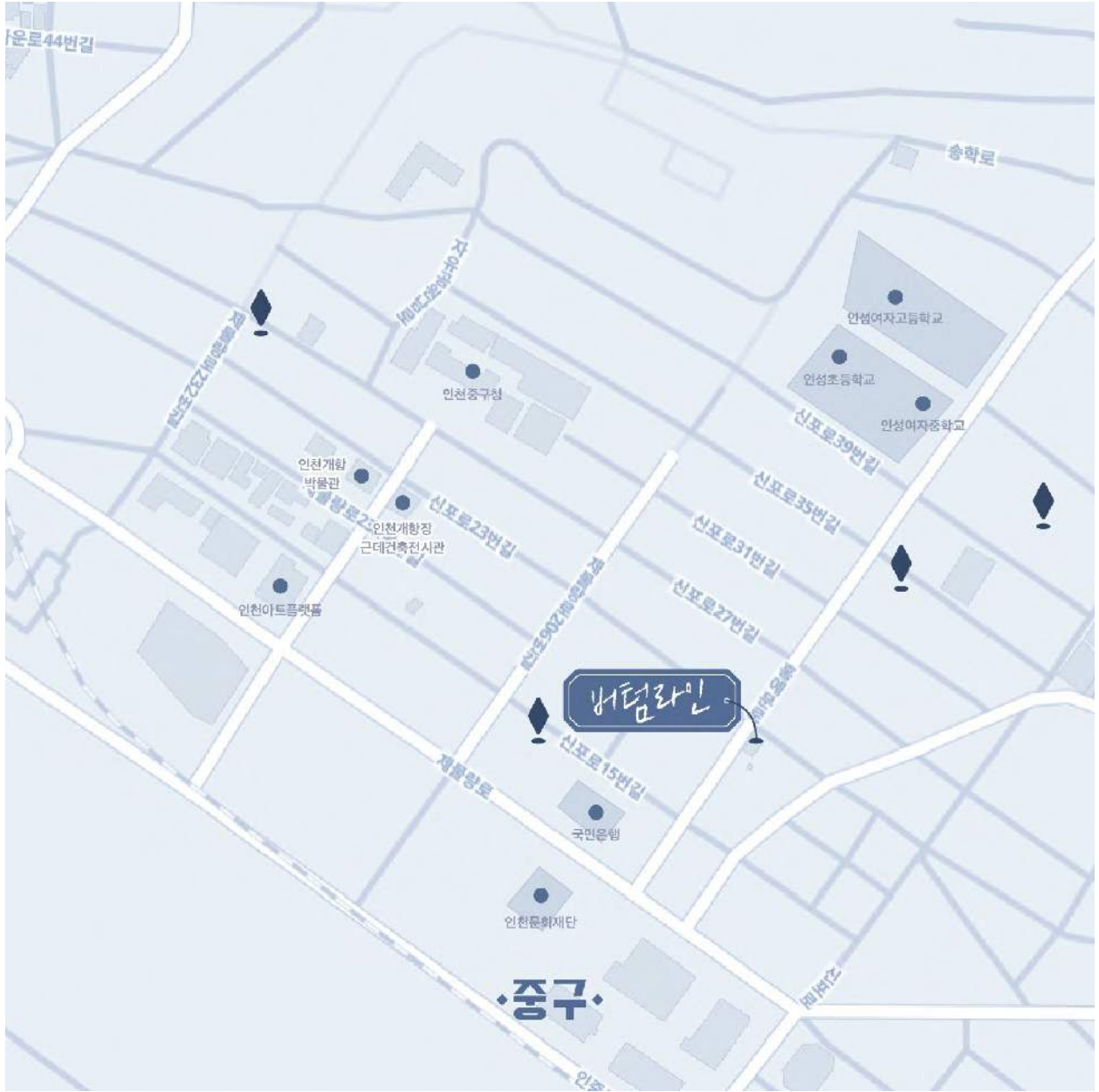


혼자 와도, 여럿이 와도 좋은 버팀라인.

혼자 오면 특별히 마련된 바에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재즈 공연을 관람하면서 주인장이 추천하는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면

최고의 주말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26. 이집트 경양식 + 앵커드 + 참새조합

EGYPT RESTAURANT, ANCHORED AND TRUEBIRD UNION

동인천에 불어온 젊음의 기운!



같은 자리, 같은 이름을 이어받아
옛 명성 그대로를 재현하진 못하더라도
동인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수와 감성을
사람들에게 다시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불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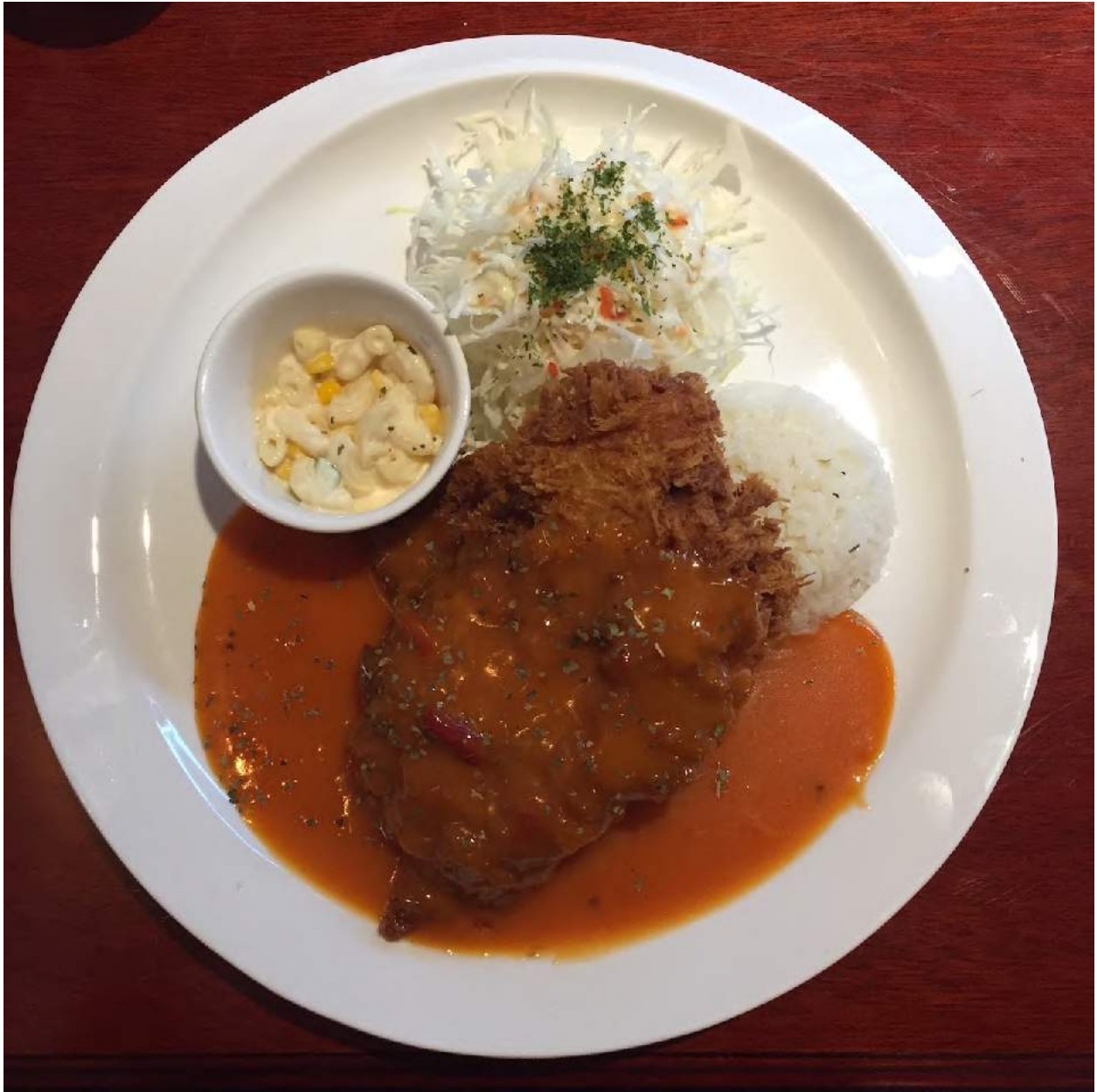




동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바로 동인천 내동 골목에 위치한 이집트 경양식, 앵커드, 참새조합이다. 한 건물을 개조해 나란히 자리잡은 이 세 가게는 젊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 불을 밝히고 있다. 원래 이 건물은 80년대에 동인천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경양식 자리였다. 그 후로도 이 건물은 때로는 노래방으로, 때로는 회사 건물로 바뀌며, 동인천이 활기를 잃는 동안 점차 낡고 허름해졌다. 그러다 2017년 동인천을 다시 되살리려는 이를 주축으로 나란히 음식점, 카페, 술집이 자리하게 되면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게 된 것이다. 세 가게의 공통점은 80년대 이집트 경양식의 상징이었던 아치형 빨간 벽돌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또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옛 건물로부터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 두었다고.



이집트 경양식은 들어가자마자 꽃무늬 벽지, 붉은 테이블과 벽에 달린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아 단숨에 70, 80년대 경양식 식당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한진규 대표는 옛 이집트 경양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더해 공간을 꾸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메뉴인 안심 돈까스는 소스의 매콤한 맛이 별미다. 그는 이곳이 80년대 동인천의 명물이었던 이집트 경양식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꼭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다고 한다. 같은 자리, 같은 이름을 이어받아 옛 명성 그대로를 재현하진 못하더라도 동인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수와 감성을 사람들에게 다시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그 진심으로 정성껏 만든 돈까스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다시금 사람들이 방문하는 동인천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집트 경양식의 이미지가 꽃무늬라면, 앵커드는 파란색이랄까. 벽면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선박 안에 있는 느낌이 든다. 좌석에 앉으면 보이는 독특한 벽면이 특히 시선을 사로잡고 공간을 채우는 푸른 식물과 조명 덕분에 휴양지에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앵커드 레모네이드는 상큼한 맛 덕택에 이곳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린다.



그런가 하면 참새조합은 국내 유일의 원 테이블 실내포차라고 할 수 있다. 건물 외벽의 빨간 벽돌과 잘 어울리는 붉은 포장마차로 꾸미고, 내부도 포차의 이미지에 맞게 최대한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 주방 쪽에도 아치형 천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참새조합에 놓인 긴 테이블은 이곳의 명물로, 참새조합의 주인장은 이 테이블 때문에 혼자 와서 둘이 되어가는 곳이라고 웃으며 소개한다. 처음 만난 옆자리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참새조합의 대표 안주는 바로 닭꼬치탕. 쌀쌀해진 날씨에 국물이 생각난다면 꼭 맛보길 권한다. 주인장은 동인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부모님이 처음 만난 곳이 예전의 이집트 경양식이라 이곳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단다. 부모님의 추억이 있는 장소에

자신이 가게를 열게 되어 더 애착이 가고 오래도록 운영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동인천만의 감성을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나란히 자리한 이 세 가게를 방문해보자.

큐레이터 TIP*

김은진



조만간 참새조합의 벽면에는 주인장이 오랫동안 모아왔던 동인천에 자리했던 옛날 가게들의 성냥갑을 전시해 놓을 예정이라고! 가게 근처에는 산책하기 좋은 인천 자유공원과 삼치거리도 있으니 동인천만의 옛 감성을 느껴 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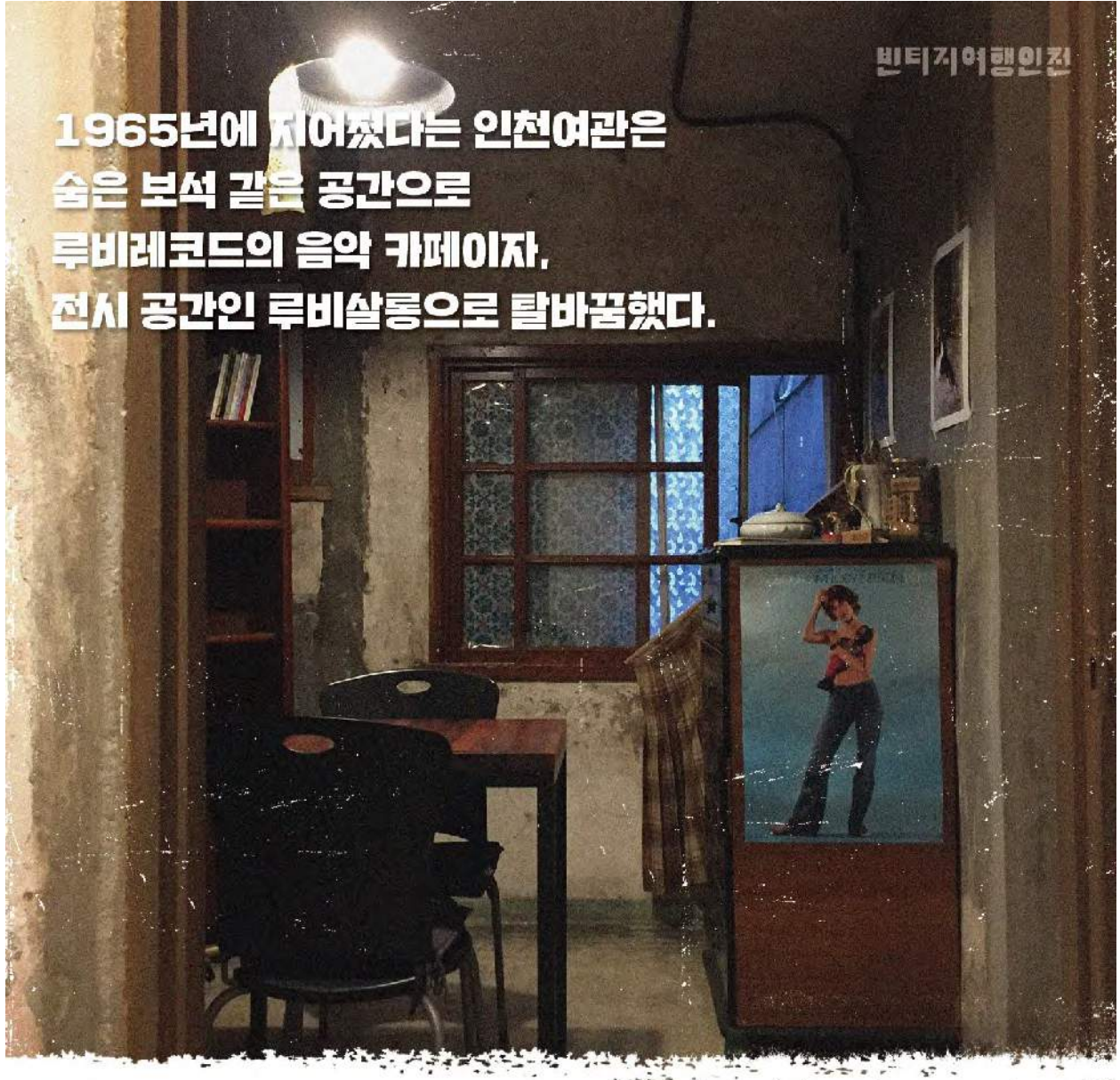
27. 인천여관X루비살롱

INCHEON YEOKWAN X RUBI SALON

재기발랄한 여관의 재해석



1965년에 지어졌다는 인천여관은
숨은 보석 같은 공간으로
루비레코드의 음악 카페이자,
전시 공간인 루비살롱으로 탈바꿈했다.





신포동 변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후미진 골목 초입에 세워진 작은 입간판이 어딘가 수상하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골목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오래된 여인숙 간판이 눈길을 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외로운 여인숙 간판을 찾았다면 당신은 인천 여관X루비살롱에 잘 도착한 것이다. 1965년에 지어졌다는 인천여관은 숨은 보석 같은 공간으로 루비레코드의 음악 카페이자, 전시 공간인 루비살롱으로 탈바꿈했다.



인천여관X루비살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공간은 2층에 있다. 본래 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 2층 세 개의 방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놓은 것이다.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문은 떼고 화려한 발을 달았고, 방마다 딸린 욕실은 그대로 두었다. 세 개의 방마다 딸린 욕조는 이미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유명한 포토존이다.



한편 2층 끝 방은 거의 매주 방문해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영화를 보다 가시는 단골 노부부의 오붓한 영화관이 되기도 한다고. 이처럼 인천여관X루비살롱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다.



인천여관X루비살롱 공간을 구성하는 소품들은 마치 갤러리의 작품 같아서 하나 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버려진 여관, 어쩌면 쓸쓸해 보이는 건물 안 흥미로운 소품들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색이 바랜 간첩 신고 스티커부터 이제는 중년이 되었을 배우들의 찬란한 젊음 시절이 담긴 포스터가 곳곳에 무심하게 붙어있다.



또, 시대가 흘렀음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패턴이 담긴 유리창은 회색빛 공간 안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으며 공간에 재기발랄한 느낌을 전한다.



그런가 하면 루비살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곡도 주목할 만하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의 조화로, 지금이 1965년인지 2018년인지 알 길이 없다. 이밖에도 인천여관X루비살롱은 루프탑 음악 감상회, 공연, 전시, 플리마켓 등 장르에 국한을 두지 않은 문화 행사를 기획해 나가고 있다.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날이 쌀쌀해지면 인천여관X루비살롱에서
따뜻한 비엔나커피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세요.

참고로 가격은 6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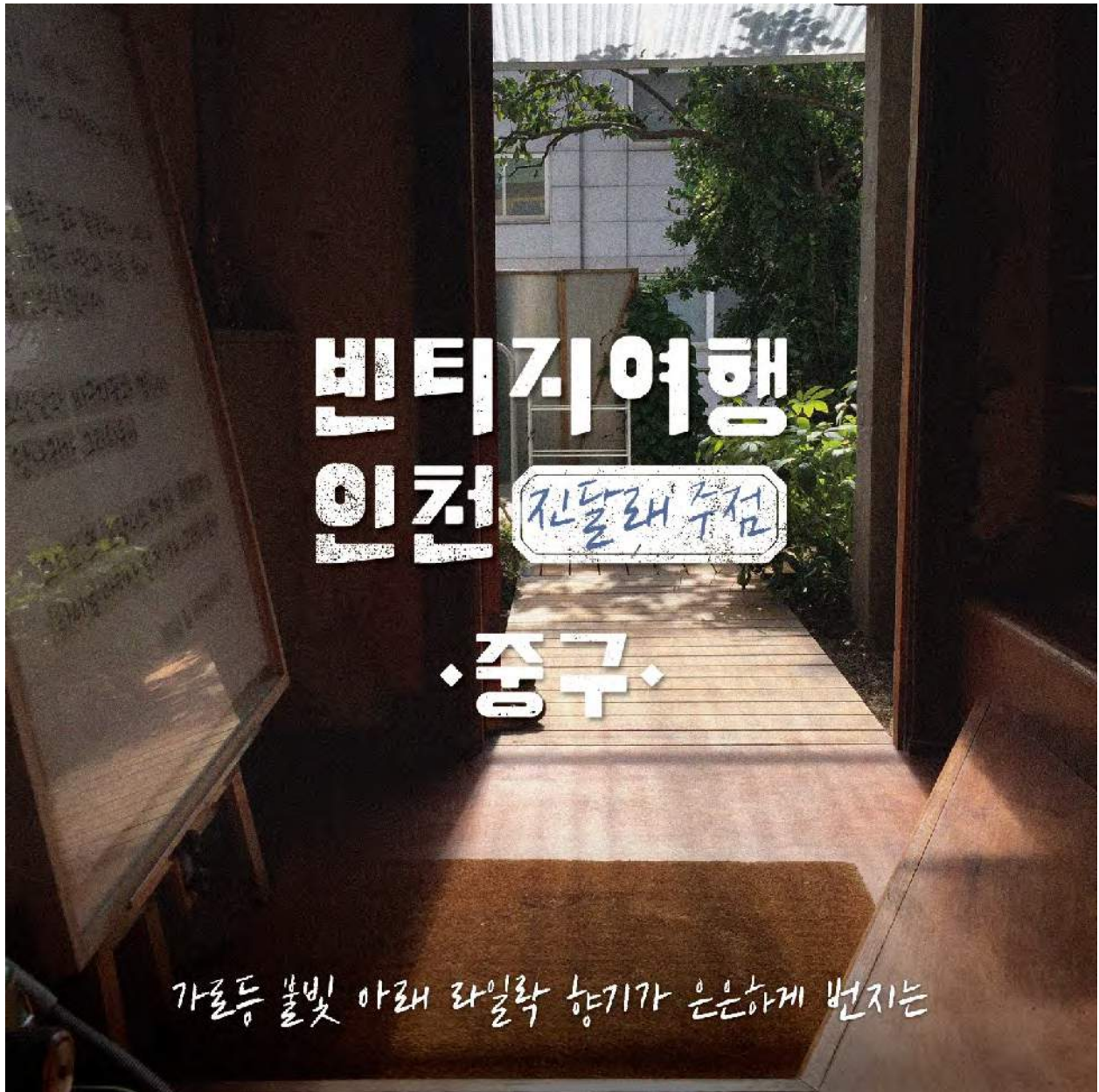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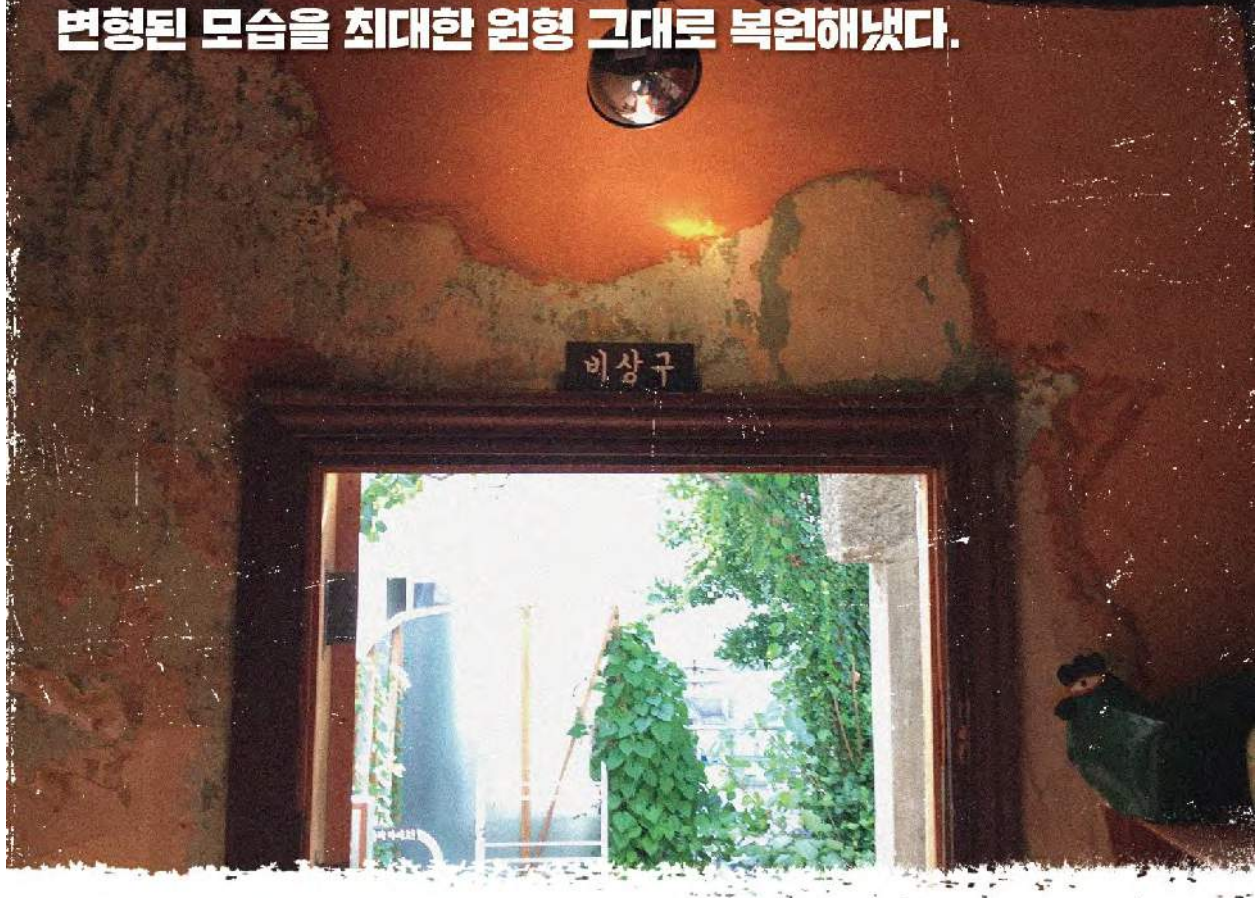
28. 진달래 주점

JINDALAE PUB

가로등 불빛 아래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번지는



**진달래 주점이 자리한 곳은
서양식 건축 양식과 일본 목조 건물이 결합한 건물로,
주인장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덧대거나
변형된 모습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해냈다.**





조용한 신포동 골목길에 담쟁이 넝쿨이 무성한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진분홍색 간판이 도드라지는 회색 건물. 골목길 계단을 오르자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번진다. 라일락 나무 옆에는 사계절 내내 푸르다는 사철나무가 건물과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1936년에 지어진 적산가옥을 손수 개조한 진달래 주점, 나만 알고 싶다가도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냉큼 데려가고픈 그런 공간을 지금 바로 만나 보자.



진달래 주점이 자리한 곳은 서양식 건축 양식과 일본 목조 건축 양식이 결합한 건물로, 주인장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덧대거나 변형된 모습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해냈다.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진달래 주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옛 건물의 흔적은 무수히 많다.



우선 1층 카운터를 지나면 그 옛날 안방의 구들장도, 전쟁 때 대피소로 사용되던 방공호도 그대로다.



2층으로 올라가면 웅장하기까지 한 천장 서까래에 잠시 넋을 잃는다. 인체의 뼈대처럼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서까래에서 굳센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진 탓일까.



사실 이곳과 같이 오래된 건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수많은 노고를 들여서라도 마주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빈티지의 매력이 아닐까.



진달래 주점에서는 주인장이 직접 요리한 한식, 중식, 태국식 요리를 고루 맛볼 수 있다. 게다가 그에 맞춰 와인부터 하이볼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주종에서도 주인장의 섬세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시간이 멈춘 듯, 세월을 잊은 듯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진달래 주점에서 맛있는 요리와 술 한 잔을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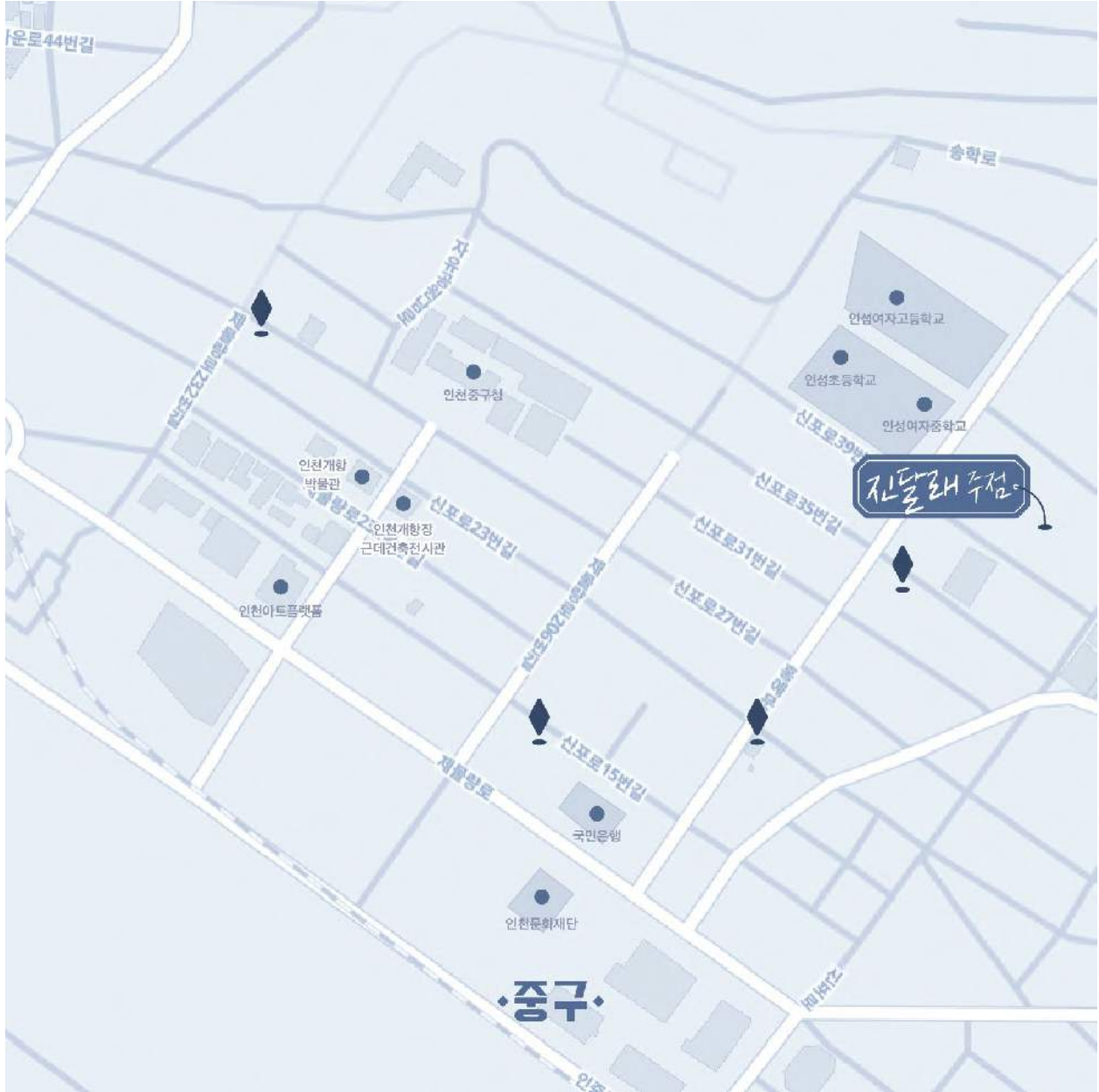


저는 2층에 불박이장이 있던 곳에 술상을 놓아 만든
구석진 자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어릴 적 책상 밑이나 장롱 안에 숨어 봤던 사람이라면 공감할 거예요!

추운 겨울밤이 되거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달래 주점의 어두운

조명 아래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온기를 채워 보세요.





29. 칼리가리 브루잉

CALIGARI BREWING

인천의 문화를 빛는 수제 맥주 브랜드



반티제어행인전

예술이 녹아든 공간 안에서
맥주와 음악을 즐기며 다채로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인천 대표 로컬 브루어리로
거듭나기 위해 칼리가리 브루잉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차이나타운 근처, 조금만 가면 인천항이 곧이라는 오래된 벽돌 창고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켜켜이 쌓인 벽돌이 세월을 말해주는 창고는 바로 칼리加里 브루잉의 자체 양조장이다.



이곳에서 수제 맥주를 직접 양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맥주를 바로 맛볼 수 있는 탭룸을 운영하고 있다. 양조장이 내다보이는 탭룸에서 맥주 한 잔이라니, 그 신선함이란 지금까지 먹어본 맛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간의 변천사를 들어보니 오래된 창고였다는 이 건물 구석구석 재밌는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다. ‘팽고팽고’ 라는 나이트클럽이었던 적이 있는가 하면, 밤 12시 이후 술을 팔지 못했던 시절 몰래 술을 팔던 편의방이기도 했단다. 이후 그릇 창고로 사용되던 곳이 오래된 도시의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양조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둘러보다 보니 양조장 벽 한쪽에 그려진 웅장한 벽화에 눈길이 간다. 벽돌 위에 거침없이 그려진 울퉁불퉁하고 투박한 저 벽화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렸는지, 왜 그렸는지, 맥주를 마시며 벽화 앞에 서서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도 펼쳐 본다.



2015년 시작된 칼리가리 브루잉은 2016년 펍 브랜드 ‘칼리가리박사의 밀실’을 론칭했다. 송도점을 시작으로 인천과 서울 각지에 매장을 두고 있다. 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 지었다는 칼리가리 브루잉은 단순히 맥주만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예술이 녹아든 공간 안에서 맥주와 음악을 즐기며 다채로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인천 대표 로컬 브루어리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칼리加里 브루잉은 비단 맥주만이 아닌, 문화를 빚어내고 있다.



신포우리맥주, 개항장 임페리얼스타우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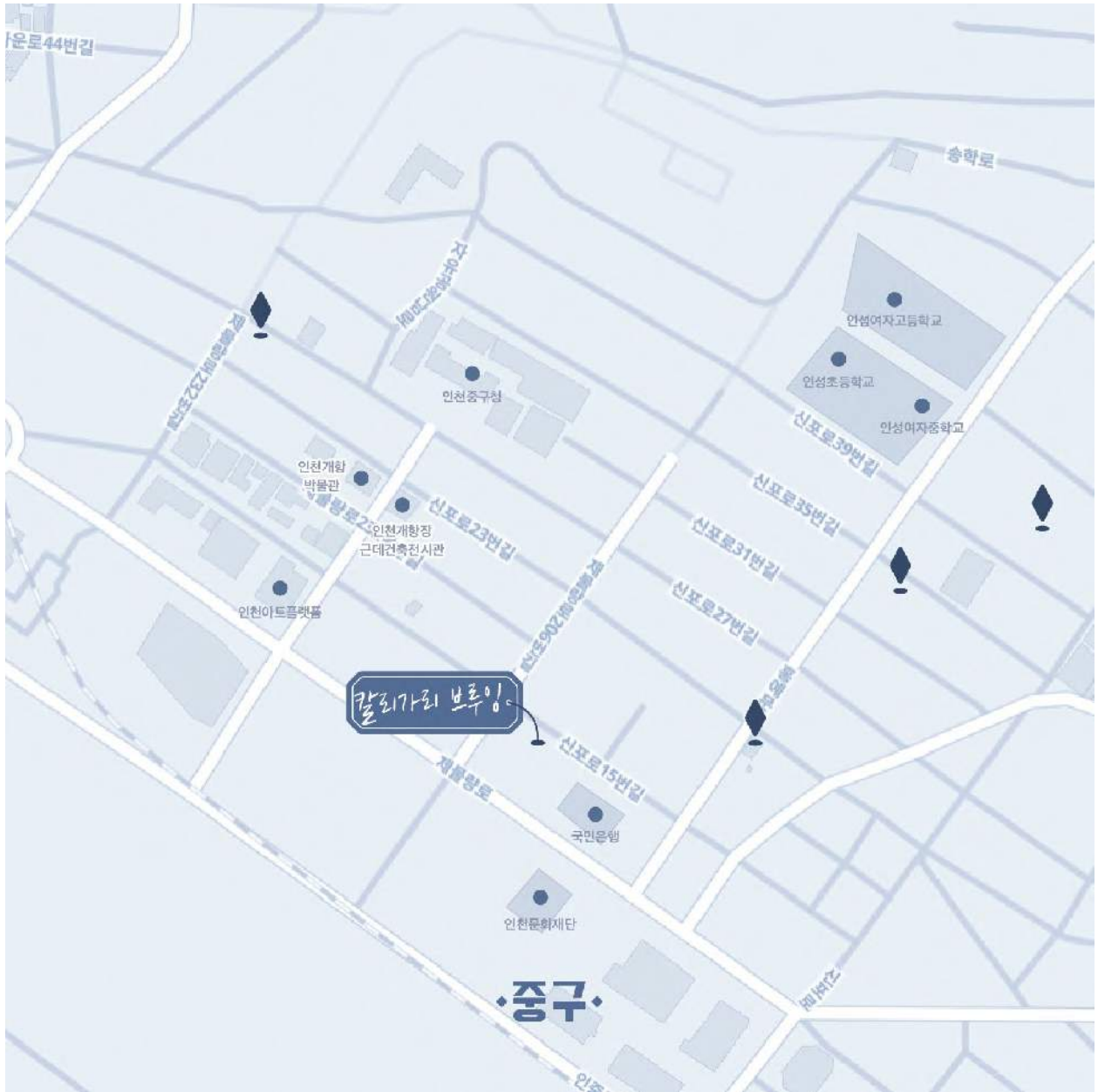
인천 로컬 수제 맥주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칼리가리 브루잉의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인

언노운 피자를 곁들이면 최고의 조합!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양조장 투어도

즐길거리 중 하나이니 꼭 참여해보세요.



30. 흑백사진관 우리

MONOCHROME PHOTOSHOP WOORI

너와 나, 우리의 추억을 붙잡는 방법



**흑백사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된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흑백사진이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다.**

우리
monochrome
photograph
studio
흑백
사진관



인천역에서 차이나타운을 지나 중구청 방향으로 걷다 보면 갑자기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거리와 마주하게 된다. 시간여행이라도 떠나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 이곳은 옛 일본인 조계지 모습을 복원해 조성한 개항장 문화지구다. 흑백사진관 우리는 2017년 8월, 개항장 문화지구에 안착했다. 옛 정취를 머금은 외관의 모습과 최대한 어울리도록 내부 인테리어에도 공을 들였다. 테이블부터 의자까지 가구는 모두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니, 작은 공간이지만 주인의 애정이 듬뿍 담겨있다.



흑백사진관 우리는 사람 사이의 교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따뜻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 사진은 손님이 직접 고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손님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주인장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하다.



흑백사진만 찍어 주는 사진관이라고 해서 그 이유가 처음에는 빈티지 콘셉트를 위해서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이유도 있었다. 흑백사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주기 때문이기도 했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흑백 사진이니깐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온다고. 화장을 공들여서 하거나, 신경 써서 의상을 갖춰 입을 필요도 없다. 때로는 ‘모처럼’이라고 핑계 삼아 가족을, 친구를, 혹은 연인을 설득하기도 좋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점이 흑백사진의 매력이 아닐까.



특히나 흑백사진관 우리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한다. ‘만삭 화보’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찍고 있다고. 이름에 걸맞게 너와 나, 우리의 추억을 남기기에는 역시 사진만 한 것이 없을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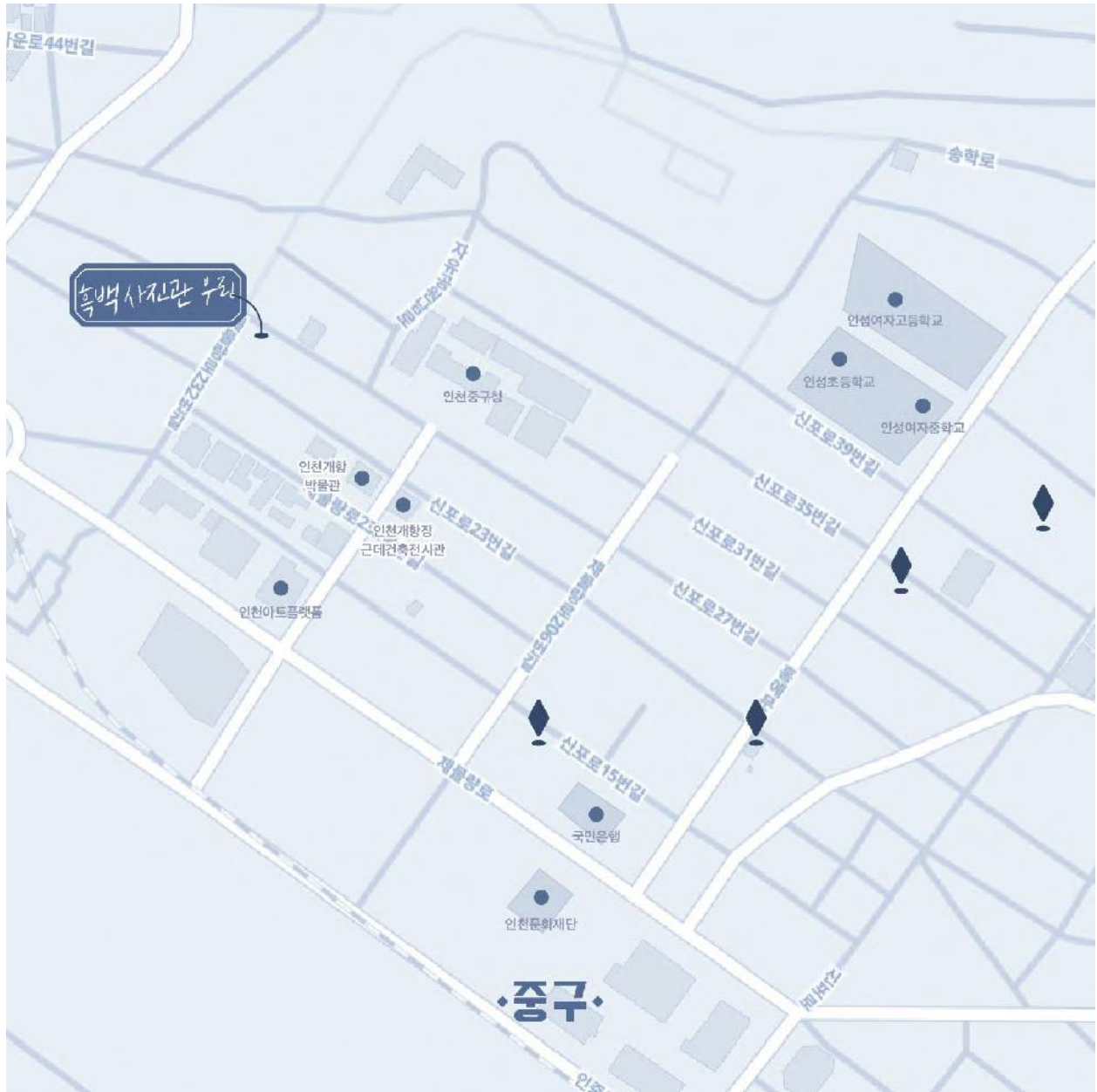
평일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주말은 선착순 촬영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주인장은 계속해서 손님들의 긴장된 표정과 자세를 풀어주려 노력한다. 처음엔 뻣뻣하고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던 사람들도 몇 장씩 찍다 보면 금세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사진 출력은 한 장당 5천 원이라고 해요.

출력한 사진은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준다고 하니 이만하면 가성비 최고!

사진 촬영 소요 시간은 넉넉히 20분 정도로 잡으면 좋습니다.



색인

INDEX

범례

강화군 ■ 서구 ■ 남동구 ■ 부평구 ■ 동구 ■ 중구 ■

이름 영어이름 공간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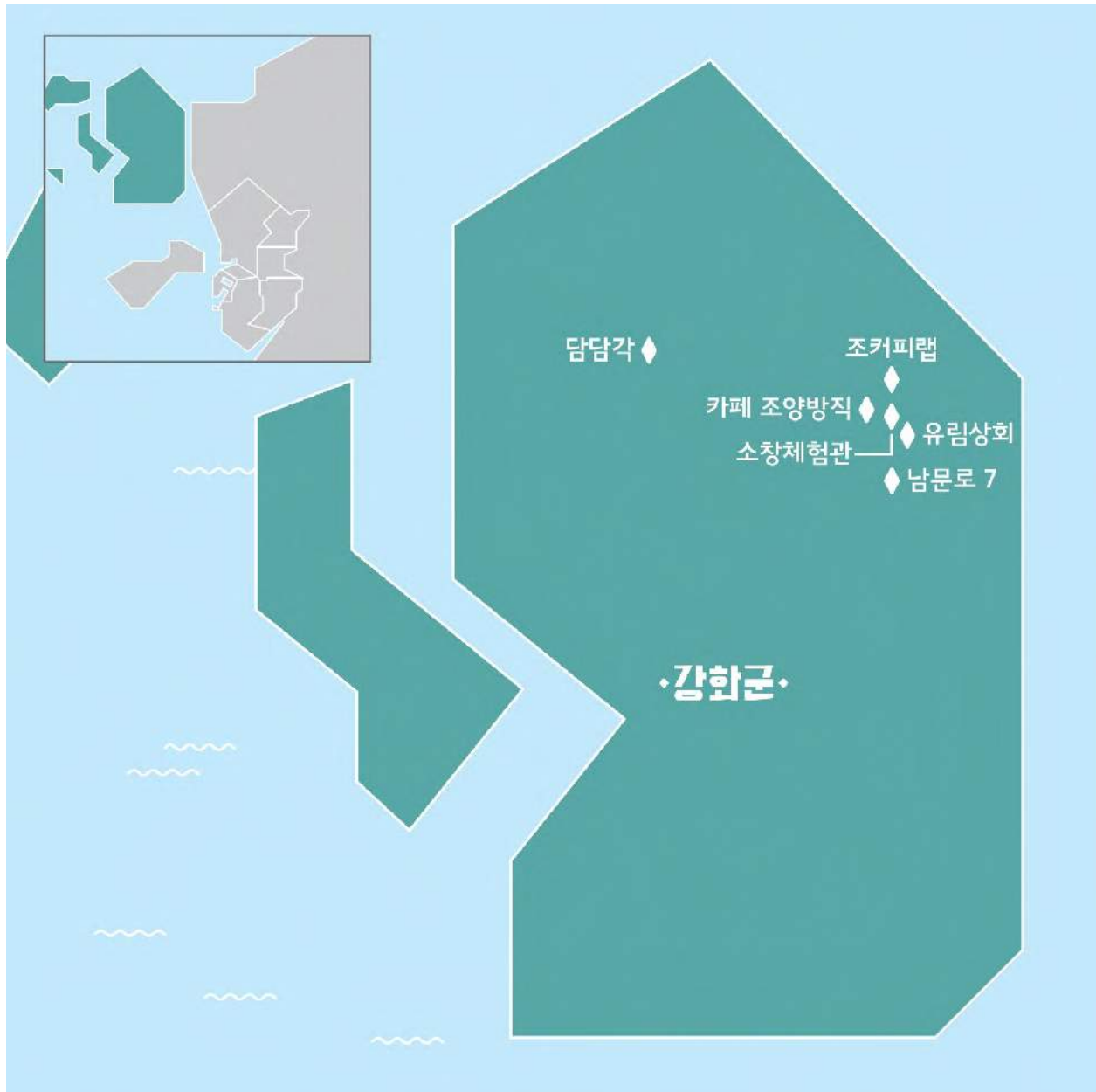
주소 | 운영시간 | 휴무일 | 전화번호

대표상품 또는 활동 | 와이파이 | 좌석수/객실수 | 개점일/개관일

웹사이트



강화군 ■



담담각 Damdamgak 숙박 (한옥 개조)

인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724-1 | 010 8825 6418

안방, 사랑방, 별채, 하늘채, 주방, 다이닝룸, 정원 | 와이파이 제공 | 객실수 4실
| 2014년 5월 개점

<http://www.damdangak.co.kr>

<https://www.facebook.com/100008073901533>

소금빛서점 Salt and Light Bookshop 서점 (고택 '대명헌' 개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7 | 월-토 11:00 ~ 20:00, 일 13:00 ~ 20:00 | 휴무

일 유동적(인스타공지) | 032 934 3456

책 | 2018년 8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seoyeunn>

유림상회 Crowd Forest Shop 그릇가게 (고택 '대명헌' 개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7 | 월-토 11:00 ~ 20:00, 일 13:00 ~ 20:00 | 휴무

일 유동적(인스타공지) | 032 934 3456

그릇 | 2018년 8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booknhandcraft>

소창체험관 Sochang Experience Center 문화공간 (염색공장 '평화직물' 개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 4월-10월 10:00 ~ 19:00, 11월-3월

10:00 ~ 18:00 | 월요일 휴무 | 032 934 2500

스탬프소창 손수건 체험, 화문석과 왕골 제작 체험, 강화특산차 체험,

직조체험, 전시, 음악회 | 2018년 1월 개점

<http://ghsochang.tistory.com>

조커피랩 Joe Coffee Lab 카페 (사무실 개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3 | 월-금 08:00 ~ 23:00, 토, 일, 법정 공휴일

10:00 ~ 23:00 | 032 933 0876

커피, 디저트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16석 | 2016년 4월

<http://www.instagram.com/joecoffeelab>

카페 남문로7 Cafe Nammunro7 카페 (방직공장 개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7 | 매일 10:30 ~ 22:00 | 연중무휴 | 032 933 9300

대추차, 쌍화차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40석 | 2014년 5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nammunro7>

카페 조양방직 Cafe Joyangbangjic 카페 (공장 '조양방직' 개조)

인천 강화군 향나무길5번길 15 | 매일 11:00 ~ 22:00 | 연중무휴 | 032 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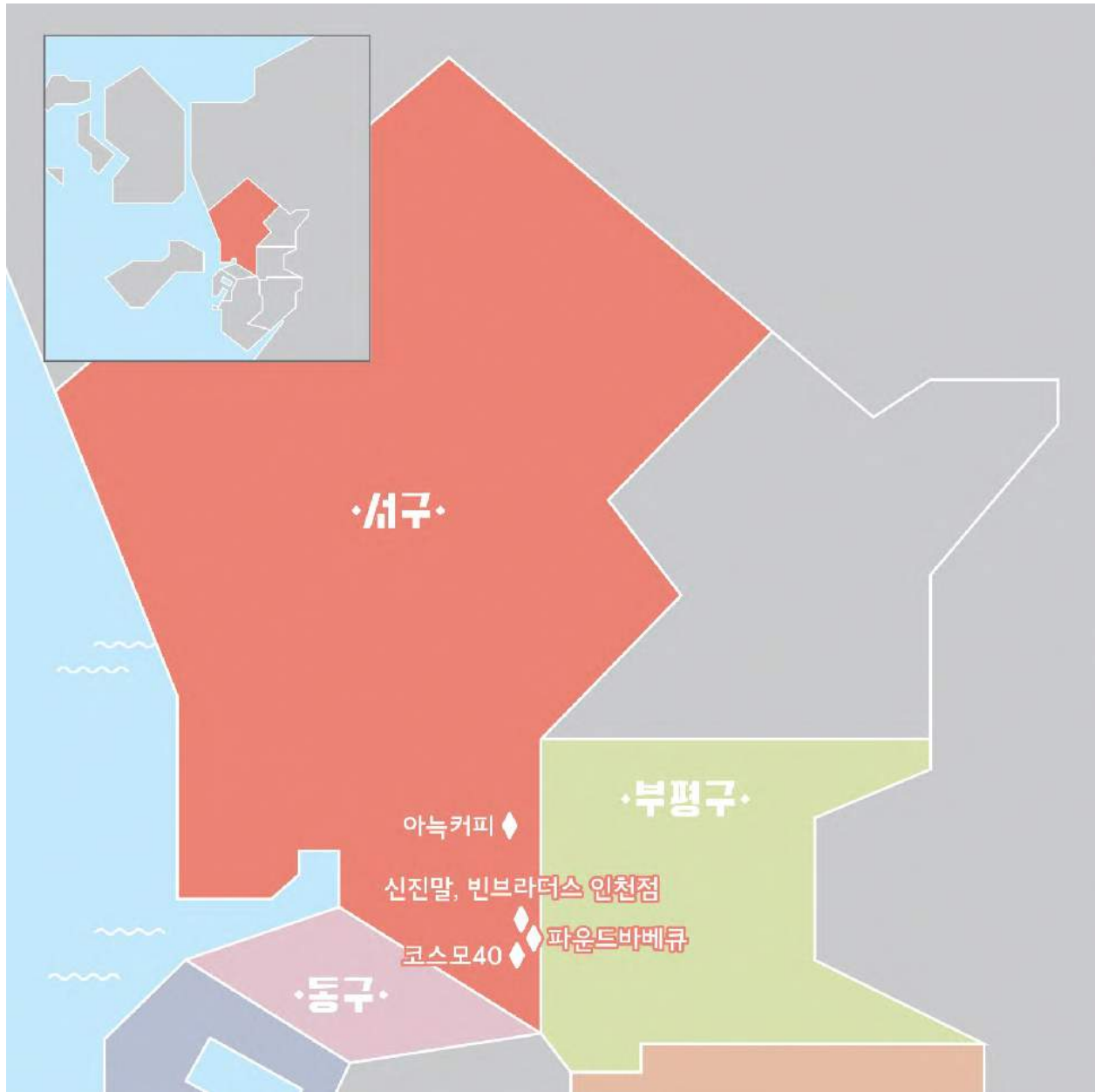
2192

카라멜 마끼아또, 당근케익, 미술관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300석 | 2018년 7

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joyang_bangjic

서구 ■



신진말 Sinjinmal 레스토랑 (식당 건물 개조)

인천 서구 원적로7번길 1 | 매일 11:00 ~ 22:00 | 연중무휴 | 032 571 5771
 제주돈생구이, 김치찌개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200석 | 2008년 개점

빈브라더스 인천점 Bean Brothers Incheon 카페 (공장 개조)

인천 서구 원적로7번길 1 | 매일 11:30 ~ 22:00 | 연중무휴 | 070 7778 5770

유어커피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120석 | 2014년 7월 개점

<https://www.beanbrothers.co.kr/cafe/2>

파운드바베큐 PWNED SKATE BBQ 레스토랑 (택배회사 건물 개조)

인천 서구 원적로 1 | 월-금 11:30 ~ 21:30(브레이크 타임 15:00 ~ 17:30), 토,
일 12:30 ~ 22:30 | 연중무휴 | 032 581 0808

더 파운드 바베큐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50석 | 2016년 4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the_pwned

아늑커피 Aneuk Coffee 카페 (목공소 개조)

인천 서구 가석로160 1층 | 화-일 11:00 ~ 21:00 (라스트오더 20:30) | 월요일
휴무 | 010 2989 3690

양절미 미숫가루, 아인슈페너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21석 | 2017년 9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aneuk_dolce

코스모40 Cosmo 40 문화공간 (공장 개조)

인천 서구 장고개로231번길 9 | 수-일 11:00 ~ 19:00 | 월, 화요일 휴무
전시, 피자, 커피, 빵 | 2018년 10월 개관

<https://www.cosmo40.com>

<https://www.instagram.com/cosmo.40>

<https://www.facebook.com/cosmo40.incheon>

남동구 



느슨 Neusn 주점 (주택 개조)

인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9-1 | 화-일 13:00 ~ 01:00 | 월요일 휴무 | 032
441 3355

와인, 커피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50석 | 2018년 6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neusn_winecafe

이당비스트로 Yidang Bistro 레스토랑 (한옥 개조)

인천 남동구 배려터로 9 | 매일 10:00 ~ 22:00 | 연중무휴 | 032 465 3362
스테이크, 파스타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60석 | 2015년 10월 개점

차담정 Chadamjung 카페 (창고 개조)

인천 남동구 인하로521번길 30 | 월-토 12:00 ~ 22:00, 일 12:00 ~ 20:00 | 휴
무일 유동적
커피, 다과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7석 | 2018년 7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chadam_jung

카페 코스메 Café Kosame 카페 (창고 개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23 | 토-목 11:00 ~ 19:00 | 금요일 휴무 | 010
5939 0904
말차라떼, 당고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15석 | 2018년 6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cafe_kosame

태이니테이블 Teiny Table 카페 (공장 개조)

인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1 | 매일 12:00 ~ 23:00 | 연중무휴 | 050 6430
5827
보틀커피, 마카롱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50석 | 2016년 8월 개점
http://www.instagram.com/teiny_table

휘게101 Hygge101 카페 (주택 개조)

인천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10-5 | 월-토 12:00 ~ 23:00, 일 12:00 ~ 22:00 |
연중무휴 | 032 422 1101
커피, 디저트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30석 | 2017년 5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hygge101>

부평구 ■



다이닝카페 게미 GHEMI 카페/레스토랑 (주택 개조)

인천 부평구 부흥로 253-5 | 월-토 11:00 ~ 24:00 | 일요일 휴무 | 070 8279
4292

브런치, 함박스테이크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40석 | 2012년 6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cafeghemi>

카페 밀레 Cafe Millet 카페/레스토랑/갤러리 (음식점 개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30번길 7 | 매일 10:30 ~ 23:00 | 연중무휴 | 032 502
1600

파스타, 커피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80석 | 2018년 3월 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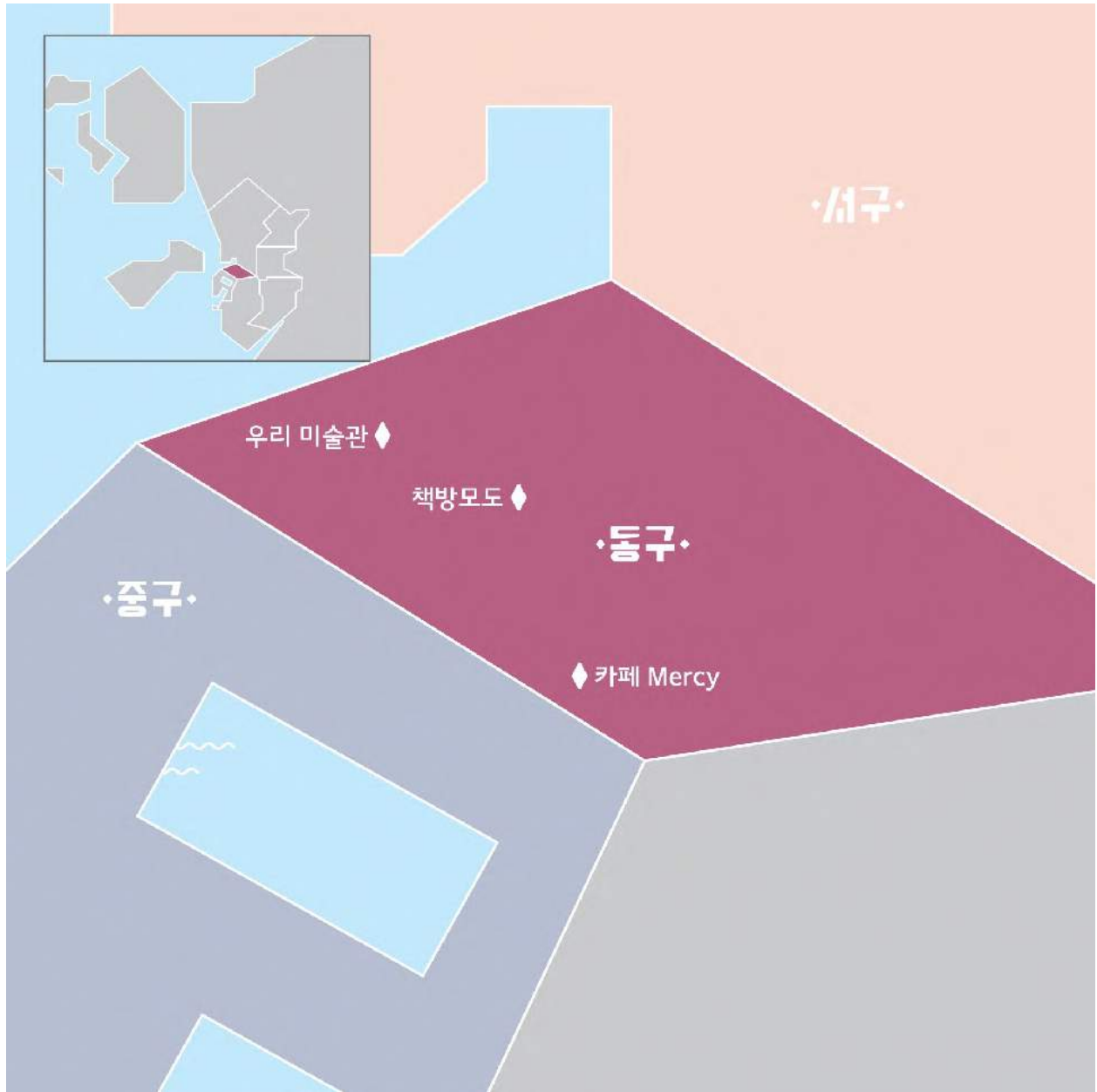
카페 발로 1,2호점 Cafe Valor 1, 2 카페 (철강공장,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개조)

인천 부평구 백범로578번길 47/52 | 월-토 10:00 ~ 21:30 | 일요일 휴무 | 032
577 3214

사진스튜디오, 카페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90석 | 2015년 6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explore/locations/1024439802>

동구 ■



우리미술관 Woori Museum of Art 문화공간 (건물 개조)

인천 동구 화도진로186번길 10 만석동 희망키움터 | 화, 수, 금-일 10:00 ~ 18:00, 목 14:00 ~ 18:00 | 월요일, 법정 공휴일 다음날 휴무 | 032 764 7664
전시 | 2015년 6월 개관

<http://www.wooriart.co.kr>

책방모도 Modo Books 서점 (주택 개조)

인천 동구 화수로47번길 14 | 매일 13:00 ~ 21:00 | 휴무일 유동적 | 070 8877
1215

도서, 잡화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4석 | 2018년 1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modo.books>

카페 Mercy Cafe Mercy 카페 (건물 개조)

인천 동구 금곡로1 | 매일 09:00 ~ 19:00 | 연중무휴

커피, 디저트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12석 | 2018년 9월 개점

<https://www.facebook.com/1990767197880302>

중구 ■



메콩사롱 Mekong Salon 레스토랑 (근대건축물 개조)

인천 중구 참외전로 158번길 14, 2층 | 화-일 12:30 ~ 22:00 | 월요일 | 010
8708 1581

동남아 요리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8석 | 2018년 9월

http://www.instagram.com/sibal_director

개항로 본부 Gaehangro Headquarter 문화공간 (근대건축물 개조)

인천 중구 개항로 94 | 운영시간 유동적(인스타그램 문의)

전시, 강연, 컨퍼런스, 파티 | 좌석수 20석 | 2018년 8월 개관

<http://www.instagram.com/gaehangro>

브라운핸즈 개항로 Brownhands Gaehangro 카페 (근대건축물 개조)

인천 중구 개항로 73-1 | 매일 11:30 ~ 21:30 | 연중무휴 | 032 777 7506

커피, 디저트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75석 | 2018년 1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brownhands_incheon

플레이스막 인천 PlaceMAK Incheon 문화공간 (근대건축물 개조)

인천 중구 개항로 75-1 | 화-일 12:00 ~ 19:00 | 월요일 휴무

전시 | 2018년 3월 개점

www.placemak.com

<https://www.facebook.com/placemak>

마틸다 Mathilda 레스토랑 (꽃집 개조)

인천 중구 개항로 105 | 화-일 11:30 ~ 22:00 (브레이크 타임 15:00 ~ 17:30) |

월요일 휴무 | 032 765 0032

이탈리안 요리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60석 | 2018년 8월 개점

http://www.instagram.com/mathilda_gaehangro

버텀라인 Bottom Line 재즈클럽 (근대건축물 개조)

인천 중구 신포로23번길 23 | 매일 18:00 ~ 25:00 | 연중무휴 | 032 766 8211

재즈공연, 음료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60석 | 1983년 개점

https://www.instagram.com/jazzclub_bottomline

이집트 경양식 Egypt Restaurant 레스토랑 (음식점 개조)

인천 중구 우현로67번길 13 | 화-일 11:00 ~ 21:00 | 월요일 휴무 | 070 8837 0079

돈까스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30석 | 2017년 7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explore/locations/358871651197914>

앵커드 Anchored 카페 (음식점 개조)

인천 중구 우현로67번길 13 | 화-일 12:00 ~ 22:00 | 월요일 휴무

커피, 디저트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25석 | 2017년 7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explore/locations/234893653698262>

참새조합 Truebird Union 주점 (음식점 개조)

인천 중구 우현로67번길 13 | 월-목, 일 18:00 ~ 02:00, 금, 토 18:00 ~ 04:00 | 월요일 휴무 | 032 777 5251

술, 안주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30석 | 2017년 8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truebird_union

인천여관X루비살롱 Incheon Yeokwan X Rubi Salon 카페/문화공간 (여관 개조)

인천 중구 신포로31번길 20 | 화-일 12:00 ~ 21:00 | 월요일 휴무 | 070 7757 4712

커피, 디저트, 음악, 전시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52석 | 2017년 9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incheonmotel>

진달래 주점 Jindalae Pub 주점 (적산가옥 개조)

인천 중구 신포로39번길 8-2 | 수-토 18:00 ~ 01:00, 일 17:00 ~ 24:00 | 월, 화

요일 휴무 | 032 766 3223

술, 안주 | 좌석수 30석 | 2017년 11월 개점

https://www.instagram.com/jindalrae__

칼리가리 브루잉 Caligari Brewing 주점 (벽돌창고 개조)

인천 중구 신포로15번길 41 | 월-토 17:00 ~ 01:00 | 일요일 휴무 | 032 766
0705

수제 맥주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36석 | 2018년 3월 개점

www.caligaribrewing.com

흑백사진관 우리 Monochrome Photoshop Woori 사진관 (근대건축물 개
조)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101 | 월-금 12:00 ~ 19:00, 토, 일 11:00 ~ 20:00 | 연
중무휴 | 010 4908 8569

흑백사진 | 와이파이 제공 | 좌석수 8석 | 2017년 8월 개점

<https://uripic.modoo.at>

https://www.instagram.com/uri_pic

큐레이터

김은진

동네서점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다섯명의 친구들이 만든 작업공간 '소회'의 운영
진이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전직 방송작가의 방송 제작

기 <나 다큐하고 있니?>를 출간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이다.

https://www.instagram.com/sohoi_official

문서희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했다. 2018년 1월부터 공동대표인 도대표와 함께 동인천 화수동 골목길 작은 서점 <책방 모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점으로 먹고 사는 일이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이 들어, 책방 이름을 모도라 지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이다.

<https://blog.naver.com/modobooks032>

장채영

가톨릭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 문화예술경영을 공부하고 있다. '소파사운즈 인천' 디렉터,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획자, 포토그래퍼, 에디터로서 참여해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이다.

<https://brunch.co.kr/%40luckyoung>

자문

개항로 프로젝트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는 인천 구도심 중구를 중심으로 기존 콘텐츠의 가치를 재설정하고, 역할이 중단된 공간을 재구성하며 지역도시를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터 모임이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이창길 대장은 부산, 제주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서 공간을 기획 및 운영하며, 현재 인천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작당모의 중이다.

<https://www.instagram.com/gaehangro>

인천스펙타클 이종범

인천의 매력적인 카페를 소개하는 책 <서울보다 멀고 제주보다 가까운 인천의 카페들>의 저자다. 코스모40의 콘텐츠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생문화공간 '예술반점 길림성', 인천크리에이티브마켓 '웨스트그루브' 등을 기획했다.

https://www.instagram.com/incheon_spectacle

청풍상회 유명상

인천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해온 그는 네 명의 청년들과 함께 2013년 청풍상회를 창업했다. 강화도를 기반으로 하는 청풍상회는 화덕피자 식당인 '화덕식당'을 시작으로, 게스트하우스 '아삭아삭 순무민박', 커뮤니티 펍 '스트롱파이어' 등 계열사를 늘려가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poongmarket>

판권

COPYRIGHT

빈티지여행인천 가이드북

Vintage Travel Incheon Guidebook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

발행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기획 인천관광공사 www.travelicn.or.kr

제작 퍼니플랜 www.funnyplan.com · 데이트할까

www.facebook.com/traveleader

아트 위아낫컴퍼니 www.instagram.com/we_are_not_company

지도그림 오픈스트리트맵 & MapTiler www.openstreetmap.org

표지사진 코스모40 제공

빈티지여행인천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레이터(글·사진) 김은진, 문서희, 장채영

자문 개항로 프로젝트 이창길, 인천스펙타클 이종범, 청풍상회 유명상

운영 남창우 T +82 10-8141-7309 E support@funnyplan.com H

www.funnyplan.com

편집 이혜림 E yarimshin@gmail.com

연재 최해송(데이트할까) E chs@lupincompany.com

www.facebook.com/traveleader

아트 권진호(위아낫컴퍼니) E wernotco@gmail.com H

www.instagram.com/we_are_not_company

Vintage Travel Incheon © 2018 Incheon

빈티지여행인천은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위에서 새로움을 전하는 인천 내 30곳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체는 구글의 [Noto Sans KR](#) Lato을 개선한 스포카의 [스포카한산스KR](#)를 사용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